

2010년도 KINU KOREA-RUSSIA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배정호 · Alexander N. Fedorovskiy 편



2010년도 KINU KOREA-RUSSIA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배정호 · Alexander N. Fedorovskiy 편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 | | |
|---------|-----|---|
| 인 | 쇄 | 2010년 12월 |
| 발 | 행 | 2010년 12월 |
| 발 | 행 | 처 |
| 발 | 행 | 인 |
| 편 | 집 | 인 |
| 등 | 록 | 제2-2361호 (97.4.23) |
| 주 | 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
| 전 | 화 |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 홈 | 페이지 | http://www.kinu.or.kr |
| 기획·디자인 | | (주)예원기획 (02-745-8090) |
| 인 | 쇄 | 처 |
| I S B N | | 978-89-8479-568-6 93340 |
| 가 | 격 | ₩10,500 |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서 문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G4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의 교차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 이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정책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통일연구원의 국제관계연구센터는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IMEMO), 극동문제연구소, 외교아카데미 등 주요 연구기관들과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국제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가 교류 등에 노력해 왔다. 러시아는 통일로 가는 과정 및 통일 이후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이고, 러시아 역시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서는 한국과 러시아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관계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정책네트워크의 질적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서는 통일연구원과 러시아연방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간의 공동연구의 산물인데, 편저의 입장에서는 이 연구서가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전문가, 학생들, 독자들이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동북아 전략, 극동시베리아 개발 전략, 한·러 전략적 협

력 동반자관계의 중요성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인은 한국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본 연구서가 탈냉전 시대 러시아의 대외환경 인식과 전략을 파악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외정책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배 정 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실장

Alexander N. Fedorovskiy

서 장



1. 21세기 동북아의 평화·번영과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동북아 지역에는 G4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고, 게다가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역내 이해관계의 교차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지극히 주요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체제전환 등에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의 교차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볼 때,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중국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중국 전략적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천안한 격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사건 등에서 중국은 대외정책의 모랄(moral)을 망각한 채, ‘북한 편들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태는 한국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를 매우 실망시켰다. 즉, 중국의 대외적 행태는 동북아지

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커녕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불씨’인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봉합’하여 현상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초와 입장을 전환시키는 데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G2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내심 견제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계속해서 지지해 왔다. 즉, 대중국 협력과 견제 전략과 관련, 한·러는 공통 이익을 가지고 있다.

둘째,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 자원 확보 등과 관련,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세계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억 또는 수백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개발은 러시아 미래의 생명줄일 뿐 아니라 지경학적으로 인접한 한국 경제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를 선박이나 북한을 거치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 한국에 들여 오는 방안,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시키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반면, 한국도 러시아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추구하는 데 한국의 전략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자본·기술 + 북한의 노동력’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등에 투입될 경우, 일본 등의 투자를 유발하며 러시아의 경제개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중국 견제로도 귀결된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에게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각인시키면서 대러 전략외교

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반도의 이익과 러시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전략적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 주도의 한반도의 통일 시, 러시아가 무엇을 가장 우려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러시아의 국익, 즉 대중국 견제전략이나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을 추구하는 데 ‘분단 한반도’보다 한국 주도의 ‘통일 한반도’가 훨씬 유효함을 설득하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과 러시아 국익’에 관한 논리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요 구성과 내용

본 연구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획·추진되었다. 즉, 한국과 러시아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관계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정책네트워크의 질적 강화를 위해 기획한 것이 한·러 공동연구이다. 2010년도에는 한·러 공동연구를 통하여 가능한 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였는데, 그 연구의 성과물이 본 연구서이다.

본 연구서는 통일연구원과 러시아연방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간의 공동연구의 산물이다. IMEMO는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관계 수립 이전부터 한국의 유력인사들과 교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연구기관이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의 연구소 중에서 국제관계와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확립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가장 국제화된 연구역량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요컨대, 통일연구원과 IMEMO는 러시아가 국제 관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과 더불어 한·러 간에 협력·공생할 수 있는 현안들을 연구하여 한국과 러시

아 간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학문적으로 구축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본 연구서의 논문들은 현 시점은 물론이고 미래 한국-러시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중점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러시아의 외교 및 안보전략 전반을 다루고 있는 주제로서, 21세기 러시아의 외교 및 안보 전략, 러시아-미국 관계,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북핵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주제군은 한반도와 러시아 간의 경제 분야 관련성을 다룬 논문들로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와 동북아 간의 지역협력, 두만강지역개발, 러시아-한반도 간의 철도연결 프로젝트 등을 다루고 있다.

세르게이 추그로프(Sergei Chugrov)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교수는 “21세기 러시아의 외교 및 안보 전략”이라는 논문을 통해 국제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그로프 교수는 러시아가 1990년대에 과거 냉전시대보다 위상이 낮아졌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구 일각에서 평가하듯이 비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니며 제국의 부활을 추구하는 노력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현 세계에 대한 인식, 러시아와 서구, 러시아와 NATO 및 EU와의 관계, 유럽-대서양 공간, CIS와 코카서스 문제, 러시아와 아시아 등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서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시조프(Vladimir Siz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미국·캐나다 연구소 군사·안보연구센터장은 “러시아-미국관계의 변화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라는 논문을 통해, 러시아-미국관계

의 현안들과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신 전략무기감축조약을 통해 러시아와 전략핵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미·러 관계가 ‘재조정(reset)’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관계가 호전된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블라디미르 시조프 교수는 이 같은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략핵 감축 문제를 대하는 미국과 러시아간의 태도에는 서로 다른 의도로 인해 일치되기 어려운 점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미·러 간의 입장 차이 및 불일치가 미·러관계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IMEMO 부소장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로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학자이다. 미헤예프 부소장은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안보전략과 북핵문제”라는 논문에서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 전반과 북핵 이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미헤예프 부소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평화적인 변화가 되어야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평화적 변화를 위해서는 남쪽의 도움과 더불어 북한 스스로 시장경제를 배워나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미헤예프 부소장은 현실적으로 급변사태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단기간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걸맞은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헤예프 부소장은 안보 측면에서도 6자회담 같은 다자적 협의기구가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과거에 러시아 외무부에서 오랫동안 한반도를 담당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루스키 미르(Russkiy Mir) 재단 실장은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색: 안보협력에서의 문제와 시사점들”이라는 논문에서 한·러 관계의 현안을 폭넓게 다루면서, 양국관계가 나아가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실장은 한·러관계가 북한의 위협과 핵문제 같은 몇 가지 외교·안보적 이슈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경제협력의 전망은 밝고 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게오르기 톨로라야 실장은 이 과정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주창한 ‘현대화(modernization)의 달성을 위해 한국은 주요한 협력국가가 될 수 있고, 산업의 몇몇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가 요망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와 러시아 간의 경제적 관련성을 다루는 주제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논문은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Alexander N. Fedorovskiy) IMEMO 교수가 집필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와 동북아 지역협력의 주요 경향들과 전망”이다. 이 연구를 통해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현황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 교수는 극동지역에는 ‘수출모델(export model)’, ‘수입모델(import model)’ 및 ‘균형모델(balanced model)’이라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대외무역 패턴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알렉산더 페트로프스키 교수는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에너지 정책과 중국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러시아가 중국, 일본이나 한국처럼 동북아 내에서 활발하게 지역협력을 하려면 다른 동북아 국가들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산업이나 사회적 인프라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많은 논문을 쓴 바 있는 알렉산더 보론초프(Alexander Voronts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교수는 “러시아-한반도 철도연결 프로젝트: 현 상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른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간의 연결에 대해 과거,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알렉산더 보론초프 교수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륙 간 철도연결은 필수적인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철도연결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알렉산더 보론초프 교수는 러시아가 TKR 부설과 TSR로의 철도 연결을 위해 수행했던 노력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소강상태에 처해있지만 철도연결 사업이 향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안보의 불안이 제거되면서 미래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스베틀라나 수슬리나(Svetlana Suslina)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세계경제학과 교수가 쓴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1990~2000년대의 국제사업인 “두만강 프로젝트”(2005년 이후 GTI로 알려짐)의 진행과 관련된 이슈들, 동북아 경제통합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스베틀라나 수슬리나 교수는 동북아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잠재성은 높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인정하고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러시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 두만강 프로젝트가 중요한 기회이다. 두만강 프로젝트가 초기의 적극성에 비해 근년에 들어와서 활력을 다소 상실했지만, 참여국들은 이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재고하면서 추진력을 다시금 생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측에서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 대해 논문을 쓴 김석환 주성대학 부총장은 러시아가 1990년대 이후에 북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노력을 해 온 일련의 동기와 행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김석환 부총장은 이를 통해 러시아가 처음에는 경제적 요인에서 시작하여 복합적 요인에 의해 북극해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과 전략을 이해할 때에는 단순히 북극해의 북동항로를 둘러싼 물류에 대한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되며, 군사전략적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에서 여인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기와 같이 8편에 달하는 한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분석과 전망을 종합하여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배정호 소장

목 차

| | |
|----------|-----|
| 서문 | i |
| 서장 | iii |

제1편: 러시아의 외교안보 전략과 북핵문제

| | |
|--|----|
| I. 21세기 러시아의 외교 및 안보 전략 | 1 |
| 세르게이 추그로프(Sergei Chugrov) | |
| II. 러·미관계의 변화와 신(新)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 | 25 |
| 블라디미르 시조프(Vladimir U. Sizov) | |
| III.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안보전략과 북핵문제 | 63 |
|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 |
| IV.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모색: 안보협력에서의 문제와 시사점들 | 89 |
|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 |

제2편: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략과 한반도

| | |
|--|---------------------------------------|
| V.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와 동북아 지역협력의 주요 경향 및 전망···119 |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Alexander N. Fedorovskiy) |
| VI. 러시아-한반도 철도연결 프로젝트: 현 상황과 전망·····141 | 알렉산더 보론초프(Alexander Vorontsov) |
| VII.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165 | 스베틀라나 수슬리나(Svetlana Suslina) |
| VIII. 러시아의 북극 전략·····189 | 김석환(Kim, Seok Hwan) |
| 결론: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방안·····233 | 여인곤(Yeo, In-Kon) |
| 저자 이력 ······241 | |
| 최근 발간자료 안내·····249 | |

표·그림 목차

| | |
|--|-----|
| 〈표 V-1〉 러시아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APEC의 비중(%) | 122 |
| 〈표 V-2〉 동북아와 러시아연방 간의 무역 수출 (CIS 국가 배제, 미국\$) .. | 123 |
| 〈표 V-3〉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와의 무역, 수입 (CIS 국가들 제외, 공식적으로 등록된 수입 제외, 미국\$) | 124 |
| 〈표 VIII-1〉 북극권 주변 도시들과 주민 수 | 204 |
| 〈표 VIII-2〉 북극해 항로를 활용한 화물수송량의 변화와 운항 일수의 변화 (1935~1987년) | 205 |
| 〈표 VIII-3〉 북극해 항로와 극동-유럽 항로 간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거리·비용 분석 | 208 |
| 〈표 VIII-4〉 메드베데프의 4I정책과 그 내용 | 217 |
| 〈표 VIII-5〉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교통 접근성 | 219 |
| | |
| 〈그림 VIII-1〉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 지역 매장 천연자원 현황 | 196 |
| 〈그림 VIII-2〉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륙붕 연결지역 및 각국의 영토 주장 지역 1 | 222 |
| 〈그림 VIII-2.1〉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륙붕 연결지역 및 각국의 영토 주장 지역 2 | 223 |

제1편

러시아의 외교안보 전략과 북핵문제



I. 21세기 러시아의 외교 및 안보 전략

세르게이 추그로프(Sergei Chugrov)



다양한 국가들 중에서 두 가지 구분되는 집단들을 분류할 수 있다. 그들은 ‘호랑이들’과 ‘고래들’로 부를 수 있다. ‘호랑이들’의 몇 가지 사례에는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말레이시아가 해당된다. 그들은 주로 영토가 작고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형적인 ‘고래들’은 중국, 러시아, 인도와 브라질이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거대하며,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자신들의 능력범위를 직접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근대적이지 못하다. 또한 ‘고래들’은 유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치적으로 ‘고래’에 속하는 러시아 역시 소련 붕괴 이후 자신의 정치적 속성을 변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관계와 국가적 정체성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빅 이슈들’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이 문제들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러시아의 공식 문서들과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가 했던 인터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일반적인 결론은 비공식적이고 외교적인 언어를 배격하는 한 명의 정치학자로서, 그리고 절대적인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독자적인 연구자로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1. 러시아의 세계정책과 세계화 속에서의 자국에 대한 인식 개관

냉전 이후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단계에 대한 분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는 서구적 가치 일종의 ‘역사의 종말론’의 적용을 통해 필연적으로 세계가 위대한 서구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다른 접근법은 경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문명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제 경쟁의 주제가 가치와 발전 모델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단계는 때로 ‘포스트 아메리카주의(post American)’로 명명된다. 그러나 확실히 ‘미국 이후의 세계’ 혹은 ‘미국 없는 세계’가 아니다. 미국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이 통제와 영향력을 가진 다른 세계적 중심이 성장하면서 감소해가는 세계가 되고 있으며, 이미 근래에 세계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을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보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의 패권 정책에 도전해야 할 때라고 느끼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서구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는 패권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가 강대국 야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다극적(multi-polar), 다중심적(polycentric), 무극적(non-polar) 등 여러 용어가 현재 출현하는 세계 질서의 성격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극성(poles)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발전의 통치능력(governability)을 확보하는 것은 지도적인 국가들의 핵심 그룹 설립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들의 견해로는 집단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러시아는 이를 굳게 주창해왔다. 확실히 세계의 다양성은 그러한 협력적인 지도력이 지리적 및 문명적인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지도부는 세계 질서의 지속적인 재구성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 금융, 경제적 구조는 혁신적 변화의 도전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는 세계 정치, 세계 경제 및 금융 부문에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동등한 행위자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에너지 및 곡물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위치에 주목하게 한다. 또한 핵

에너지와 우주 탐험 분야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육지, 항공 및 바다의 통행 영역에서의 러시아의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러시아는 순수하게 실용적인 관심사를 갖고 국제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로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는 없다. 서구의 일부 인사들은 러시아가 ‘숨겨진 의도’ 혹은 ‘신제국주의적 야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러시아가 ‘고래’이고 하룻밤 새에 자신의 정치적 지향성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¹

가. 러시아가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가 새로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모르고 있다. 이것이 이웃국가인 서구가 러시아에 대해 갖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체제 전환 중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² 어떻게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단 20년 만에 달라질 수 있겠는가? 물론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장군들은 아직 소비에트 권력이 존재할 당시의 절정기 때 등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만 예외로 하고, 그들은 모두 소련이 붕괴했을 때 30대와 40대였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아직 우크라이나가 외국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영국이 자신의 제국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왜 프랑스

¹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Sergei Lavrov, “Russia a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Russia in Global Affairs*, No. 3 (July/September 2008).

² Lyne Roderic, “Reading Russia, Rewiring the West,” *Russiya v global’noy politike*, No. 5 (September/October 2008).

가 알제리에 매달렸는가? 왜 일부 일본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아직 참배하는가?

러시아의 ‘정치 계급’은 단일체가 아니다.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러시아 지향적(pro-Russian)’이다. 러시아가 ‘서구 지향적(pro-Western)’으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념을 막론하고 러시아 엘리트의 상당수가 서구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격세유전적으로 불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구정책에 대해 분개하지 않는 합리적 비판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서구정책의 사례는 특히 이라크 전쟁, 1999년 이후의 코소보 사태, 미국의 이란 공격 계획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부는 미국 및 서구와 직접 대결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난 수년간을 보냈다. 아마도 러시아가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남부 국경으로부터, 장기적으로는 깊어가는 불편함의 원천이 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안보적 주요 위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하나의 주요한 목표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모든 주요 정상회의에 가장 위엄 있는 것은 G8에 참가하는 것이다. 푸틴(Vladimir Putin)은 이것이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의 경제력과 ‘소프트 파워’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0년 9월 정치학자들이 모인 야로슬라블 국제 포럼에서 자신은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반 완제품과 무기의 생산자 이상의 무엇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³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인프라구조, 건강보험과 교육을 포함하는 공공재의 기반은 약

³- D. Medvedev, Speech at the Yaroslavl Forum of Political Scientists and Journalists (September 2010).

해진 반면 국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기는 거대재벌들(tycoons)과 대단히 밀착하는 정치문화가 이어져왔다. 이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기술적 노하우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을 활용하려는 현대화 전략(modernization strategy)을 추구해왔다. 여기서 현대화란 러시아가 가장 발전된 경제의 반열에 합류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 비전은 러시아판 실리콘밸리로 크렘린이 구상한 스콜코보(Skolkovo)로 불리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를 만드는 야심찬 계획에 이미 영감을 준 바 있다. 또 다른 주요 목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고, 러시아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무함으로써, 세계경제와 보다 가깝게 통합하려는 것이다.

2008년 7월에 채택된 외교정책 개념(Concept of Foreign Policy, 때로 메드베데프 독트린으로 불림)⁴에서 5개의 러시아 외교정책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은 문명국들 간의 관계와 그리고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규정한 주요한 국제법 원칙(고립주의는 러시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다)과 특별히 부합한다. 네 번째 원칙은 ‘러시아 시민의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우선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그들이 어디에서든 러시아가 갖고 있는 ‘특권화된 이익’이 있는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둘 권리를 강조한다. 대통령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우선적 가치’와 ‘특권화된 이익’의 관념이 나중의 두 개의 원칙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칙보다 덜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가 열거하는 대상에서

4- See the document, <<http://archive.kremlin.ru/eng/text/docs/2008/07/204750.shtml>>.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제외된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현재의 세계 금융·경제적 구조를 대단히 좋아하지 않는다. 서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금융·경제 권력과 영향력이 BRICs 국가들(브라질, 인도와 중국·정치적 ‘고래들’) 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경제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최근에 푸틴 총리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금과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⁵

현재 세계의 정치적 구조를 보존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UN 평화유지군의 다양한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소위 갈등 이후 평화유지의 개념은 UN이 지지하는 행동 속에서 구체화된다”⁶라고 말했다.

2. 러시아와 서구: 상호인식의 변형

표도르 주제프(Fyodor Tyutchev, 19세기 러시아의 시인 겸 외교관)는 “자신의 존재라는 바로 그 의미 때문에 러시아가 서구의 미래를 부정한다”고 썼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유럽·대서양 지역에 대해, 그리고 세계에 대해 안보와 번영이 진정으로 분리될 수 없는 공통의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제프에게 대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할 아주 먼 길이 남아있으며, 우리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5-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05/10/russia_modernizes_the_old_fashioned_way>.

6- S. Lavrov's interview, *Rossiyskaya gazeta*, No. 5301 (1 October, 2010).

가. 바냐 아저씨(Uncle Vanya)와 잉클 샘(Uncle Sam)

메드베데프 독트린의 두 번째 원칙은 “세계가 다극체제로 되어야 한다 … 러시아는 미국이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의 정책결정자만 존재하는 세계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의 분석가들이 현대 세계에서 의 대개 러시아 같은 외부(세계)로부터 이루어지는 ‘무정부상태’의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그들은 어떤 체제도 자기조절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것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010년 2월에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⁷

러시아는 1990년대에 당한 굴욕을 잊고 싶어 한다. 당시 미국은 모스크바를 동등한 동반자로 다루는 데 실패했다. 워싱턴은 러시아를 냉전의 패배자 혹은 기껏해야 하위 파트너 정도로 취급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재조정’하려는 결정에 개방적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메드베데프의 현대화 정책은 러시아가 서구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는 일종의 신호이다.

러시아와 미국 간에 상호관계가 언제나 존재해왔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19세기에 양국의 공동 미래를 예견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왜 러시아가 유럽, 미국,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는 구조와 더불어 동등한 관계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러시아-미국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의 분위기에 서 나타나는 호혜적 관계이다. 지난 수년간 양국의 대통령들 간의 관

7- <http://www.rian.ru/defense_safety/20100225/210791109.html>.

계를 특징지었던 그러한 감정은 언제나 가장 낮은 수준에서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냉전기 동안 양국 간에는 상호 신뢰와 존중이 더욱 분명했다. 아마도 이것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협력만으로는 우리의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근대화를 위해 상호 준비가 필요하다.

나. 러시아, NATO와 EU: 안보딜레마의 전개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더 이상 지배적인 강대국이 아닌 새로운 범대서양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해 왔다. 조금 이상적이고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이다. 기억하라, 러시아가 ‘고래’라는 것을.

2008년 8월 그루지야(Georgia)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갈등은 NATO와 미국에 근거를 두는 유럽에서의 안보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워싱턴은 러시아의 안마당까지 NATO를 확장시키려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남용했다. 러시아인들에게 말로 했던 보장은 파기되었고, 러시아와의 가교가 될 정도로 튼튼하게 건설되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뒤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러시아가 제안하는 ‘잠시 중단’의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서도, 러시아는 미국-러시아 전략무기 조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많은 유럽인들은 NATO가 소련의 팽창 억제라는 자신의 원래 임무를 넘어서서 진일보하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그들은 ‘러시아인들이 이것을 제안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의심한다.

현재의 안보구조는 아직까지 NATO에 근거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NATO의 관계는 NATO의 동진으로 악화되어 왔다.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Ukraine)의 결정적인 NATO 가입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급은 러시아-NATO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소였다.

특별히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은 러시아가 ‘재외동포들의 권리를 옹호’하려고 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국제법 원칙이 위반되고 러시아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가 자행되는’ 자신의 국경 위에서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일부 관찰자들이 NATO와 미국을 러시아의 잠재적 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소비에트 군사 독트린의 유산이다. 이것은 부적절한 사고 방식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10년 11월의 전야에 러시아-NATO 정상회담에서 말하길, “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악몽 속에서도, 누구도 우리와 NATO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러시아는 하나의 실재이다. 양 실체가 EU와 더불어 유럽-대서양에서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⁸

러시아가 유럽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겠는가? 대부분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알기로 러시아는 ‘고래’이며, 그것은 너무 크고 유럽을 압도할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늙은 호랑이들’, 혹은 ‘고양이들’과 형태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와 EU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부른다.

러시아는 EU의 세 번째로 큰 무역 거래자이며 러시아의 대 유럽으로의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석유와 가스이다. 서유럽은 러시아의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가 심하다. 이것이 러시아와 유럽이 정치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⁸- S. Lavrov's interview, *Rossiyskaya gazeta*.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은 EU와 러시아의 4개의 공통의 공간을 위한 소위 로드맵인, 4개의 특별한 정책 분야에 기초하고 있다.

- 경제적 이슈들과 환경
- 자유, 안보와 정의
- 외부 안보
-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와 교육

EU와 러시아는 국제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많은 도전에 맞서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는 기후 변화, 마약 및 인신 매매, 조직범죄, 반 테러주의, 비확산, 증동평화 과정과 이란문제가 포함된다.

EU와 러시아는 1994년에 동반자관계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EU와 러시아는 2013년까지 7개의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에서 공통의 국경, 환경 보호와 사람과 사람 간의 초국경적 행동에 관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다.

다. 유럽-대서양 공간: 분절화와 공동의 미래 사이에서

지리적으로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이다. 정치적 견해로 볼 때, 러시아는 아시아보다 유럽의 정체성을 더 갖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을 유럽 문명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공통의 기독교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러시아는 서구 유럽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20세기 동안 진행된 유럽의 사회적 발전의 산물이며 여기에는 양차 대전의 비극과 냉전 및 소련의 경험이 포함된다. 소련은 이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소비에트의 위협’이 서구를 단합시켰을 뿐 아니라, 서유럽이 자신의 경제발전을 ‘사회화’하는 데도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지향된 경제의 창설이라는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러시아는 공통의 유럽적 유산에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과 러시아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더욱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외교정책 분야에서, 냉전 시기에 존재했던 유럽 내부관계의 대결적인 패러다임이 협력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반체제에 대한 관용과 의견과 입장 차를 반영하는 다원주의를 의미한다. 냉전 시기에 설립된 유럽적인 구조는 과거 접근법의 관성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적 역동성을 극복하도록 해준다. 아직 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공통의 가치를 통해 유럽·대서양지역 전체를 묶는 하나의 체계를 설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진공을 채우기 위해 유럽·대서양지역 정상회담을 포함하는, 긍정적 과정을 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응집력 있는 유럽’에 대해 공동의 이익이 깃들여 있으며, 그것의 각 요소들은 작동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통합된다.

3. CIS 문제와 코카서스(Caucasus) 충격

메드베데프 독트린의 제5항을 살펴보자.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우호국가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대한 특권화된 이익을 갖는다.” 이런 방식으로 메드베데프는 지정학적으로 책임지는 지역을 선언했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더 이상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소련의 붕괴는 아직 고통스러운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아직 일종의, 사후에도 작동되는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인인 그리고리 야블린스키(Grigory Yavlinsky)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련의 붕괴를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함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한 것은 심장이자 머리인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2010년 2월에 독립국가연합(CIS, Community of Independent Countries)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는 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⁹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에서,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그루지야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크고 러시아인들이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강한 개인적, 경제적 및 문화적 유대, 그리고 역사적 러시아의 조국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의 역사(서부 우크라이나를 예외로 하고)를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듯이,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물론 러시아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루지야 인들을 포함해서 모스크바 내에서 평이 좋지 않은 그루지야 대통령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ail Saakashvili)에 대해서는 언짢아한다. 그러나 ‘장미’와 ‘오렌지’ 혁명(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은 러시아 지도부에게는 고통스런 패배로 느껴졌다. 우크라이나

⁹- S. Lavrov's interview, *Novosti News Agency*, “Goloss Rossii” radio station and “Russia Today” TV Channel (25 February, 2010), <<http://www.rian.ru/politics/20100225/210806701.html>>.

의 오렌지 혁명은 특히 푸틴에게는 개인적으로 굴욕적이었다.

러시아 엘리트들의 정신 속에서 ‘심장’과 ‘머리’ 간의 갈등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머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강제는 비생산적이고, 러시아는 그 대신 이 국가들에 끌어들이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심장’ 속에 깃든 감정은 러시아가 단순히 약한 이웃 국가에 규율을 강제하는 힘센 근육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러시아의 역사적인 영향력 범위로 서구가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지금 2008년 8월의 갈등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촉발, 즉 그루지야가 남오세티아(South Ossetia)를 힘으로 회복하려 한 지 2년 반 정도가 지났다.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의 갈등에서 어느 누구도 러시아 뿐만 아니라, 그루지야와 서구도 이득을 얻지 못했다.

충돌이 이어진 후 2년 동안, 러시아와 그루지야는 갈등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실제로 푸틴이 2007년 2월 뮌헨(Munich)에서 개최된 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은 서구로 종속되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독립적인 행위자의 전통적인 지위로 러시아가 되돌아간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유럽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철의 장막은 없으며, ‘신냉전’의 기초가 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없다. 그러나 그루지야, 남오세티아와 아프카지야(Abkhazia)를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깊고 고통스러운 단절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지도력은 오세티아인들의 학살에 개입하여 중단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유럽인들의 반응은 약했다. 2008년 8월 초에 푸틴과 메드베데프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러시아가 침공하여 냉전 이후 최초로 이웃 나라를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남오세티아와 아프카지야를 독립국가로 만들 것

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 유럽인들은 그루지야의 영토적 통합성의 공식적 복원을 주장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루지야 이후 이 갈등의 두 번째 피해자는 외교 및 안보정책이 공통적이라는 유럽의 사고였다.

소련 붕괴를 20세기의 가장 커다란 지정학적 재난으로 보는 푸틴의 견해는 소련제국에서 탈출해 자신의 독립을 쟁취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발틱 국가들 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감하는 견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복원하는 것이며, 세계의 이데올로기로서 공산주의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은 러시아가 영토를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존경받고자 함을 강조한다.

누가 다음 피해자가 될 것인가? 러시아에는 몇 개의 민족주의자들의 집단들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지도부가 깨지기 쉬운 파편을 따라 더 기어오르기보다는 나무를 따라 오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보통의 러시아인들은 비용을 감내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망각하게 될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 자산은 유럽의 강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기회이다.

4. 러시아와 아시아: 새로운 정치적 전환?

러시아가 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데 점차 실망하면서, 동쪽으로 -인도, 중국, 일본,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방향을 돌릴 때이다. 가장 중요하고 잠재력이 큰 관계는 중국과 설정되고 있는 것들이다.

가. 러시아-중국 협력

러시아와 중국은 함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다. 이 화해는 중앙 아시아와 인근 지역들에서 서구의 영향력을 일소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권력이 구조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인상적인 업적들과 더불어, 일말의 위험성과 실망도 존재한다.

첫째로, 현재 러시아 무기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군사 기술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양국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항하여 러시아가 판 무기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중국에 가장 현대적인 생산품을 팔기를 꺼려한다.

둘째로, 러시아는 중국에 있는 러시아 에너지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중국으로의 수송을 증대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석유 파이프라인과 동시베리아에서 중국의 극동까지 연결하는 가스 수송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국가들 간의 에너지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서는 안 된다.

- 러시아는 중국이 가장 낮은 가격에 에너지 자원을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단히 분개했다.
- 중국 또한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해 카자흐스탄(Kazakhsta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유대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회피하기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카자흐스탄의 석유 파이프라인을 러시아 대신 중국을 관통하는

I

II

III

IV

V

VI

VII

VIII

쪽으로 재설정함으로써, 러시아의 지위를 손상시키면서 중국의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권력 자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항해 성공적으로 사용해 온-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로, 많은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관찰자들은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이 러시아 극동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중국인 위협’은 상당히 과장됐다. 러시아는 약 4,300km에 달하는 중국과의 긴 국경을 갖고 있으며, 극동에는 인구가 희박하다.¹⁰ 남쪽으로부터의 압력은 엄청나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의 러시아 유입이 1년에 600,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러시아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소상인들은 물론이고 계절 노동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인구 부족 때문에 이 지역에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 내의 일부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의 이주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정책에 담겨있는 의미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거점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이 지역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거점이다.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현재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¹⁰-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Gao Shuqin and Jia Qinggo, “Transformatsiya otnosheniy mezhdu Rossiei i KNR posle kholodnoy voyny(Transformation of Sino Russian Relation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Polis(Political Studies)*, No. 6 (November 2010).

중국, 카자흐스탄(Kazakh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으로 구성된 ‘상하이 파이브(Shanghai Five)’가 1996년에 결성된 후 나중에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이 합류하여 창설된 SCO는 2001년에 국제적 조직으로 공식화되었다. 2005년까지 SCO는 지역 안보 -특히 세 ‘악’의 국가의 테러리즘, 분리주의와 극단주의- 를 주로 다루었으며, 경제협력도 마찬가지로 다루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아스타나(Astana)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SCO는 급격한 노선 변화를 선언했다. 중앙아시아의 회원 국가의 정부들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서 서구가 지지하는 정권 교체를 목격하게 되었고, 안디잔(Andijan)에서의 불안정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억압하는 데 대해 서구가 비판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같은 사태의 진전은 그들로 하여금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을 선택하도록 강요했으며, 서구와의 관계를 축소시켰다. 이것은 SCO가 지역의 반 테러주의 행동에서 외부적 안보정책에 관한 국제적 영역에서 자신의 중요한 위치를 선언하는 것으로 SCO의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2005년에 몽골에 더해 이란, 파키스탄과 인도가 SCO에 옵서버로 가입했다. 옵서버로 이 세 국가들을 인정함으로써, SCO는 이제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을 포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에 덧붙여, 인도와 파키스탄이 4개의 핵 보유국이며, 이란 또한 핵 보유국이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SCO는 러시아의 안보정책을 위한 하나의 근거로써 기능하고 있다. 러시아는 명백하게 이 조직을 서구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SCO는 러시아에게 자신의 지정학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회원국들과 옵서버국들 간의 협력이 미국과 서구의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영향력에 맞선다는 부정적인 전략적 목적에 근본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 부분, 공통의 긍정적인 목표들이 부재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시장과 에너지 채굴을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강대국 지위와 CIS 내에서의 지도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를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보장자로 간주한다.

수년 내에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듯하며, 그것은 극동지역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서구의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을 갖고 있는, 지역 및 세계적 권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의 ‘작은 동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일 중국이 초강대국의 지위에 오른다면, 서구, 일본과 러시아가 밀접한 협력을 위해 공동의 근거를 찾으려 할 것이다.

나.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다른 일부 골칫거리들

홋카이도(Hokkaido) 북쪽의 4개의 섬에 관한 모스크바와 도쿄 사이의 영토분쟁은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문제이다. 러시아와 일본 양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 영토분쟁이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더욱 깊은 곳에 있다. 양국관계가 상호 불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945년 8월에 일본과 전쟁을하기로 한 소련의 결정은 -중립조약 위반임- 일본인의 국가적 자존심을 심하게 손상시켰다. 더욱이 600,000만 명이 넘는 일본인 포로를 시베리아에 수감했고 이는 양국관계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불행하게도 러시아와 일본에는 영토문제에 대해 자신의 정부에 압

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협상의 토대 위에서- 영토분쟁의 해결을 찾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집단이나 로비 단체들이 없다. 사실, 이 갈등이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요한 장애물은 아니며, 유일한 장애물도 아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은 두 개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중단하거나 이전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영토 경계에 관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 두 국가가 이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때, 그들은 확실히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새로 출현하는 인접한 핵 국가인 북한과 이란 때문에 영구적으로 골치가 아프게 될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러시아 자신의 핵 보유국 지위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미국, 유럽 및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모스크바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2010년 7월에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찬성했으며 이란에 미사일 대항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을 중단했다. 테헤란(Tehran)은 새로운 대화를 할 준비를 갖춰음을 보여주었다.¹¹ 이것은 오바마(Obama) 행정부의 큰 승리였으며 러·미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이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 취하는 접근 방법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이 양 국가들의 상이한 행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북한이 안보 보장과 주요한 경제적 원조를 위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교환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왔던 반면에, 이란은 그 같은 협상에 관심이 없고 -국제적 위신과 지역의 지배권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에서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모스크바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핵무

¹¹ S. Lavrov's interview, *Rossiyskaya gazeta*.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기의 확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연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이 짧은 검토를 통해 러시아의 접근법은 합리성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님이 분명해졌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에 문제를 더해서 세계의 미래에 성급한 결정을 저당 잡히는 행동이 될 뿐이다. 그러한 행태는 시간 낭비가 될 것이며, 공동행동을 위한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누구도 서두르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자고 권유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의 미래로 가는 통로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미래가 담겨있는 곳이다.

참고문헌

1. 논문

Lavrov, Sergei. “Russia a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Russia in Global Affairs*. No. 3, July/September 2008.

Roderic, Lyne. “Reading Russia, Rewiring the West.” *Russiya v global'noy politike*. No. 5, September/October 2008.

Shuqin, Gao and Jia Qinggo. “Transformatsiya otnosheniy mezhdou Rossiey i KNR posle kholodnoy voyny(Transformation of Sino-Russian Relation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Polis(Political Studies)*. No. 6, November 2010.

2. 기타자료

Lavrov's interview. *Rossiyskaya gazeta*. No. 5301, 1 October, 2010.

_____. *Novosti News Agency*. “Golos Rossii” Radio Station and “Russia Today” TV Channel. 25 February, 2010.

Medvedev D. Speech at the Yaroslavl Forum of Political Scientists and Journalists. September 2010.

<<http://archive.kremlin.ru>>.

<<http://www.foreignpolicy.com>>.

<<http://www.rian.ru>>.

I

II

III

IV

V

VI

VII

VIII

Ⅱ. 러·미관계의 변화와 신(新)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블라디미르 시조프(Vladimir U. Sizov)



1. 서론

러·미관계는 러시아인들과 미국 및 국제적 정책 공동체 사이에서 자주 논의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2009~2010년에 개선된 양국관계는 다시 기로에 서 있다. 하나의 길은 글로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미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익의 영역 속에 평화로운 경쟁을 동반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상호불신의 정책과 전면적인 대립의 재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New START(더욱 정확하게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는 러·미관계의 잠재성만큼이나 ‘재조정(reset)’된 이면에 깃든 진정한 의도의 검증이 될 것이다. 미사일방어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논쟁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조약의 비준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핵감축, 핵비확산 및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투쟁 같은 급박한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1991년 말 이후로 러·미관계는 몇 단계 오르내림의 과정을 통과했다. 관계를 증진시킨 두 개의 물결이 연속적인 상황 악화 이후에 있었다. 좋은 관계의 시기가 나뉘었던 관계의 시기보다 훨씬 짧았다. 2010년 9월에 제3의 물결이 양자관계를 최고조로 고양시켰으며, 여기서 진정한 파트너십인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분기점에 놓이게 되었다.

1992~1994년에 냉전 이후 협상을 추구하려 한 상호적인 노력의 결과로써가 아니라 양측의 높은 기대 때문에 양자관계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러시아가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팀에서 대단히 한정된 능력을 갖고 있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러시아에게는 자신의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데 따른 이익을 향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1995~2001년은 미국이 자신의 세계전략이 러·미관계에서 중대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시기였다. STRATFOR의 임원이자 유명한 국제문제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만(George Friedman)은 “소련이 붕괴한 시점에 미국에 글로벌 차원에서 도전할 수 있는 패권적 경쟁자의 출현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데 주목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출현하는 패권국을 봉쇄하는 것이 미국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전략의 관건이다.”¹² 그 때 러시아는 너무 약했고 NATO의 동진 혹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군의 공격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정학적 문제들에 반대하는데 말로만 반대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의 영향권으로 이동하지 않으려 했고 모스크바가 “범세계적인 자유주의와 인권의 이데올로기를 구실로 한”¹³ 미국의 전략을 거부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상호관계는 또한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전환이 남긴 결과가 좋지 않자 악화되었고, 러시아의 대중 여론은 1990년대 전반에 러시아 국내문제에 서구가 개입했다고 보았다.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에 상황이 변했다. 카프카스 지역에서 테러리즘과 그다지 성공적인 투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크렘린은 9·11이 러·미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러시아는 미국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시도는 2001~2002년에 양자관계를 “일반적으로 온화한 수년 동안 그랬던 것보다 훨씬 온화한” 것으로

¹²- George Friedman, “9/11 and the 9-Year War,” *Strategic Forecasting* (8 September, 2010), <http://www.stratfor.com/weekly/20100907_911_and9yearwar?utm_source=GWeekly&utm_medium=email&utm_campaign=100908&utm_content=readmore&elq=451942236a664f65b33402117f65b334117f93b7d9>.

¹³- *Ibid.*

일부 관찰자들이 묘사하도록 만들었다.¹⁴ 그러나 우호적이었던 이 시기는 대단히 짧았다.

2003~2008년의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나쁜 상태에서 악화되는 경향으로 묘사될 수 있다. 모스크바는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군사 개입과 NATO 확대의 새로운 물결, 그 중에서도 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아(Latvia)와 리투아니아(Lithuania) 등 세 개의 구소련 공화국들을 흡수하려는 시도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 사건 이후에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입장은 더 제약을 받게 되었다. 2007년 2월 뮌헨(Munich)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의 유명한 연설을 통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푸틴은 미국이 일방적인 비합법적 행동을 취해 “한 가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장의 원천인, 많은 인간적인 비극의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¹⁵ 이것은 러시아가 자신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서구에 알리는 분명한 신호였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러시아의 진정한 능력을 검증하고 그루지야(Georgia)가 러시아 국경에 군대를 주둔하는 데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8년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의 5일간의 전쟁은 러·미관계를 대결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 직후에 소비에트 및 러시아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정주의적 강대국(Revisionist Power)’으로 부상했으며 서구가 만든 유럽안보질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대신에 그것을 형성하는 데 러시아가

¹⁴- Eugene Rumer and Angela Stent, “Repairing U.S.-Russian Relations: A Long Road Ahead,” The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the Center for Eurasian,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in the School of Foreign Service at Georgetown University (April 2009).

¹⁵- Vladimir Putin, “Vystuplenie i diskussiya na Myunkhenskoy konferentsii po voprosam politiki bezopasnosti,” Speech at the Munich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10 February, 2007).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⁶ 새로운 유럽 안보 질서를 만든다는 사고는 남오세티아(South Ossetia)에서의 무장 갈등 이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구상한 것으로 언급할 수 있다.¹⁷

양측이 상대방의 주장을 듣기를 거부하는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대화는 냉전의 부활을 가져오거나 직접적인 충돌만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은 양자관계의 일반적인 재설계를 요구한다.

러·미관계의 악화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양자관계를 ‘재조정’하자고 제안했을 때인 2008년 말에 중단되었다. 2009년 이후에 양국은 양자관계를 재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상호 이익의 영역 속에서 실용적인 협력을 선택했다. 2010년 4월 전략공격무기의 확대 감축과 제한을 위한 조치(New START)¹⁸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조약이 프라하(Prague)에서 체결되었다. 그렇지만 몇몇 이슈들에 있어서 심각한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

¹⁶- Eugene Rumer and Angela Stent (April 2009)를 볼 것.

¹⁷- 2008년 6월 5일 베를린에서 5백 명의 정치인과 경제계 지도자들 앞에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새로운 유럽 안보조약의 창설을 제안했다. “유럽문제에 관한 러시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는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유럽-대서양 일체성을 확보하는,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안보 및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냉전기 동안 형성되었던 유럽의 구조 속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블록에 기초한 접근법을 재생산하고 그것의 분절화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특히 범유럽 정상회의에서 시작할 수 있는 노력으로써 유럽 안보조약을 결성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결정체이다.” 2008년 7월 12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승인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을 볼 것, <<http://www.mid.ru>>.

¹⁸- 러시아 연방의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 조약에 대해, 『START-2010』이라는 하나의 추가적인 명칭을 제시했다. Sergei Lavrov, “New START Treaty in the Global Security Matrix: The Political Dimension,” *Mezhdunarodnaya Zhizn*, No. 7 (July 2010), <http://www.in.mid.ru/brp_4.nsf/e78a48070f128a7b43256999005bcbb3/25909cfe1bbd1c6ec325777500339245?OpenDocument>, 일부 러시아 정치 분석가들은 이 조약을 『START-3』으로 불렀다.

다. 2010년 여름에 있었던 스파이 스캔들은 ‘재조정’ 과정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양자관계의 일반적인 환경은 관계의 가능한 악화에 대한 예견과 더불어 손상되었다. 2010년 가을, 미 상원에서의 New START의 비준 과정은 양자관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래에 전개될 러·미관계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관계에서의 최근 변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러·미관계에서의 변화의 원인

현재 호전된 러·미관계의 원인에 대한 첫 번째는 2008년 말 양자관계가 러시아 연방이 소련의 계승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등장한 이후에 가장 최저점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제재의 결여 혹은 직접적인 무력 사용을 악화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재조정’의 이면에 있는 주요한 요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더 광범위하고 깊었으며 복잡했다.

당시에 발칸 반도(Balkans), 중동(the Middle East), 카프카스(Caucasus)에서, 혹은 국제 테러리즘의 확산을 통제하거나 핵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를 예방하지 못한 것처럼, 정치적·경제적 및 군사적 영역에서 미국 지배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 질서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의 새로운 중심지가 출현하면서, 일극체제의 변동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국제적 조직과 포럼에는 미국을 배제하거나, 러시아가 글로벌 정치 및 경제의 의제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글로벌 변화에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현실에 스스로 적응해야만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물질을 보호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예방하는 범세계적인 책임을 미국과 러시아 외에는 누구도 질 수 없었다. 세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상호관계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이루려는 결정은 New START를 두 나라가 체결하도록 강제한 진정한 요소였다.

테러리즘, 초국가적 범죄, 온난화와 전염병에 함께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 또한 러·미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글로벌 동학(dynamism)상의 분명한 변화¹⁹⁾는 현재와 미래의 러·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두 개의 전략적인 요소들(혹은 글로벌 행위자들)을 강화시켜 주었다. 중심부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과 동쪽의 측면으로서의 통합된 유럽과 중국이 그것들이다. 21세기가 시작하는 때, 유라시아는 세계정치의 심장부가 되었다. 주요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관계, 지역 강대국들의 군사적 및 정치적 경쟁관계, 군비경쟁, 전쟁, 테러리즘, 종교 갈등, 분단국, 영토적 분쟁과 가스과 석유 등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이 방대한 대륙의 안보환경에서 주요한 요소들이다.

“러시아는 유럽, 아시아와 넓은 중동에 걸터앉아있다. 이 세 지역의 미래가 다가올 수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규정할 것이다.”²⁰⁾ 이것이 왜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미 국무부

¹⁹⁾ 러·미관계의 국제적 맥락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볼 것. Thomas Graham, “U.S.-Russia Relations: Facing Reality Pragmaticall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uly 2008), <<http://www.csis.org>>.

²⁰⁾ William J. Burn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n a New Era: One Year After ‘Rese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14 April, 2010), <<http://www.state.gov/p/us/rm/2010/140179.htm>>.

정치 담당 번스(William J. Burns, 2005~2008년에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가 주장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가 오랫동안 국제적 불안정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러시아 영토에 근접한 미사일방어 기지를 설치하거나 러시아-EU와 러시아-NATO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 우크라이나(Ukraine)와 그루지야(Georgia)로 NATO를 확장한 다든지 하는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유럽 내의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 들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의 30%와 천연가스의 50%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지만 자국 경제는 유럽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화석연료 없이는 유럽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자로서 미국(현재 유라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지 않을지라도)은 세계 주요 시장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자원의 세계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서 절대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현재 알려진 천연 가스 보유분의 1/3을 갖고 있으며, 세계 가스 수출의 1/5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카스피 해 자원의 90%가 러시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따라 세계 시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²¹ 러시아는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기도 하다.

러시아연방 자체는 유럽과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 과도하게 의존적

²¹- R. Craig Nation, "Results of the 'Reset' in U.S.-Russian Relations," Paris, IFRI Russia/NIS Center (July 2010), <<http://www.pearltrees.com/ifri.russie.nei/651883>>.

이다. 외국과의 무역의 50% 이상과 가스 수출의 2/3가 유럽 국가들로 향한다. 러시아는 또한 EU와 같은 대륙에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 깊은 문화적·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²²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는 러시아-NATO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아직 유럽 안보체제의 완전히 합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한 문제이며, 이 점은 향후에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세계적 문제에서 소외된 행위자로 남아있는 것이 언제나 유럽의 관심사였던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NATO의 협력은 유럽 대륙에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은 러시아와 미국이 그들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양국은 국제 경제와 정치 문제에서 중국의 변화하는 역할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 중국은 2조 4,500억 달러의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0년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추월했다. 중국의 군대 증강²³ 또한 걱정 대상이다. 그렇지만 베이징은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전략적 사고 속에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일반적인 시각은 “중국이 절대적인 요소로 등장했고, 반면에 러시아의 중요성은 과거의 소련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²⁴ 일부

²² 러·미관계를 유럽과 관련하여 묘사할 때,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모두가 유럽 문명의 통합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곤 한다.

²³ 2010년 3월 중국은 7.5% 인상한 약 786억 달러로 군사비 예산을 증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09년 전체 군사관련 지출이 약 1,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U.S. Wants Renewed Military Contacts with China,” Washington D.C. (17 August, 2010), <<http://www.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60461>>.

²⁴ Franklin D. Kramer, “NATO Initiatives for an Era of Global Competition,”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무기가 중국과 그들의 합동 군사훈련에 전 달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미 연합의 가능성이 과대포장이라며 무시했다.

그들은 “러·중관계가 중국의 성장에 의해서 그 수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편리의 축(axis of convenience)’을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다.²⁵ 그들의 아시아 동료들 중 일부는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나란히 서거나 따로 서는 경우 모두- 미국의 일방주의를 제어할 필요성을 갖고 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다자주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EU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²⁶

모스크바의 많은 분석가들은 세계문제에 ‘새로운 양극성(new polarity)’을 고려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제안하는 데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유진 러머(Eugene Rumer)와 앙겔라 스텐트(Angela Stent)는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고려에 있어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갈등을 회피하면서 떠오르는 강대국을 다루는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²⁷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세 국가 모두 글로벌 세력균형의 장기적 변동이라는 똑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경제적·군사적 잠재력상의 뚜렷한 비대칭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March 2010), <<http://www.acusorg/publications/nato-initiatives-era-global-competition>>.

25- Eugene Rumer and Angela Stent (April 2009)

26- “The Strategic Balance in Northeast Asia,”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December 2009), p. 259; p. 295.

27- Eugene Rumer and Angela Stent (April 2009).

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안정성을 더 이상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 결국에는 중국이 건설적인 러·미관계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인데, 이는 러시아가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세계적 중심지들 사이에서 유라시아의 교량이 될 때 가능하다. 모스크바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때 미국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태평양에서 같은 이유로 미래에 미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러·미관계에서의 현재의 변화를 이끌어낸 또 다른 요소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이다. 2008년 말, 자신의 글로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세계 권력의 중심지들 중의 하나로 자신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는 모두 그들의 감소된 능력으로 인해 방해받았다. 두 나라는 모두 자신들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금융자산을 투입해야 하며, 때로는 그들의 해외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두 나라는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협력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이러한 결론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은 전쟁 동안 “러시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었고,”²⁸ 러시아는 카프카스에서, 서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데 있어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전투 작전은 러시아 군대의 취약점을 노출시켰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 개혁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현재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와 연방 예산에서 국방부의 수요, 이 양자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러·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급속하고 효과적인 행동은 미국의 국가

²⁸- Nation, “Results of the ‘Reset’ in U.S.-Russian Relations,” p. 5.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²⁹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만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의 수행과 승리는 2년 전(그리고 현재까지도) 국제 전선에서 미국에게는 중요한 이슈였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막대한 작전 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2009년에 7.7%가 상승하여 실제 전비는 6,610억 달러에 달한다.³⁰ 그래서 예산 적자가 미국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는다. 실패는 전반적인 지역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이란이 또 하나의 핵무장한 이웃으로 등장하는 것도 러시아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조정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었다. 북서부 루트를 통해 진행되는 미국과 동맹국 병사들과 병참 이동은 더욱 안전하고 값싼 방식이 될 것이다.

그밖에, 러시아는 미국 상품의 매력적인 외국 시장으로 남아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시장이며, 세계 3위의 외환보유 국가이다.³¹ 2008년에 러시아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수출이 2008년 12월에 러시아

²⁹- “The Right Direction for U.S. Policy Toward Russia,” A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U.S. Policy Toward Russia, Washington D.C. (March 2009), <<http://www.nixoncenter.org>>.
³⁰- “Global Arms Spending Hits Record Despite Downturn,” *Reuters* (1 June, 2010), <http://news.yahoo.com/s/nm/us_arms_spending>.
³¹- Jame F. Collins, Matthew Rojansy, “Why Russia Matters: Ten Reasons Why Washington Must Engage Moscow,” *Foreign Policy* (18 August, 2010),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08/18/why_russia_matters>.

경제의 66%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된다.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에서 나온다. 천연가스 수출은 2008년에 650억 달러에 달한다.³² 그러나 2009년에 러시아의 GDP는 2008년 5.2% 성장 및 2007년의 8.5% 성장과 대비하여 7.9% 하락했다.³³ 2009년은 러시아 가스 산업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 가스 추출량이 12.4%까지 감소했다.³⁴ 가스 수출은 총량에서 15.8% 감소했으며, 수출 액수는 42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가 1/3 이상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2010년 진단은 4%의 GDP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말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우리 (러시아의) 만성적인 후진성인 천연자원 수출에의 의존성과 부패문제를 극복하는 것”을³⁵ 목표로 삼는 새로운 정치적 전략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가 효율적인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려면 수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³⁶ 근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과 노하우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야 하며, 또한 외국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에서의 새 지도자로의 대통령 권력의 이동(2008)은 상호관계에서의 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러·미관

³²- Ariel Cohen, Richard E. Ericson, “Russia’s Economic Crisis and U.S.-Russia Relations: Troubled Times Ahead,” *Heritage* (November 2009), <<http://www.heritage.org/Research/RussiaandEurasia/bg2333.cfm>>.

³³- <<http://www.kreml.org/news/254438283>>.

³⁴- <<http://lenta.ru/news/2010/09/02/gas1>>.

³⁵- Presidenti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12 November, 2009), <<http://eng.kremlin.ru/transcripts/297>>.

³⁶- “Russia-U.S. Relations and Russia’s Vision for International Affairs,” President Medvedev’s Remarks at the Brookings Institute, Washington D.C. (13 April, 2010).

계를 개선시킨 자신들의 전임자들이 만들어놓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상황이다. 부담은 대단히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조국의 내적인 발전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이 행사하는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및 도덕적 리더십을 재확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서 바뀐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Free World)’를 위한 그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기초로서 변화시켰다. 버락 오바마는 그의 사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를 초청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가능하다는 이상주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지라도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러시아의 지도자는 다른 목표, 러시아를 현대화시키고 러시아를 미국과 진정으로 동등한 동반자로 만들려는 목표를 추구하길 원했다. 미국과의 협력은 러시아가 세계 경제의 지도자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임무가 될 것이다.

처음으로, 정치·경제 및 안보적 관심사가 미국과 러시아가 전통적인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의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현대의 안보 환경은 탈냉전 세계질서를 벗어나 평화적 이행을 양국 모두에게 제공하려는 상호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러·미관계에서의 변화가 이제 분명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3. ‘재조정(reset)’ 이후의 관계: 의도와 현실

2008년 12월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는 러·미관계에서의 ‘재조

정'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비확산, 테러리즘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른 문제들 중에서 국가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분야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³⁷

이 같은 제안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8년 7월 12일에 승인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에서 표현한 것처럼 미래 러·미관계를 위한 러시아 측의 비전과 일치했다. 이 문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 “러시아는 외교정책에 관한 기존 대화,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 이슈들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위한 기존의 광범위한 인프라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 정책에 있어 미국에 대한 장기적인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관계를 견고한 경제적 기초 위에 자리 잡으며, 이익의 균형을 위한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점과 일치한다. 그것은 러·미관계에서의 더 큰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³⁸고 명기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미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³⁹ 1년 후에 그는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전략」에 서명했으며, 그것은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서 이 개념을 선포한 것이다.⁴⁰

37- Philip H. Gordon, “U.S.-Russian Relations,” Statement before the Hous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28 July, 2009), <<http://www.state.gov/p/eur/rls/rm/2009/12653.htm>>.

38-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 (12 July, 2008), <<http://www.scrf.gov.ru/documents/25.html>>.

39- *Ibid.*

40- “Russia will aspire to build equal and substantial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e Art. 18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till 2020,” approved by Dmitry A. Medvedev,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12 May, 2009),

‘재조정’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더욱 협소하고 실용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전략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21일 취임연설에서 오바마는 미국이 “한 번 더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⁴¹ 그 후 2010년 5월에 그는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이 말을 반복했다.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지도력을 새롭게 해서 21세기에 우리의 이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우리의 국가안보는 글로벌 안보가 강력하고 책임 있는 미국의 지도력에 의존하듯이, 우리의 특별한 국가적 속성을 보존하는 미국의 능력에 의존한다.”⁴² “러시아가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국제무대에 다시 출현했을 때” 미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러시아와의 안정적이고, 본질적인, 다차원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격렬한 극단주의와 맞서고 있는 러시아와의 더 커다란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⁴³

미국 NSS는 2009년 7월 모스크바에서의 3일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재조정’의 첫 번째 실제적인 결과들이 나타난 이후 1년 뒤에 발표되었다. 새로운 오바마 전략의 지원으로 공개된 문서에서 백악관은 “재조정은 New START조약, 이란의 테헤란(Tehran) 연구용 원자로 제안, UN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S-300 미사일 대항 시스템의 이란에 대한 전달 중지, ISAF와 미군이 러시아를 거쳐 아프간에 치명적인 장비와

<<http://www.scrf.gov.ru/documents/99.html>>.
 41-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연설, <<http://www.whitehouse.gov/blog/inaugural-address>>.
 4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May 2010).
 43- *Ibid*.

비치명적인 장비를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협정,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는 데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포함하는 국가이익과 우리의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일련의 성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⁴⁴ 이와 같은 성과는 ‘재조정’ 이면에 담긴 미국의 주요한 목적들을 전적으로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크렘린과의 새로운 관계의 결과와 질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NSS-2010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이웃국가들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했다. 그것은 ‘재조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는 것을 모스크바에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이 이 가정을 입증해주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러시아와 미국은 상호관계의 환경을 개선하려 했다. 2009년 7월 정상회담 동안 메드베데프와 오바마는 8개의 협정과 성명서에 서명했다. 모스크바는 「전략무기감축협정의 근본 틀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서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협정의 결론을 더욱 가능성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러시아 대통령은 또한 상호 탄도미사일 위협 평가를 하는 데 동의했으며, 미사일방어 이슈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들은 상호적인 대통령 위원회를 설립했는데, 그것은 모든 영역 -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교육, 문화, 스포츠, 관광 등 - 에서의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상호관계의 발전을 점검하는 기구이다.

미국은 아프간으로 군대와 무기를 수송하도록 러시아의 영공을 개방하는 협정에 서명한 데 대해 만족했다. 협정은 러시아 상공에서

⁴⁴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Advancing Our Interests: Actions in Support of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27 May, 2010),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advancing-our-interests-actions-support-presidents-national-security-strategy>>.

일 년에 4,500회의 비행을 허용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수송비용을 연간 1억 3,300만 달러씩 절약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공급선의 다양화를 이끌었으며, 중간 기착 시간과 연료 사용의 감소를 가능케 하였다.

메드베데프와 오바마는 또한 『핵 협력에 관한 합동 성명』에 서명했으며 세계적 규모의 핵시설의 보안성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데까지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재처리협정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양측은 각각의 무기급 플루토늄마다 34메트릭 톤을 폐기하고자 한다. 미국은 모스크바에 합동 자료 교환센터를 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센터는 핵실험 혹은 다른 미사일 발사 시 오해로 인한 부주의한 실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간에 미사일 발사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의견을 달리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미국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새로운 NSS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관계 건설을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시작했으며, 분리된 아젠다 각각에 가치의 증대를 부여한다.

2009년 9월 17일 미국은 유럽 미사일방어를 위한 새로운 단계별 적용 방식을 선언했다.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주요한 방해 요인들 중의 하나를 제거할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은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조와 전개 시간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반미주의의 강도를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데 기여했는데, 카프카스에서의 전쟁 이후 2008년 말 경에는 반미주의가 대단히 강했었다.

동시에, NATO 사무총장 라스무센(Rasmussen)은 유럽의 미사일방어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러한 미사일방어체제로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실제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가 러시아에 대항해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동의 노력은 중국적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의 전면적인 안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동의 유럽-대서양 안보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⁴⁵이라는 게 그의 견해이다. 라스무센의 권고는 기존 유럽안보체제를 혁신하려는 러시아 측 제안의 서구판(版)이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반 테러리즘, 마약, 해적과 무기통제에 대한 러시아-NATO 대화를 자극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채택했으며, UN 안보리 결의안 1929호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은 이란에 가장 포괄적인 일련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2010년 9월 22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7년에 서명했던 8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이란 간 계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5개의 S-300 배터리 전달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 이란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한 결과 러시아가 입은 손실은 1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⁴⁶ 모스크바가 이란과 오랜 역사적,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특별한 친분을 갖고 있기에 이 같은 행동은 러시아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원래 러시아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관심에 부응하여 더 일찍 이란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⁴⁵- Closing Press Conference by NATO Secretary General Anders Fogh Rasmussen at the informal meeting of NATO Foreign Ministers, Tallinn (23 April, 2010), <http://www.nato.int/cps/en/natolive/opinions_62896.htm>.

⁴⁶- <<http://lenta.ru/news/2010/09/22/s300.htm>>.

모스크바는 워싱턴과 군사적 접촉을 다시 갖는 데 동의했다. 2010년 8월에 러시아와 미국은 북아메리카 항공방위 사령부(NORAD)와 러시아 공군 간의 최초의 합동 반테러 훈련인 ‘버질런트 이글(Vigilant Eagle)’ 작전을 수행했다. 원래 이 훈련은 2008년에 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12월이 되어서야 러시아와 미국 양국이 이 사안에 대해 교감을 갖기에 이르렀다. 2010년 9월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듀코프(Serdyukov)가 미 국방부를 방문하여 (그 이전의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 방문은 2005년에 있었음) 미 국방부 장관 게이츠(Gates)와 함께 러·미관계의 미래 개요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이전의 1993년 문서를 대체했다. 세르듀코프와 게이츠는 또한 방위관계 실무그룹(Defense Relations Working Group)을 창설하는 데 합의했으며 상호 군사훈련과 군사교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 있는 미 육군 하사관 학교에 세 명의 러시아 병사가 파견되었다.⁴⁷ 세르듀코프 장관의 워싱턴 방문은 러시아 미디어로부터 대단한 칭송을 받았다.

러·미관계에서의 변화는 일부 다른 중요한 결과들을 낳았다. 아프가니스탄 영공 통과 협정이 2009년 7월에 조인된 후에 미국은 북부 루트를 통해 아프간에 있는 미군들에게 전달하는 보급품의 양을 확대했다. “35,000명 이상의 미국인과 군인들이 러시아 루트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갔다. 러시아 기업들 또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면서 12,000편의 비행 편을 제공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30%, 아프간 군대와 경찰 및 아프간 마약퇴치군에 지급된 80대 이상의 Mi-17 헬리콥터도 러시아가 제공했

⁴⁷-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Gates, Serdyukov Renew U.S.-Russia Military Ties,” Washington D.C. (15 September, 2010), <<http://www.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6087>>.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다.⁴⁸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전달되는 보급품의 30%가 북부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New START조약은 ‘재조정’의 주요한 업적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의 공화당 정적들과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공화당은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을 그르쳤고, 러시아가 자신의 오래된 핵무기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그를 비난했다. 미 상원에서 새로운 조약의 비준과정은 2010년 11월의 의회선거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마도 러·미 스파이 스캔들이 2010년 6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틀 후에 터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스캔들의 배후에 대해 깃들어 있는 사고는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며 ‘재조정’의 실제적인 결과가 ‘러시아에 대해 원칙적인 개입’ 전략을 고수하는 미국의 전략이 변하지 않았음을 세계에 보여주었다.⁴⁹ 한 달 후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무기통제, 비확산 및 군축 분야에서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비난했다. 일주일 만에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군비 통제 영역에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들”⁵⁰이라는 10페이지의 문서로 미국에 맞섰다. 그 이전에

48-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U.S.-Russia Relations: ‘Reset’ Fact Sheet,” Washington D.C. (24 June, 2010), <<http://www.america.gov/st/texttransenglish/2010/June/20100624173821SBlebahC0.7488476.html>>; Philip H. Gordon, “U.S.-Russian Relation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Remarks at the German Marshall Fund, Washington D.C. (16 June, 2010), <<http://www.state.gov/p/eur/rls/rm/2010/143275.htm>>.

49- *Ibid.*

50- “The Facts of Violation by the United States of its Obligations in the Sphere of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rms Control,”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7 August, 2010), <http://www.mid.ru/brp_4.nsf/0/CC9C7D192FOEBC5AC325777A0057E1AE>.

러시아 MFA는 폴란드 영토에 미국이 SM-3를 배치하려는 폴란드 의 정서(Policy protocol)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정서는 2010년 7월 3일에 조인되었다.

같은 주에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은 그루지야 의 트빌리시(Tbilisi)를 방문하는 동안 아프카지아(Abkhazia)와 남오 세티아에 있는 러시아 군을 ‘침략 및 점령군’으로 묘사했다. 고위 미국 관리들은 지난 일 년 동안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⁵¹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이다. 2010년 8월 1일, 존 메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은 “아마도 미 행정부는 자신들이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느낄 것이지만, 러시아의 행동에 있어서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 사실 더 악화됐다.”⁵² 상황은 그들의 ‘재조정 협상’에 대해 양쪽 모두 망각하는 듯이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근거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2009년 11월 말에 서구 지도자들에게 조약의 초안을 보낸 연후에 곧 유럽안보조약에 관한 메드베 데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공동의 목표가 러시아가 제안했듯이 새로운 조약을 만들기보다는 OSCE와 러시아-NATO 위원회 같은 기존 제도의 맥락에서 추구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결정했다.⁵³ 미국은 탈소비에트 지역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⁵¹- “U.S.-Russia Reset on the Skids,” *Asia Times Online* (10 July, 2010), <http://www.atimes.com/atimes/Central_Asia/LG1010Ag02.html>.

⁵²- Eli Lake, “Russian Actions Don’t Jibe With Reset,” *The Washington Times* (11 August, 2010),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0/aug/11/russian-actions-dont-jibe-with-reset/?page=1>>.

⁵³- “Clinton’s Remarks on the Future of European Security,” Speech at L’Ecole Militaire (29 January, 2010), <http://www.cfr.org/publications/21364/clintons_remarks_Parison_the_fut_ure_of_european_security_january_2010html>.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실행했다. 그루지야는 미국으로부터 10억 달러를 받아들여 러시아와의 5일간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7월 우크라이나에 149억 달러의 대출을 발표했고, 동시에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함께 관계동맹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과 공고한 경제적 기초 위에서 관계를 맺고자 했던 러시아의 계획은 심각한 문제들에 봉착했다. GM(General Motors)은 러시아에 오펠(Opel) 승용차를 팔기를 거부했다. 양국 간 무역은 2004년에 148억 달러에서 2008년에 361억 달러로 상승했다. 러시아의 WTO에 대한 접근 혹은 잭슨-배닉 수정법안(Jackson-Vanick Amendment)의 무효화, 소련의 유대인들에 대한 자유송출을 지원하기 위해 구상되었던 냉전의 잔해를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2010년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서의 연설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미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우리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은 … 우리 관계에서 가장 실패한 분야이다 … 아직까지 경제적 결실이 없다”고 했다.⁵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러시아는 상황을 타개하고 ‘재조정’에 새로운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0년 9월 17일 러시아 국영 기업 로스테크노로기야(Rostekhnologiya)와 미국 기업 보잉(Boeing)은 37억 3천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는데,⁵⁵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는 50대의 보잉-737기를 받을 것이다. 계약에 의해 첫 번째 비행기는 2013년에 선적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보잉에서 에어버스(Airbus)까지 구매하

54. “Russia-U.S. Relations and Russia’s Vision for International Affairs,” (13 April, 2010).

55. <<http://lenta.ru/news/2010/09/17/contract>>.

기를 원한다. 수십억 달러의 구매는 미국의 항공산업에 잠재적으로 4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⁵⁶ 보잉과의 계약 체결 이틀 전에 러시아 국방부장관은 러·미 군사관계를 소생시켰으며, 조약 체결 후 5일 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S-300 미사일 선적을 중단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 모든 일들은 미 상원에서의 New START조약을 비준하는 문제와 2010년 11월 2일 의회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메드베데프와 오바마 모두 성공적인 ‘재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약의 비준은 자신들의 2012년의 재선 노력과 직결된다. 그들은 New START조약의 성공적인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바를 현재 다하고 있다.

4. New START조약: 러·미관계를 뒷받침해줄 것인가?

2010년 4월 New START조약 체결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현재와 미래 관계의 가능한 의미와 양국의 국내 및 외교정책 및 국제안보체제의 본질과 전개에 대해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뜨거운 논쟁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CBM 발사장치, 해상발사 탄도미사일(SLBM), SLBM 발사장치, 운반체, ICBM 탄두, SLBM 탄두, 핵무장 폭격기를 제한하고 감축하는 데 동의했으며, 조약 체결 7년 이내에 다음 사항을 지키기로 했다. (A) ICBM과 SLBM, 운반체 700, (B) ICBM, SLBM과 운반체에 소요

⁵⁶-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U.S.-Russia Relations: ‘Reset’ Fact Sheet,” (24 June, 2010).

되는 핵탄두 1550, (C) ICBM 발사장치, SLBM 발사장치, 전략 운반체 800⁵⁷ 조약은 각국이 “전략공격 무기의 구성과 구조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전략폭격기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하나의 핵탄두는 각각의 운반체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 운반체는 비핵무기를 장착한 전략 운반체와 구별될 수 있다.”

조약이 비준되면 조약은 START-1 수준에서 2/3 가량의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숫자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2002년 모스크바 조약 당시 합의한 전략탄두 제한의 1/3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핵미사일 발사수단의 숫자가 절반으로 감축될 것이다. 새로운 사찰 및 검증 체제가 도입되어 이전 조약에서 규정한 메커니즘을 대체할 것이다. 조약은 10년간 지속되며, 양쪽의 합의에 입각하여 5년을 더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 일자부터 효력을 갖는다.

러시아에서는 라·미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New START를 환영했다. 조약서명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표명했다. “과장 없이 『START-2010』 조약은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 전략 영역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의 변화를 이루어냈으며, 군축과 비확산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척도를 공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이러한 합의가 러시아연방에 있어 군축 분야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트 이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조약은 국제 안보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개념적인 접근에 함묵적적으로 부합된다.”⁵⁸ 라브로프 장관은 『START-2010』이 기록 및 정신에 있어 모두

⁵⁷- Article II of th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Measures for Further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8 April, 2010), <<http://www.whitehouse.gov/blog/2010/04/08/new-start-treaty-and-protocol>>.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약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은 새로운 합의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전개에 대해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러시아 연방이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의 능력 축적이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의 잠재력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고, 러시아 측이 그러한 위협의 정도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면 조약을 끝낼 권리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즉 러시아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러시아의 공격 잠재력을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이 조약을 종식시키게 되면 때는 이미 늦었다는 소견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 조약은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쟁점이 되었다. 양국의 합동 성명서 발표 이후 미 상원의외교관계위원회는 New START를 14:4의 투표로 지지했으며,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은 “비준이 되면, 이 합의는 우리의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다. 세계의 두 지도적인 핵 강대국 사이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⁵⁹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적들 중 일부는 “New START조약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킨다”⁶⁰고 선언했다. 그들의 주요한 주장은, 러시아가 필요에 의해 자신의 전략핵무기를 감축하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은 선택에 의해 무기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사일방어를 위한 미국의

⁵⁸- Sergei Lavrov, “New START Treaty in the Global Security Matrix: The Political Dimension,” (July 2010).

⁵⁹- “Joint Statement by Secretary Gates and Secretary Clinton on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pproval of the New START Treaty,” (16 September, 2010), <http://www.defense.gov/Releases/Release.aspx?Release_ID=13886>.

⁶⁰- Jim DeMint, “The New START Treaty Weakens U.S. National Security,” (16 August, 2010), <<http://politics.usnews.com/opinion/articles/2010/08/16/jim-demint-the-new-start-treaty-weakens-us-national-security.html>>.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계획에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방어 능력을 발전 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 조약은 러시아가 전술핵의 우위를 차지하게 만든다. 재래식 무기 공격에 사용되는 미국의 비핵전략 공격무기는 조약이 설정한 제약에 묶이게 된다. New START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핵무기가 향후 10년간 모든 지역에서 적들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확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오바마의 비전을 수용하지 않았다.⁶¹

독자적인 분석가들은 새 조약이 냉전 스타일의 억제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으며, 발사준비 경계 태세 같은 미국과 러시아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을 바뀌놓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⁶² 한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 같은 사람은 주장하기를, “조약이 배치된 전략핵탄두에 대한 법률적인 한계를 제약하고 있는 반면에, 탄두의 숫자를 실제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조약은 2002년 모스크바 조약에서 허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숫자의 전략 핵탄두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 New START 조약은 검증과 신뢰형성 조약이지 핵감축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비 통제에서 전략폭격기를 본질적으로 배제하고, 탄두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조약이다.”⁶³

⁶¹- 예를 들면 David J. Trachtenberg, “Six Myths about the ‘New START’ Treaty,” <<http://www.defensestudies.org/?p=2093>>; Stephen G. Rademaker, “The Kremlin’s Nuclear Trump Card,” *The Moscow Times* (28 June, 2010), <<http://www.themoscowtimes.com/opinion/article/the-kremlins-nuclear-trump-card/409166.html>>.

⁶²- Bruce Blair, Victor Esin, Matthew McKinzie, Valery Yarynich and Pavel Zolotarev, “Smaller and Safer,”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0), pp. 9~16.

⁶³- Hans M. Kristensen, “New START Treaty has New Counting,” <<http://www.fas.org/blog/ssp/2010/03/newstart.php#more-2826>>.

약간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텐슨의 표현은 진실에 대단히 가깝다. New START조약에 서명한 이유는 군사 전략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게는 정치적이고 전술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었으며, 러시아에게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단기적 및 장기적 목표들을 갖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와 관련한 우선순위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탈소비에트 공간에 있다. 러시아의 우선순위는 워싱턴의 그것과 다르다. 더 이상의 NATO 확장을 막고, 러시아 영토 부근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근의 외국 영토로 확대하는 것이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핵무기의 미래를 다르게 본다.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는 비핵 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다. 핵무기가 안보의 기초를 이룬다. 현재의 경제적, 기술적 및 재래식 무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미국은 자신의 안보에 진정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익의 본질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실제로 New START는 양 측의 중간적인 목적이다. 이 조약을 양자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장전으로 만들려면 러시아와 미국은 전쟁적 안보 이슈들과 양국이 동일하게 급박한 것으로 여기는 새로운 안보적 도전-예를 들면, 글로벌 미사일방어체제를 협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러-미 중범위핵무기 조약(INF)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사이에 연계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임무이다. 특히 양국이 자신들의 핵 태세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도가 확고할 때 그러하다. 2010년 9월 14일,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미군에게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의 개요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차세대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을 포함하여 가까운 미래에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새 프로그램에 필요한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비용은 2,000만 달러를 상회한다.”⁶⁴ 러시아는 ‘불라바(Bulava)’ SLBM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힘들다.

과거 미 행정부의 관료들은 이 목적이 단순하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벨라루스(Belarus), 몰도바(Moldova),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2005~2008년에 담당했던 국무부 부차관이었던 크래머(David J. Kramer)는 2010년 1월 “진실은 현재 러시아의 지도부는 대부분에 있어 미국과 이익 혹은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 양국관계는 양국 지도부의 가치, 이익, 견해상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완전히 나아지리라고 보기 힘들다. 사실, 러시아 지도자들의 행동과 수사는 실제로 양자관계를 재조정시키는 데 대한 그들의 관심에 대해 계속 심각하게 의심하도록 만든다. 4가지 이슈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양국관계를 지배할 것이다.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정책, 미사일방어, 이란과 같은 전략적 도전 및 러시아 내부에서의 사태 전개, 이 모든 이슈 중 어느 것도 상호관계를 위한 강력한 기초를 형성하는 데 밝은 징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⁶⁵

데이비드 크래머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의 내부분제를 러·미관계의 가장 뜨거운 주제로 만들려 한다는 그의 생각을 입증할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누가 양자관계의 현 상태에 책임이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곳, 특히 미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보는 러시아의 편집증적인 지도부는 오바마 행정부에 아주 어려운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북한, 비확산처럼)

⁶⁴- “Gates Unveils Strategy to Cut Costs, Boost Efficiency,”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Washington D.C. (14 September, 2010), <<http://www.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60854>>.

⁶⁵- David J. Kramer, “Resetting U.S. – Russian Relations: It Takes Two,” *The Washington Quarterly* (January 2010), pp. 61 ~ 79.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미국이 양자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러시아의 행태와 정책이 진정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국내외 정책 모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되지 못할 것이다.”⁶⁶

더욱 냉정한 평가는 “New START가 러시아와 체결하는 조약 중에 오랫동안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마지막 군비통제협정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⁶⁷ 만일 이러한 예견을 한 사람들과 유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워싱턴에서 다시 권좌에 복귀한다면, 그것이 비준 과정을 거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지라도 New START는 결코 러·미관계를 지탱해 주지 못할 것이다.

단기적 및 중기적으로 볼 때 New START는 러시아와 미국 양국 모두의 군사 안보 상태에 거의 영향을 미칠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서로 싸울 객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조약의 이행이 양자관계의 일반적인 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다가나 국제 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상호신뢰를 증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재조정’의 주요한 업적은 러·미 상호관계에서의 변화된 환경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협력이다. New START조약은 비확산 체제를 유지

⁶⁶- Kramer, “Resetting U.S. – Russian Relations,” p. 75.
⁶⁷- Stephen G. Rademaker, “The Kremlin’s Nuclear Trump Card,” (28 June, 2010), <<http://www.themoscowtimes.com/opinion/article/the-kremlins-nuclear-trump-card/409166.html>>.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러·미관계의 진전은 중부 및 동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일부 지역안보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재조정’은 러·미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들은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가 2005~2008년에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할 동안 상황을 묘사한 것처럼, “경쟁과 협력의 쉽지 않은 혼합체”로 남아있다.⁶⁸ 그의 말 속에서 ‘재조정’의 전개는 3가지 다른 단계들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구상과 협력’(2008.12~2009.6), ‘협력’(2009.7~2010.4)과 ‘경쟁’(2010.4.8 이후)이 그것이다.

러·미관계는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의 의지보다는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러시아와 ‘선택적 협력’을 취하는 미국의 전략은 변하지 않을 듯 하며, 러시아는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워싱턴은 ‘재조정’ 정책의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협력은 상호 아젠다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처음부터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목적이 달랐다. 러시아의 목적은 출현하는 국제체제의 주요 중심지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적 지도력을 재강조하기 위해 생산적 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오늘날 러·미관계는 잠재력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공통의 아젠다를 규정하는 데 있어 더욱 일관되고 의욕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⁶⁸ William J. Burn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n a New Era: One Year After ‘Reset,’”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14 April, 2010), <<http://www.state.gov/p/us/rm/2010/140179.htm>>.

어떤 경우든지, 그들은 동반자 혹은 적으로든지 서로에게 중요한 상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미국이 현재 권력 불균형 때문에 ‘러시아를 하나의 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러시아가 ‘조작적인 리더십(manipulative leadership)’을 실행하는 글로벌 행위자의 하나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관심사뿐 아니라 세계 공동체의 관심사에 똑같이 가장 잘 부합되는 조건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참고문헌

1. 논문

- Blair, Bruce. *et al.* "Smaller and Safer."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0.
- Burns, William J.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n a New Era: One Year after 'Reset'." Remarks at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pril 2010.
- Cohen, Ariel and Richard Ericson. "Russia's Economic Crisis and U.S.-Russia Relations: Troubled Times Ahead." *Heritage*. November 2009.
- Collins, James F. and Matthew Rojansky. "Why Russia Matters: Ten Reasons Why Washington Must Engage Moscow." *Foreign policy*. 18 August, 2010.
- Friedman, George. "9/11 and the 9-Year War." *Strategic Forecasting*. 8 September, 2010.
- Gordon, Philip H. "U.S.-Russian Relations." Washington D.C.: Statement before the Hous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28 July, 2009.
- Graham, Thomas. "U.S.-Russia Relations: Facing Reality Pragmatically."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uly 2008.
- Kramer, David J. "Resetting U.S.-Russian Relations: It Takes Two." *The Washington Quarterly*. January 2010.
- Kramer, Franklin D. "NATO Initiatives for an Era of Global Competition."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March 2010.

Kristensen, Hans M. “New START Treaty Has New Counting.” *Fas*. March 2010.

Lavrov, Sergei. “New START Treaty in the Global Security Matrix: The Political Dimension.” *Mezhdunarodny Zhizn*. No. 7, July 2010.

Nation, R. Craig. “Results of the ‘Reset’ in U.S.-Russian Relations.” Paris: IFRI Russia/NIS Center. July 2010.

Rumer, Eugene and Stent, Angela. “Repairing U.S.-Russian Relations: A Long Road Ahead.” The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the Center for Eurasian,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in the School of Foreign Service at Georgetown University. April 2009.

2. 기타자료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Gates Unveils Strategy to Cut Costs, Boost Efficiency.” Washington D.C., 14 September, 2010.

_____. “Gates, Serdyukov Renew U.S.-Russia Military Ties.” Washington D.C., 15 September, 2010.

Clinton’s Remarks on the Future of European Security. Speech at L’Ecole Militaire. Paris, 29 January, 2010.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12 July, 2008.

Joint Statement by Secretary Gates and Secretary Clinton on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pproval of the New START Treaty. 16 September, 2010.

Medvedev, D. “Russia-U.S. Relations and Russia’s Vision for International Affairs.” President Medvedev’s Remarks at the Brookings Institute. Washington D.C., 13 April, 2010.

I

II

III

IV

V

VI

VII

VIII

_____. Presidenti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12 November, 2009.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Advancing Our Interests: Actions in Support of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27 May, 2010.

Putin, Vladimir. “Vystuplenie i diskussya na Myunkhenskoy konferentsii po voprosam politiki bezopasnosti.” Speech at the Munich Conference on Security Policy. 10 February, 2007.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cts of Violation by the United States of its Obligations in the Sphere of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rms Control.” Moscow, 7 August, 2010.

“The Strategic Balance in Northeast Asia.”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Seoul, December 2009.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U.S.-Russia Relations: ‘Reset’ Fact Sheet.” Washington D.C., 24 June, 2010.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May 2010.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Measures for Further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8 April, 2010.

Asia Times Online.

The Moscow Times.

The Washington Times.

US News.

<<http://eng.kremlin.ru>>.
<<http://lenta.ru>>.
<<http://news.yahoo.com>>.
<<http://politics.usnews.com>>.
<<http://www.acus.org>>.
<<http://www.america.gov>>.
<<http://www.atimes.com>>.
<<http://www.brookings.edu>>.
<<http://www.cfr.org>>.
<<http://www.csis.org>>.
<<http://www.defense.gov/news>>.
<<http://www.defensestudies.org>>.
<<http://www.fas.org>>.
<<http://www.foreignpolicy.com>>.
<<http://www.heritage.org>>.
<<http://www.in.mid.ru>>.
<<http://www.mid.ru>>.
<<http://www.nato.int>>.
<<http://www.nixoncenter.org>>.
<<http://www.pearltrees.com>>.
<<http://www.scrf.gov.ru>>.
<<http://www.state.gov>>.
<<http://www.stratfor.com>>.
<<http://www.themoscowtimes.com>>.
<<http://www.whitehouse.gov>>.

I

II

III

IV

V

VI

VII

VIII

Ⅲ.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안보전략과 북핵문제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러시아 안보전략 문제는 일반적으로 동북아(NEA, Northeast Asia) 지역에서 나타나듯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하나의 단일한 외교정책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현실정치에서 안보·외교는 몇 가지 수준에서 작동·이행되고 있다.

첫 번째, 최고위수준은 대통령과 총리 레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교부가 전통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으며, 오늘날 비자면제 체제를 만들려는 문제를 포함하여 러시아-EU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다. ② 국방부는 무기 수출을, 더욱 최근에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모든 주요 강대국들과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한 세계적 규모의 군사협력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③ 안보기구들은 테러 및 마약거래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있다. ④ 경제무역부는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외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세계금융시장을 재편하면서 재정부의 역할은 증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금융 변화 속에서 발언권을 가진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 기업 수준에서는 더욱 더 많은 러시아의 거대 기업들이 세계 및 지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동북아에서 활동하는 로즈네프트(Rosneft)를 들 수 있다.

네 번째, 전문가 수준에서는 러시아의 전문가 공동체가 세계와 지역 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러시아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표시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수준에서 각 수준별 외교 간의 충분한 조정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다차원적인 외교는 러시아가 세계 및 지역 협력에 더욱 개방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추세이다.

러시아의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고위수준의 외교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1. 개념적 배경

처음부터 푸틴에서 메드베데프에 이르는 러시아에서의 권력이양의 개념적인 철학은 정책의 지속성(continuity of policy)이었다.

동북아와 관련하여 이것은 메드베데프가 푸틴의 코스를 느리게 답습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보다 확실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메드베데프는 러시아-동북아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2010년 중반에 이 같은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러시아의 안보전략을 설정하는 데 정치인들과 전문가 공동체가 협력하도록 요청했다.

우선, 2012년 다가올 선거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내 및 안보정책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라미관계, 2007~2008년에 시작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경제발전과 새로운 가스 프로그램과 러시아-EU 관계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의제 등을 준비하는 것이 대통령이 챙겨야 할 사례들이다.

둘째, 동북아에서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새로운 임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기는 세계의 핵심으로 중국을 부상시키면서,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도 동북아 지역이 위기의 부정적 결과를 더욱 빠르게 극복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객관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의 에너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자신의 정책을 조절하고, 동북아의 경제적 통합의 잠재력이 인구가 부족하고 저발전되어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2012년 APEC 정상회의는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

는데, 이를 통해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지역발전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고를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선거전의 한 연설에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다방면적인(multi-vector)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과 마찬가지로 서구와 동북아를 포함한다.⁶⁹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메드베데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러시아가 자신의 발전전략 속에 동북아 요소를 아주 일부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영역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들이 동북아 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경제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변화들은 러시아 정부가 아직 러시아 경제의 전략적 목표 속에 동북아를 포함시키도록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유럽과 동북아통합시대 간에 하나의 가교로서의 자신의 지경학(geo-economic)적인 입장을 인식하고 못 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전략은 아직 국가 경계의 좁은 틀 내에서가 아니라, 초국가적이고, ‘자연적인’ 지경학적 맥락에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에서의 저발전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적인 경제적 사고(spatial economic thinking)’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EU와 동북아가 함께 하는 수평적 통합의 상호작용을 꾀하는 러시아 경제의 재구조화, 공간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양 방향(two-vector)’의 발전 모델도 결여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반응과 무관하게, 동북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발전은 객관적으로 러시아 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으로 하여금 동북아로부터의 도전

⁶⁹- *Vremya Novosti* (22 January, 2008).

과 기회에 적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러시아에 모험적인 방식으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이다.

러시아의 2012년 대선은 동북아에서 더욱 적극적인 러시아 안보전략을 만들어내도록 작용할 것이다. 자신의 임기 초에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전략적 독트린에 대해 처음 언급했었다. 2008년 6월, 독일을 방문하면서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안보적 사고의 원칙을 선언했다. 서구가 러시아를 ‘동등한 동반자’로 대해야 한다는 푸틴의 요구를 반복하면서, 메드베데프는 무엇이 이와 같은 동등함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다. 이전부터 지녔던 러시아의 세계 에너지 강대국화에 근거한 동등성의 인식에 덧붙여, 메드베데프는 ‘단일한 유럽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유럽 문명의 동등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인권,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등이 이러한 단일 유럽의 가치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언급했다.⁷⁰

현재까지 이러한 새로운 ‘가치’가 현실정치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해왔을지라도, 러시아가 세계의 자유시장민주주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찾으려 할 것이다. 러·미관계의 재조정(reset)은 이러한 현상의 제일 적합한 사례이다.

메드베데프는 2010년 7월 러시아 안보 및 외교 독트린을 두 번째로 재천명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현실정치는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선언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가스 및 석유 올리가르키(Oligarchy)들, 거대 금융 재벌과 무기 수출상들의 국제적 관심사를 옹호하는 데 주 목적을 두었다. 2010년 7월에, 메드베데프는 ‘혁신 외교(Innovation Diplomacy)’를

⁷⁰- *Vremya Novostei* (22 January, 2008).

선언하면서, 글로벌 혁신 지도자들과의 기술동맹의 설립을 강조했다. 이 같은 혁신 전략이 외교와 방위에 관한 전통적인 외교와 조응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동북아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2010년 9월 초,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의 혁신 외교가 작동 중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는 2009년 9월 말에 있었던 메드베데프의 중국 방문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메드베데프가 언급한 스콜코보(Skolkovo)시 개조 프로젝트에 참여 하고자 하는 큰 기대를 표명했다.

그러므로 혁신 외교가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러시아와 동북아의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기초를 만들 것이다.

2. 동북아시아: 경향과 문제들

동북아에서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주요 요소는 중국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영향력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중국요소’에 대한 자신들의 전통적 관점을 바꾸도록 만들었고, 새로운 세계 및 지역적 역할 설정에 적응하도록 강요했다. 지역 행위자들이 인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과정에 통합되는 것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것은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변동이 갖는 어렵고도 모순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는 경쟁적인 국가 지도력과 더불어 경쟁의 이점이 이데올로기와 다차원적인 협력의 실행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경제와 정책의 역동성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일본과 한국은 그 뒤에 처져 있다. 오늘날 중국은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큰 투자자로 변모하고 있다.

한 지역 내에서 동북아의 지위 그 자체는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는 일치되어 있지 못한 데에 있다. 동북아의 세 국가, 일본, 중국과 한국은 전체 동아시아지역(아세안국가들 포함)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군사적 및 정치적 관점에서 하나의 단일체로서의 동아시아는 서로 다른 몇 개의 동맹들로 구분된다. 미국은 일본 및 한국과 특별한 군사·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또 다른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른 나라들 또한 지역 내에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회원국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군사·정치적 동맹의 일원이다. 몽골은 SCO에서 옵서버이다. 200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GDP의 1%를, 중국은 2.5%의 국방비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경제 지출의 70~80%가 방위에 사용된다. 일본은 국방비 지출 총액에서 지역 내 최고인데, 중국보다 10~15%가 현재 앞서 있다.⁷¹

다가올 10년을 전망할 때,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 안정화의 경향이 불안정화의 경향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경제, 에너지 부문과 테러리즘 및 비대칭적 위협(자연 재난, 조류 독감 등)에 맞서는 노력에 대한 관심의 특별한 상호작용에 입각해, 지역 내 주요 국가들 간의 오래된 경쟁관계가 직접적인 군사·정치적 갈등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관계의 악화 가능성보다 이들 상대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커질

⁷¹- Vasily Mikheev, "China-Japan: Competition for Leadership," *MEMO RAS* (2007), pp 10~11.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듯하다.

동아시아는 일본, 중국,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적 자산을 함께 공유할 필요성을 증대시키면서 발전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경제의 자유화와 시장화가 지역 통합적인 공생 발전의 전제조건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화해를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장애가 존재하는데, 군사-정치적 세력 간의 불균형과 미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적으로 ‘우호적인’(중국 시장경제 개혁 때문에), 시장친화적인 ‘동반자 겸 경쟁자’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고립된’ 행위자(중국 공산당의 권력 독점 지속 때문에)로 중국을 인식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에 주요한 위협과 도전은 다음과 같다.

- 북한 핵문제
- 일본, 러시아, 한국, 중국과 남중국 해에서 몇몇 아세안 국가들이 개입된 영토 분쟁
- 중국-일본과 한국-일본 간 역사문제에 대한 불화
- 타이완 이슈
- 동북아의 에너지 안보
- 테러리즘, 해적, 생태학적 및 자연 재해, 전염병 등

불안정성의 요소들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상황에는 안정화의 요소들도 있다.

- 중국에서 개최되는 북핵 6자회담
- 에너지 이슈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역 협력을 위한 접근법 모색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새로운 비대칭적 위협에 맞선 협력

동아시아에서 출현하고 있는 다자주의적인 경제협력체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 3 (ASEAN Plus Three[Japan, China and South Korea]), 아세안 + 차이나 (ASEAN Plus China), 아세안 + 일본(ASEAN Plus Japan), 아세안 + 한국(ASEAN Plus South Korea),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2005년 말에 결성된 동아시아공동체(EAC, East Asian Community)는 'ASEAN + 3'의 구성원들(호주, 뉴질랜드, 인도)을 포함하고 있고, 러시아가 첫 정상회담에서 옵서버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은 지역의 '균형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증대하는 경제력, 세계시장에서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중국 자본의 해외로의 적극적인 진출에 기초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2005년에 시작되어 2008~2010년의 세계 금융위기 기간 동안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동북아에 대한 안보정책은 미래 이 지역에서의 주요한 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첫째, 다가올 10년 동안 동북아는 EU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통합 모델을 계속해서 설정할 것이다. 동북아 모델은 전통적인 경제와 지식경제의 더 개방적인 부문에 통합을 하거나 1997~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관세 장벽의 축소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지

역이 2011~2020년에 APEC, ASEAN, ASEAN + 3의 틀 내에서 단계적인 관세 자유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할 지라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음 10년의 끝이 되면 동북아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통화를 창설하는 데 가까이 접근해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와 금융위기의 발생 시 스와프(swap)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 중앙은행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것이며, 그것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틀 내에서 -통화바스켓, 즉 동아시아 통화의 비중 있는 지표인- 아시아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를 적용하는 영역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현재 미국-일본과 미국-한국의 군사·안보 조약에 근거한 동북아에서의 군사·정치 구조의 해체에 중점이 놓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어떠한 '대항적 균형구조'의 창설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새로운 다자적인 지역안보 구조의 형성이 처음으로 성사될 것이며, 아마도 북핵 6자회담으로부터 그 기원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난립하는 새롭고 비전형적인 안보 위협들 가운데 상호작용이 추구될 것이다. 해결하지 못한 영토 분쟁들과 역사문제는 러시아의 동북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 오늘날보다는 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것들은 분쟁 영토에 대한 공동 개발과 지역통합과 같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국가 안보전략에서 새롭고 비전형적인 안보 위협의 증대되는 역할은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을 점차 조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 것이다.

둘째, 중·미관계는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 자본의 더 큰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관심사의 증대에 의해 특징 지워질 것이다. 미국은 중국 군사력의 투명하지 못한 성장과 ‘과대평가된’ 중국의 통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은 ‘중국위협론’의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가 제기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상호의심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 둘 각각은 자신의 집단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새로운 위협들, 지역의 빈곤문제, 자연 재난 등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차지할 더 큰 역할은 중·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더 커다란 상호작용의 정도와 현재보다 덜 적대적인 감정을 통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일관계가 유사한 시나리오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특유성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그들의 역사에 대한 다른 해석에 입각하여 서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감정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서구에서 교육받은 ‘제5세대 중국 지도부’의 권력 장악(2012)과 상당 부분 전후 세대로부터 정치인 층원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는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의 재활력은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가운데 상호작용하게 되는 2020년대의 초기가 되면 역사적 적대감의 분위기는 상당히 누그러지게 될 것이다. 협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국-일본-중국의 3각 구조가 지역안보와 발전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만일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에 대한 협상이 진척이 없으면, WTO 체제가 ASEAN과 ASEAN + 3형태를 포함하는 경제적 지역주의를 자극할 것이다.

넷째, 중국은 자신의 시장개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 지식과 정치적

공간에 통합되면서 서구에 점차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다음 요소들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 중국과 국제비즈니스 업계의 이익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
- 구소련(장쩌민 세대) 혹은 중국(후진타오 세대)보다 서구에서 교육 받은 정치인들이 대부분인 중국 정치 엘리트의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
- 공산당 내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중국사회의 민주화, 법치의 확대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안정화 전략(조화사회)’
-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새롭고 비전통적인 위협에 맞선 국제 공동체와의 협력

중국은 9~10%의 고도경제성장을 계속 기록할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적 요구의 증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7억 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중간계급이 급속히 성장한 데 힘입어 2005년부터 시작된 GDP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로 폄하시켰으며, 중국 경제가 수출 지향적인 생산에 기반하여 발전했을 때인 과거에는 맞는 표현이었다. 이제 중국은 일관되게 증가하는 수요가 빚어내는 일종의 ‘소용돌이’로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같은 전망보다는 심각한 위기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위협과 책임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와 외부 경제요소들은 외부의 정치적 요소들보다는 깊은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사회적, 금융 및 에너지 부문은 가장

취약한 영역들이다. 다른 취약한 분야들에는 대만문제(중기적으로)와 환경적 관심사들(장기적으로)이 포함된다.

다음 10년 동안에, 중국의 공산당은 권력 독점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내·외부적인 요소들이 중국 공산당이 정치 개혁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맞서 경쟁하는 서구는 중국이 정치적 독점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질책할 것이다. 내부적 요소들에 포함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사가 고려되기를 원하는 중국의 부르주아 계급만큼 중간계급도 성장한다는 사실과 젊은이들 가운데 중국의 권위가 실추하는 것, 영향력을 지닌 다른 집단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조화하는, 현재의 중국보다 더 광범위한 계층구조를 요구하는 과두지배계급(올리가르키)과 정당 지도부 간의 융합, 현재 지방에서 소규모로 나타나는 반정부시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다는 위협을 주는 사회적 계층화의 심화이다.

대만을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제로 통합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 정치적 갈등이 때로 유발될지라도, 베이징과 타이페이 간의 관계는 현상 유지를 할 것이다.

동시에, 몇 가지 요소들이 국제적 긴장을 증대시킬 것이다. 중국의 방위비 지출증가는 -세계적인 강대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시각과 더불어- 일본과 미·일 군사동맹이 취하는 반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증가할 것이다. 군비경쟁에서 이 같은 새로운 국면이 갖는 '지위 추구적' 성격이 군사적 갈등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의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여섯째, 한국문제가 미해결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며, 미사일실험,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 핵실험 예정에 관한 루머 등과 같은 북한이 일으

킬 수 있는 도발로 인해 때로 완만하게 진행되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없다. 기술적으로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며, 현 정치체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핵공갈 전술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유고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한 내의 급변사태를 초래할 듯하다.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미래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할 때,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은 감소하는 경향을 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가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의 주요한 제공자가 될 때, 중국,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 자산과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질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동남아에서 미국,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에너지에 덧붙여 동북아는 러시아에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수송공간으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전 지역에서의 수송 인프라구조를 발전시키려는 러시아의 정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 지식 기반 경제 속에서 하나의 동반자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선택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그것은 연구와 기술 영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에 달려있다. 그것은 또한 러시아의 과학을 부흥시키는 러시아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경부터 신세기의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두뇌유출’과 개념적 상실이 심각했었다.

- 하나의 가능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증가하는 부유층 인구에 대한 관심이 가설적으로 남아있으며, 그것은 러시아가 세계적인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 자신을 규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다가올 10년 동안에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담당할 주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이 세계 및 지역 경제에 통합되면서, 러시아는 서구-가장 중요하게는 중국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요소는 러시아의 경쟁적인 이점을 제한할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다.
- 러시아는 하나의 단일체로서의 동아시아의 지경학적 공간으로 남아 있는 동북아시아-일본,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는-에서의 통합과정 외부에 존재하는 상태를 끝내게 될 것이다.
- 러시아는 중·미 및 중·일 관계 사이의 차이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할 것이며, 전략적 전망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전술적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의 다자주의적인 안보 메커니즘과 협력에 관한 틀을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위험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의 인구적 혹은 경제적 ‘침략’이라는 견지에서 동아시아로부터의 주요한 위협을 잘못 해석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동북아의 발전에 있어

서의 주요 경향이 그러한 위협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통합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비참여로 인한 혜택을 상실하는 위협을 결과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가질 수 있는 주요한 기회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기초한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창설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에서의 다른 나라들의 노력들이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이익을 러시아가 활용하게 될 것이다.
- 러시아는 전체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엔진으로서 유럽 공동체, 미국 및 동북아와의 수평적인 상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통합 모델을 발전시킬 것이다.
-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및 정치적 조직(ARF, APEC, EAC)에 계속 참여하고, 자신의 행위와 발언권을 증대할 것이다.

객관적 시각에서, 러시아는 국가의 시장지향적이고 민주주의로의 전환 및 미국, 일본 및 중국과 협력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의 대규모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야만 한다. 동시에 이 모든 나라들의 이익이 일치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를 설득하려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동북아의 이슈들에 대해 미국, 일본 및 중국과 영구적인 전략적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를 배제하는 미·중·일 지역동반자관계에 입각한 3각체제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동

북아 요소와 내부적인 목표 및 발전 기제를 결합시키는 ‘대아시아전략’을 수행하는 임무이다.

3. 북핵문제

러시아의 핵문제 전문가들은 (러시아, 미국,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장치(nuclear devices)를 구분하고 있다.

믿을 만한 러시아의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술력 부족으로 핵무기를 결코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들이 가장 언고자 하는 것은 한정된 능력을 지닌 핵장치이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2006년에 북한이 만든 것은 무기가 아닌 핵장치의 대단히 성공적이지 못한 실험이었다고 본다.

2008년 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그것이 거대한 핵장치의 실험이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능력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한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을 포함하는 소수의 ‘의견을 달리하는 그룹’은 소위 2009년의 핵실험은 핵무기가 아니라, 단지 커다란 속임수였고, 거대한 일반적 폭발이었다고 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을 달리하는 그룹’에 속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이 억제가 아닌 핵담화의 부침을 통해 더욱 많은 국제원조를 받아 내려는 목적으로 핵을 흥정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2010년에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홍수, 미국과 한국의 경제 원조 중단)에 맞서서 북한은 국내 선전 목적을 위해 핵 이슈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굶주리는 일반 주민들은 말한다. “경제 상황은 나쁘고, 1990년대 중반보다 악화되었지만 우리는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가졌고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에게 감사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체제의 평화와 변화를 유도하고, 시장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0년 9월 28일에 열린 당대표자회의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회의의 주요 목적들을 거론할 수 있다.

-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의 지위를 강화하는 과정의 시작
-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와 남편 장성택이 주도하는 집단을 포함한 각기 다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 젊은 시절의 김일성과 아주 유사해 보이는 김정은(김정일이 좋아 하는 아들)을 위한 미래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나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김정일이 세계와 북한 내에 그가 은퇴하거나 그의 권력을 공유할 계획이 없으며, 국내 및 외교정책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과시한 것이다. 이것은 공갈전략과 핵 벼랑끝 전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만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얻는다면, 서울과 워싱턴의 행정부가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러시아는 애매한 태도를 취할지라도 북한은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할지라도 6자회담 과정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변화의 시기를 기다리며 침체와 활성화의 궤도를 반복적으로 돌 것이다.

‘러시아가 북핵 이슈에 있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모스크바는 공식적으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쟁도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나갈 길이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아직 북핵 위기의 진정한 뿌리가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렇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게 하는 것이 6자회담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위해 유일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러시아가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핵 위기의 시작에 대한 주요 근거는 북한체제의 안보 논리이다. 고도로 군사화되고 정체된 북한경제는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 덕택에 수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원조가 중단되었고 중국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중국의 평양에 대한 원조가 감소했다. 북한은 대안으로 미국, 한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로부터 외부 원조의 새로운 출처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평양의 시각에서 서구의 원조에 의존하는 것은 체제 변화의 위험 부담을 의미한다. 평양의 지도자들은 구소련에서의 ‘충격요법’과 중국의 점진적 개혁이 어떻게 두 국가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었는지 목격했다. 평양은 서구가 원조의 대가로 경제 및 정치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평양은 더욱 복잡한 게임을 하기로 결심했다. 원조에 대한 교환으로 시장 개혁과 개방이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흥정의 카드로 핵공갈을 사용하기로 했다.

2006년 10월의 북한의 핵실험은 북핵위기의 전개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평양은 핵실험을 통해 6자회담에서의 협상 지위를 강화했다. 이전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 혹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해제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실험 이후 북한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워싱턴은 더욱 유연해지고 더욱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핵사찰 이슈를 둘러싼 모든 기만적인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래에 더욱 큰 양보를 그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북한이 여길 만한 신호로 보였다.

2007년 2월 13일에 합의한 조치들은 북한의 핵군축의 주요 요소들, 즉,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시설들 모두를 해체하기 위한 견고한 계획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들은 IAEA와 NPT 체제로 북한이 복귀할 날짜를 못 박는 데 실패했다.

오늘날 자신의 강화된 협상 지위를 느끼고 있는 북한은 사실상 자신의 핵무기프로그램을 해체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경제, 금융 및 에너지의 혜택을 주로 얻기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이용할 것이며, 부차적으로 전체주의 체제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으로 시간을 벌고자 한다.

북한 외교는 ‘정권교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얻는 이익들’이라는 이슈로 주요 문제의 초점을 바꿔놓는 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다음 6자회담에 참가하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그 자체로 협상의 이슈가 돼 버렸다.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의 프리즘을 통해 국제 공동체는 매우 위협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핵무기프로그램의 일시적 유예를 교환 조건으로 해서 죄를 지은 국가가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경제적 특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평화적 성격의 정권교체가 한반도에서의 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이후 시대에 북한에서의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평화적인 변화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요한 전제조건 및 토대이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선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의 유일한 형태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체제의 전면적인 해체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토대를 두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조차 북한에 대한 막대한 원조를 요구하고 있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며, 한국 사회의 대단히 뿌리 깊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들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것은 북한을 흡수하는 부담을 공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분간 최상의 방책은 평양과 서울 간의 외교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이 공존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쪽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북한은 남쪽의 도움과 더불어 시장경제하에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화된 경제구조는 농촌 부문이 본원적 축적의 원천으로 기능했던 중국의 개혁 이전의 경제와는 별로 닮지 않았던 구소련의 군사화된 경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북한은 가스와 석유 자원이 없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해외 원조를 통해 북한 경제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게는 북한으로의 원조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기구를 위시하여, 러시아를 포함한 지역의 5개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평화체제가 한반도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1953년 맺어진 휴전협정을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평양과 워싱턴과 동경과 서울 간의 완전한 외교적 관계의 성립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의 진정한 기초와 미래시장과 민주적 개혁에 대한 지원을 생성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북핵 위기가 역설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지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2007년 2월 6차회담은 아주 새로운 협상형식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동등한 5개의 실무그룹을

만들자는 중국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다.

- 비핵화문제
- 북한-미국 외교관계
- 북한-일본 외교관계
-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

다섯 번째 그룹이 동북아 안보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창설되었다. 러시아는 다섯 번째 그룹의 의장국이다. 메드베데프가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지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의 긍정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6자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다섯 번째 그룹의 창설이 북핵 이슈뿐 아니라 지역안보의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6자회담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 이슈는 북핵문제보다 더 광범위하다. 북핵문제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동북아 안보 아젠다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이 다섯 번째 그룹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러시아는 북한 없이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계속 주재할 것이다. 그 이후에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 북한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의 제안은 남과 북 사이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데 대한 어떠한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북 간의 상호 외교

적 인식 없이는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없다. 양국은 UN의 정회원 국가이며, 외교관계는 UN 회원국들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상적인 방식이다.

덧붙여, 중국의 제안은 북한 경제의 개방과 시장 개혁을 위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는 데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원조국을 찾으려 만들고 있으며, 그 같은 원조를 얻는 최상의 방식은 핵공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다섯 번째 그룹을 통해서 동북아에서의 영구적인 안보 메커니즘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새로운 희망이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 안보 인프라구조를 창설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협력에 대한 다섯 번째 그룹의 의장으로서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다.

남북한과 러시아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관련한 러시아의 전략적 사고는 묘한 일치성을 나타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은 러시아의 일반적인 정치적 논리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다. 구소련 시기와 현 시기 모두, 북한은 미국, 유럽 및 중앙아시아에 초점을 두는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및 안보적 관심사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과거와 현재 모두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을 동북아에서의 지역 지도국들 -미국, 중국과 일본- 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을 평가한다.

4. 결론

두 가지 주요한 시나리오가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안보 정책 속에 나타난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자신의 동북아 정책을 동북아에서의 다음과 같은 급속한 변화를 다루도록 조정할 것이다.

- 중국의 증대하는 지역적 영향력
- 중국-일본과 중국-미국 간의 협력·경쟁관계
- 동북아에서의 통합의 경향
- 한국 상황의 전개

이것은 ‘반응외교(response diplomacy)’로 부를 수 있다. 즉 러시아가 다른 행위자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적극적 외교(active diplomacy)’라고 부르는- 러시아인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게임을 주재하려고 노력한다. 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의 몇 년이 지난 후에 러시아는 이 게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경제적 및 혁신적 자원을 지닐 것이다.

메드베데프의 혁신외교는 러시아-동북아 협력의 전망에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러시아와 한국, 일본, 중국과 미국과의 기술적인 연합은 북한 체제 내에서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곧 목격할 수 있는가와 상관없이, 동북아의 다자주의적 협상을 위한 새롭고 근대적인 아젠다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Mikheev, Vasily. "China-Japan: Competition for Leadership." *MEMO RAS*, 2007.

2. 기타자료

Vremya Novostei.

IV.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모색:

안보협력에서의 문제와 시사점들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1. 관계의 부재에서 전략적 협력으로?

러시아와 한국은 거의 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다가 1990년에 공식관계를 맺었다. 수교 전에도 1983년 이후 출현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여명과 더불어 경제적 접촉이 시작되었다.⁷² 그동안 양국은 너무 접촉이 없었고, 너무 늦게 수교를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 논쟁을 해왔다. 수십 년의 군사독재 이후에 한국의 정치적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었고 경제적 여건의 측면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모두 소련이 한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⁷³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그러한 사태의 전개에 대해 단호했다. 압력을 받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적절한 때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지 못했다.

만일 모스크바가 1980년대 중반에 한국을 승인했다라면(혹은 늦어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쯤),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예측 가능한 소련-한국 관계가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당시에 누구도 한국 측이 그와 같은 화해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소련의 붕괴 이전 새로운 지정학적 연계가 발전할 수도 있었으며, 한국뿐 아니라 지역 전체와도 러시아가 관계를 맺어 미래 비전을 가질 수도 있었다.

동시에 소련공산당과 정부 당국은 한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반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모스크바의 ‘변화하는 동반자’ 관계를 자동

⁷² 실제로 남북한이 대화를 시작한 직후인 1973년 이후 소련과 한국과의 비공식적 접촉이 있었다. Vadim Tkachenko, *Korean Peninsula and Russia's Interests* (Moscow: Vostochnaya Literatura, 2000), p. 57.

⁷³ Valery Denisov, “A Partnership of Mutual Trust with Seoul?” *International Life*, No. 3~4 (2005), <<http://dlib.eastview.com/browse/doc/7689194>>.

적으로 이끌고 평양에 대항하는 데 목적을 둔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측에 설명할 만한 시간과 수단을 가질 수도 있었다. 모스크바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은 평양으로부터의 더욱 문명화된 행태를 확보하는 수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으며, 아마도 북한의 핵 야심을 억누를 수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당시에 아직 존재하던 양극적 세계 정치 구조 속에서, 한국이 북한에 과거에 공격적으로 했던 것처럼 모스크바와의 관계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한국-중국 관계정상화의 경우에서처럼) ‘북한 요소’는 1990년대에 서울-모스크바 관계에 있어 그렇게 강한 자극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소련은 한국을 인정하는 데 있어 조건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는데, 이를 테면, 장기적으로 간직해 온 ‘상호교차인정’을 실행하는 정도까지, 미국의 일각에 대해 북한에 더욱 건설적으로 접근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더욱 견고한 안보 체제가 한반도에 출현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산업계 지도자들은 소련의 힘 있는 국가 기업과 그들의 관료 카운터파트들과의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이전에는 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에서 다소간 안정적인 게임의 규칙 하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러시아 경제의 사유화와 시장화 단계에서 미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위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소련의 정부기관과 공식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한국 정부는 기업에게 금융과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주관적인 가정을 하지 않는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를 위해 양자관계의 첫 20년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한-러 양자관계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시작되어 때로는 불균등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한국에서 사업 파트너로서의 러시아의 명성은 처음에 대단히 낮았으며, 한국 기업인들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기피했다. 적어도 1980년대에 제기되었어야 할 상호 호혜성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10년을 상실한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더욱 논쟁적이다. 관계정상화 이후 1년을 거치면서, 한국 외교는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를 이간시키는 데 집중했으며,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소외시키는 데 러시아의 지원을 얻으려 했다. 일부 전문가들조차 러시아와 한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초기 사고가 -한국 측이 21세기 첫 10년의 중반에 제시했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인들이 “러시아의 남과 북에 대한 균형정책”⁷⁴이라고 부른 것을 중식시키려는 시도였다. 러시아는 그 사이에 자신의 대 한국정책의 원칙과 목적이 한국의 영향력 있는 집단을 자극했던, 일방적인 접근을 배제하려는 것임을 한국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양측은 초기에 과도하게 기대를 가졌으며 결과는 상호좌절이었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한국과의 경험에서 더 큰 혜택을 원했으며 북한과의 관계악화로부터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지위에 손상을 입을 정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모스크바를 상대하는 한국의 노력의 결과였다.⁷⁵ 한국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에서 더욱 지지를 얻기를 기대했으며, 아마도 자신의 의도대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대한 지지까지도 원했던 듯하다. 초기 한국의 러시아 시장과

74- Valery Denisov, “A Partnership of Mutual Trust with Seoul?” p. 69.
75- Karen Brutenz, *On Russia’s Foreign Policy Concept in Asia and the Pacific* (Moscow, 1995), p. 62.

공급에 대한 기대는 성공하지 못했다.

더욱이 상당한 경제적 프로젝트들의 실패 -러시아 쪽에는 책임이 없는- 와 더불어 지식의 결여와 냉전으로 회귀하는 오래된 상투적 수법은 상호 확신의 전개를 저해했다. 1990년대의 정치적·경제적 소용돌이, 마피아의 확산, 러시아 소상인(하층 계급에서 대부분 나타남)의 분출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위협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긍정적 측면에서, 상호 정치적 관계와 협의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진행을 방해할 만한 주요한 정치적 문제들이 없었다. 러시아는 한국 주변의 가장 주요한 4대 강대국들 중 하나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왔다. 내부적인 논의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들만큼 정치지도자들도 러시아를 장기적으로 비적대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이웃의 중요한 국가로 보고 있다.

양국 간의 동반자관계를 위한 경제적 기초는 지난 20년 동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경제적 이슈들은 관계의 전략적 성격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법률적인 틀을 갖추고 있음을 자랑한다.⁷⁶ 2005년 11월에 무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양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에서 조인되었다.⁷⁷ 한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러시아의 경제적 동반자가 되었다.⁷⁸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습은 2008년 9월 정상회담에서 합치되었으며,

⁷⁶- 이것은 무역, 투자보장, 이중과세협정, 군산협력과 핵협력에 대한 합의, 해양자원의 불법 이용 예방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한다.

⁷⁷- <<http://www.russian-embassy.org/Press/Plan.htm>>.

⁷⁸-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몫은 2.5%, 수입은 3.9%로 증가했다. 2009년 한국의 전체 투자는 15억 달러에 달했으며, 직접 투자가 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http://www.russiainvest.ru/rus/countries/korea.shtml>>.

5가지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2010년 9월 야로슬라블(Yaroslav)에서 이 명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자동차 산업, 에너지 부문, 우주산업, 인프라구조가 상호협력의 거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몇 가지 주요 분야들을 강조했다.⁷⁹ 이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의 잠재력이 거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거대한 나라가 최선의 기술과 풍부한 천연 자원의 기초 위에서 번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전의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⁸⁰

두 국가는 서로에 대해 일반적으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웃 국가들에 대한 경우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러시아 인들은 1980년대 말의 한국인들에게 “시장경제, 역동적인 경제 성장,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 같은 소비에트 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의 상징”으로 비춰졌다.⁸¹ 한국은 현재 러시아에서 역동적이고,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한국인들을 근대와 고대의 전통을 결합시키면서, 지식과 문화, 교육에 대해 대단히 존중하는 근면하고 준법적인 사람들로 보고 있다.⁸² 한국 회사들은 이제 러시아 시장이 있는 어디에나 있으며,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은 KOTRA가 매긴 국가 등급에서 5점 만점에 4.06을 받았다.⁸³ 러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선호한다. 일부 사

79- <<http://www.istockanalyst.com/article/viewiStockNews/articleid/4490224>>.

80- <<http://www.korea.net/news.do?mode=detail&guid=49785>>.

81- Andrei Lankov, <<http://www.forumsostav.ru/1/14015>>.

82- 러시아 여론 조사(공공여론재단, 2001)는 러시아인구의 58%가 한국이 친근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묘사는 ‘부상하는 작은 용’, ‘두드러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을 근면한 사람의 이미지로 보고 ‘낭비가 없는 사람-얻는 모든 것을 활용하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Seoul Herald*(in Russian), No. 54, pp. 1~28 (February 2001), p. 3.

83- Hak Jun Kim at the 11th Russia-Korea Forum, St. Petersburg (May 2010).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람들만이 통일 한국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예를 들어 옛 발해의 영역에 대해 한국이 영토적 요구를 할 것이다.⁸⁴ 한국은 러시아인들이 여행가고 싶은 나라 중에서 제23위이며, 이는 일본과 미국보다 앞선다.⁸⁵

반면에 한국인들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은 모호한 상태다. 전통적으로 17세기 이래 한국인들은 러시아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해왔다.⁸⁶ 공산주의 소련은 6·25 전쟁 종결 이후에도 오랫동안 하나의 ‘악의 제국’으로서 대적(大敵)이었다. 1983년에 발생한 KAL-007사건은 이러한 인식을 확인하는 듯 했다. 러시아는 아직 ‘4대 강국들’ 중에서 최소한으로 신뢰하는 나라로 간주되었다.⁸⁷ 한국인들에 대한 스킨헤드의 공격 같은 불행한 사건들도 이러한 두려움을 증대시켰다. 대중매체가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서 만들어내는 러시아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다.⁸⁸ 전 러시아 주재 한국 특파원들도 때때로 양국에서 서로에게 냉전 시기와 유사하게 제시되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국의 대중 매체는 ‘미국의 시각’을 통해 많은 이슈들을 보며, 러시아

⁸⁴- <<http://www.rauk.ru/modules.php?name=Forums&file=viewtopic&t=219>>.

⁸⁵- The number of tourists has increased three-fold since 2007, growing by 32% in just the first half of 2010(38,400), <<http://www.votpusk.ru/news.asp?msg=341860>>.

⁸⁶- Tatiana Simbirtseva, “Korea at the Crossroads of Epochs,” <http://world.lib.ru/k/kim_o_i/t3.shtml>.

⁸⁷- 유세희·강봉구, “한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The 18th Korea-Russia Joint Conference (한양대학교, 2009). Quoted by Hak Jun Kim at the 11th Russia-Korea Forum (St. Petersburg, 2010)

⁸⁸- 한국에서 러시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가장 공개적인 사례의 전형은 2010년 3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의 테러 공격과 관련하여 Korea Times에 실린 만화인데, 거기서 러시아에 대한 분개를 불러일으켜서 한국 대중들이 이에 정서적으로 순응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http://www.bfm.ru/news/2010/04/06/juzhnokorejskie-karikatury-o-teraktah-v-metro-vozmutili-mid-rf.html>>.

가 북한을 동정적으로 보는 것을 한국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잘못으로 간주한다.⁸⁹

2. 지역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의 정치와 안보 이슈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가능성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듯이, 어떻게 우리가 ‘상호관계의 개념을 상승시킬 것인지?’⁹⁰,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으며 그것이 동반자 관계의 다른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사로 보기도 하며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의 한국의 독특한 입장을 강조하는 한국 측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을 전략적 동반자로 보며, 북한만을 ‘좋은 이웃(a good neighbor)’으로 본다.- 2008년 9월에 양 국가의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⁹¹ 전문가들은 이 선언의 의미에 대해 난처해했다.

사실, 양국의 국가 전략은 일치하지 않으며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 상황을 지정학적인 견지에서 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승리’와 자신의 관점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자원의 원천 및 경제·기술적

⁸⁹- <<http://vestnik.kr/ruskor/3834.html>>.

⁹⁰- <<http://www.korea.net/news.do?mode=detail&guid=49785>>.

⁹¹-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29 September, 2008), <<http://kremlin.ru/sdocs/themes.shtml#207001>>.

발전을 위한 단기적인 파트너로 비춰진다.

동시에, 러시아는 한국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세 번째로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경제협력 거래에서 일본보다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는 영토 문제로 인해 난국에 처해 있다. 더욱이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한국의 위치는 세계 금융 위기의 와중에서 높아졌는데, 그것은 G20이 구성되면서 양국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주도록 했다. 모든 수준에서의 정례적인 정치 대화가 중단 없이 지속되었다. 동 시기에 21개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글로벌 동반자들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20주년인 2010년 한 해 동안 양국의 대통령들은 두 번 만나는 일정이 있었다. 2008년 12월 이후로 외교부 차관간의 정례적인 ‘전략 대화’가 이어져왔다. 한국 측은 2010년 9월에 이 대화를 더 고위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⁹²

그러나 러시아에서 서울과의 정치적·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현 정부 하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역안보 이슈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간주된다. 둘째, 지역 내 중국의 역할과 한국문제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심은 중국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과도하게 집중되게 만들었으며, 반면에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이슈로서, 국제 지역 내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지역적 및 세계적 규모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21세기의 첫 10년은 아마도 일부 논자들이 아시아

⁹² <<http://www.gpf-yaroslavl.ru/news/Prezident-YUzhnoj-Korei-Li-Men-Bak-U-rossijskoj-demokratii-boll-shoe-buduschee>>.

에서 ‘세 가지 차원의 체스’로 묘사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권력 게임이 점차 가열될 것이다.⁹³ 러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두 중심 국가, ‘부상하는’ 중국과 ‘쇠퇴하는’ 미국 간의 경쟁·협력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을 구상하여 이를 이행할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이 그들의 인근 바다에서의 군사훈련 같은 곤란한 이슈들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남아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과거보다 호전될 수가 있겠는가? 이 같은 요소는 양국 간의 안보문제에 관한 정치적 협력의 분야들을 결정적으로 협소하게 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한국이 세계 및 지역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야로슬라블 글로벌 포럼에서 양국이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문제와 맞서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이슈들보다도 양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지역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모순적이고 문제가 많으며, 안보와 협력을 위해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분열 없이 각 참여자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집단주의, 평등성, 투명성과 국제법의 승인된 규칙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러시아 전문가들은 국제조직들과 포럼들 간의 네트워크 외교와 동반자관계의 정신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조성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안보와 안정성의 군사적 측면과 갈등해결을 위한 기제의 형성은 논의에서 점차 증대하는 주제이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 하에 아시아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⁹³- Robert Kaplan, *Monsoon: The Indian Ocean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Random House, 2010).

아태평양 지역에서 생성되고 있는 체계적인 군사 기지와 상호 군사동맹이 안보와 협력의 진정한 구조를 지역 내에서 대안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⁹⁴ 그러나 한국은 기존의 안보체제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기존 안보 공약을 변화시키려는 계획도 없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러시아와 한국이 이 지정전략적인(geo-strategic) 지역 내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차원은 아시아의 대화의 장 속에서 협력과 협의를 심화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포럼, APEC, 특히 새로 결성 중인 동아시아 정상회담(러시아도 참가하도록 초대받음)- ASEM 대화의 새로운 회원으로서 러시아는 또한 한국의 자문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개입의 정도를 보이고 있는(중국-일본-한국의 '3각체제'의 행동이 돋보임) 러시아는 방관자가 됨으로 인해 지역적 노동 분화의 이점을 전적으로 향유할 수 없게 되거나 이 지역 내의 자신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아시아 정책에서 중국에 심하게 경도되는 것에 대해 꺼려하고, 또한 일본과의 관계는 경직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협력의 또 다른 분야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의 창설이다. 그것은 러시아가 6자회담의 과정 동안 증진시키고자 했던 과정이기도 하다. 비핵화 의제와 관계없이, 러시아와 한국은 장래에 그러한 메커니즘의 지도 원칙과 모양을 논의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6자회담 과정은 새로운 의제와 더불어 진행되었

⁹⁴- Vyacheslav Nikonov, "Russia's Pacific Strategy," *Strategy of Russia*, No. 8 (2010), <http://sr.fondedi.ru/new/fullnews.php?subaction=showfull&id=1283252871&archive=1283252977&start_from=&ucat=14>.

고, 러시아 외교에는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이 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3. 동반자관계를 방해하는 북한문제

전략적 수준으로 모스크바와 서울 간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데 주요한 방해물이 북한문제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법과 실제적인 정책에 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존재론적인 분열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정치 엘리트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고대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가치의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먼 장래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통일이 결정적으로 주도되기를 원한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압력과 고립화를 가하는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 대화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⁹⁵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도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곳인,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새롭고 동등한, 그리고 평화적인 지역 질서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것을 보고 있다. 러시아는 ‘햇볕정책’을 이전 시기의 대립보다 더 적절한 접근법으로 간주했

⁹⁵ 서구의 학자들은 “균형적이고, 전망 있는 한국의 통일은 … 러시아의 시각이 일본의 시각으로 볼 때, 더욱 중요하게는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도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Nicholas Eberstadt and Richard Ellings (eds.),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Seattle, 2001), p. 330.

으며, 러시아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김대중을 지지하는 야당 측의 전문가들과 1990년대에 이 같은 정책을 논의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⁹⁶ 러시아는 자신들이 협력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과 화해하고 원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진보적인(liberal)’ 시기 동안의 한국의 정책에 대해 낙관적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왔다.⁹⁷

러시아는 일부 다른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해과정의 시작되도록 노력했다. 그 단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거대 지정학적 중요성을 띤 전략적 이슈들은 한·러 간 접촉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는 김대중과 노무현 모두가 자신의 영토 위에서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⁹⁸ 러시아 정부는 2007년

96- 한국에 있는 한 전문가가 2005년에 서술하기를,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결과의 러시아 판(版)은 다른 어떤 국가의 것보다 한국의 ‘햇볕정책’의 근본 가정에 더 가깝다. 현재 저자가 북한을 ‘개조한다는’ 햇볕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일지라도, 이러한 기대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서울과 모스크바를 결속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Andrei Lankov, “Russia’s ‘New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http://64.233.169.104/search?q=cache:jYTjtuE1TZsJ:ifes.kyungnam.ac.kr/study/ifes_forum_view.asp%3FifesforumNO%3D152%26page%3D12+Georgiy+Butychev&hl=ko&ct=clnk&cd=15&gl=us>.

97- 많은 러시아인들은 2008년 4월의 김대중의 언급에 대해 동의한다. “2000년 6월 15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냉전의 벽과 남북 간의 적대감을 허물었고, 변화와 공동노력의 길을 개척했다 …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극적으로 완화됐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 및 상호방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는 남북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Korea Times* (18 April, 2008).

98-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김정일(이에 앞서 러시아 쪽에 자문을 할 때 이 같은 -러시아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라는-푸틴의 생각에 동의했음)이었다고 쓰고 있다. 2002년에 그에게 말하길, “나는 지난봄에 서울을 방문하려 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한나라당과 다른 보수 세력들이 반북정서를 조장했고, 내 주변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지 말 것을 권유했다.” 대신에,

10월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지했는데,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주목하기를, 북한이(미국에 대해 보다 나아진 입장과 경제원조 같은) 단기적 이익을 얻었으며, 한국과 다른 유관 국가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얻었다. 한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남북한의 공통적인 잠재력을 강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역의 지정학의 시각에서는 보다 확고한 안정성과 상호작용의 증대를 제공할 것이며, 그것은 러시아의 우선순위와 일치한다.⁹⁹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남북한 관계에서의 위기가 러시아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러시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의 화해의 10년의 시기가 일상적으로 증대하는 긴장과 더불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게 지켜보았다. 한국 측은 러시아에게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인정하고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고립시키는 캠페인에 같이 하자고 점차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러시아 외교관들은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던 러시아의 첫 민주정부가 평양을 압박하는 노력에 동참하고 그 결과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탈소비에트 초기의 낭만주의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한국이 러시아 정부가 평양에 압력을 가하고 평양의 반응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러

김정일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르쿠츠크(Irkutsk)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가능하다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위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김대중은 동맹국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또한 한국 측이 장소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2007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하는 데 결국 동의했다. *Rossiyskaya Gazeta* (18 July, 2008), <<http://www.rg.ru/2008/07/18/kim-anons.html>>.

⁹⁹- Georgy Bulychev, “A Russian View on the Inter-Korean Summit,”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7068Bulychev.html>>.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시아는 이와 같은 상황의 반복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러시아는 평화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관심사를 고려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바람을 분명히 표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은 평화와 안보가 북한의 비핵화 우선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신뢰 형성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러시아의 논리를 배격했다.¹⁰⁰

러시아는 또한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가 미국의 보수적 성향을 띤 정책 그룹들과의 심화된 관계 때문에 모스크바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되었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역할을 축소하는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했다.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두 번째 핵 실험에 대한 서울의 반응은 한반도에서의 긴장된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단히 균형 잡히지 못한 것으로 러시아에게는 비취졌다. 러시아의 전문가들과 관리들은 제재의 유용성을 의심했고,¹⁰¹ 처벌을 위한 (북한에 대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는 데 반대했다.¹⁰² 이러한 반응은 유일하게 가능한 반응으로 압력과 재제를 보았고, 러시아가 그것을 지지하기를 주장했던 한국의 입장과 대조적인 것이었다.¹⁰³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악의적이고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은 러시아-한국 동반자관계의 가혹한 시험무대였다. 러시아는 피의자로 북한

¹⁰⁰-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이재오는 2008년 1월 새 정부가 막 출범하려는 때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전망을 펼치려는 대통령 당선자의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 간의 협력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The Korea Herald* (28 January, 2008).

¹⁰¹- <<http://vremya.ru/2009/99/5/230706.html>>; <<http://vremya.ru/2009/90/5/229958.html>>.

¹⁰²- <<http://vremya.ru/2009/91/5/230064.html>>.

¹⁰³- <<http://vremya.ru/2009/31/5/223720.html>>.

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북한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평양을 더욱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하려는 장기적인 정책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했고, 그렇게 해서 경쟁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중단시키려는 것으로 보았다.¹⁰⁴ 러시아 야당은 이 사건을 ‘한국이 일으킨 것’으로 주장하였다.¹⁰⁵ UN 안보리 결의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에 반대하는 강경한 조치를 행사하려는 한국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했다.¹⁰⁶ 더욱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정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하여 러시아의 해군 전문가들을 한국에 보냈지만 이것이 사건의 한국식 해결을 지지해주지는 못했다. 그들은 배의 침몰이 ‘외부 충격’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만 결론을 내렸고, 북한이 어뢰 공격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잠재웠다.¹⁰⁷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¹⁰⁸ 이와 같은 이분법은 양국 간의 자극제로 작용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시작된 이 사건의 결과로 러시아의 이익이 고통받았다. 첫째로, 국경 부근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둘째로,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개입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여기는 6자회담이

¹⁰⁴- Alexander Vorontsov, Oleg Revenko, “Spring 2010: Increase in Tensions on Korean Peninsula,” <http://www.perspektivy.info/oykumena/azia/vesna_2010_g_obostrenije_naprazhennosti_na_korejskom_poluostrove_2010-07-07.htm>; <<http://vremya.ru/2010/89/5/254501.html>>.

¹⁰⁵- <<http://moscow-info.org/articles/2010/09/04/211287.phtml>>.

¹⁰⁶- Russia Charting Neutral Course in UN, <<http://www.dailynk.com/english/read.php? catald=nk00400&num=6509>>; <<http://vremya.ru/2010/90/5/254333.html>>.

¹⁰⁷- <<http://www.gzt.ru/column/blog-gzt-gibelj-chhonana-vygodna-vsem-/317348.html>>; <<http://www.rg.ru/2010/09/03/delo-site-anons.html>>; <<http://vesti.kz/asia/63239>>.

¹⁰⁸- <<http://www.rg.ru/2010/09/14/chhonan-site-anons.html>>.

순조롭게 재개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더 나가서 자신의 비확산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셋째로, 남북한,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논쟁의 결과로 제약을 받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진정한 정신에 입각해 한국 정부가 조용하게 상황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주장을 좀 더 수용하고 사건에 대한 평형감각을 유지했다면, 이 사건은 상당 부분 회피될 수 있었을 것이다. 2010년 9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천안함 파일’을 종결한다고 선언했다.¹⁰⁹

러시아와 한국은 모두 한반도에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접근법은 다르다. 러시아는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 정권 붕괴라는 ‘숨겨진 아젠다’를 위장하는 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¹¹⁰ 북한의 비핵화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진행돼 온 한국 안보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많은 현안들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이익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의 현재 핵(보유)상태가 아니라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미래에 확대되는 것과 핵무기와 운반수단(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이다. 그것은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일련의 결과를 갖고 올 것이며, 이러한 사태 전개에 맞서서 지역적 대응책의 파고가 높아지고 대항 조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이 테러리스트들의

¹⁰⁹- <<http://moscow-info.org/articles/2010/09/14/213727.phtml>>.

¹¹⁰- Vyacheslav Nikonov, Georgy Toloraya (eds.),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Russian National Committee (7 October, 2010), <<http://www.ruskiymir.ru/export/sites/default/ruskiymir/ru/fund/docs/ks210910.pdf>>.

수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태의 전개를 막으려는 러시아의 관심사는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현재 게임의 규칙 하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러시아에게 더 가능성 있는 조건은 북한의 핵 잠재력을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묶어 놓는 것인데, 그것은 현 상황의 임시보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실제 비핵화의 목표가 ‘평균점 위로’ 이동하게 될지라도 이것은 가능하며, 외교적 과정을 통해 이를 수 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접근법의 유용성에 대해 한국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4. 안보 동반자관계의 가속력으로서의 경제

21세기 러시아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며, 장기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띤 임무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가교’가 되기를 열망하며, 극동지역의 발전에 속도를 더하고, 아시아의 경제적 공간에 더 깊이 통합이 되기를 원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역할은 이런 견지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우리는 한국학자들이 우리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의 길목에 있다고 말하고 러시아와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새로운 동반자라는 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를 잇는 가교가 되고, 한국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가교가 된다.¹¹¹

전략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프로젝트들

¹¹¹- Kang Man Soo, “Strategy of Development of Russian-Korean relations,” Presentation at the 11th Russia-Korea Forum (St. Petersburg, May 2010).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은 이런 노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접근법은 한국의 자본, 러시아의 기술(북한산업과 인프라구조의 기초는 러시아가 만든 것) 및 북한의 영토를 결합하여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통합 시스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철도 프로젝트’¹¹²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을 잇는 철도망을 수리하고 개선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¹¹³ 북한은 이 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오고 있으며,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¹¹⁴ 삼각협력이 가능한 또 다른 분야는 에너지 부문에 있는데, 세 나라를 연결하는 전력망 같은 것이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아이디어는 한동안 논의되었으나, 남북 간에 진정한 화해가 도래하기

¹¹² 러시아의 수송전문가들은 동아시아 끝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의 중간 기착지를 제공하는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러시아와 한국 간에 이정표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같은 목적지까지 바다로 화물을 이송할 경우와 비교해 아시아-유럽 기착지 회랑을 만든다고 주저 없이 주장하고 있다. 장점들 중의 하나는 국가 간 경계를 실제로 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수송 체계를 따라 10,000km 이상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종단철도는 러시아인, 북한인과 한국인이 유럽 국가로 가고 올 수 있게 한다. 일본에서 오는 컨테이너 화물 또한 부산항에서 한반도 종단철도로 환적 할 수 있다. 2008년에 하산(Khasan)의 분기점에서 한반도 북부의 라진 항까지의 철도 구간을 현대화하기 위해 합자회사가 설립되었다(러시아 자산에 따르면 1,750만 루블의 가치 지님). 그리고 또한 동북아 국가들에서 러시아 및 유럽으로 물자를 이송하기 위한 새로운 중요 환적지로서 라진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들기로 했다. A. B. Bardal, “The Trans-Korean Railroad,” *Problems of the Far East*, No. 4 (2007).

¹¹³ 첫 단계는 라진을 통한 컨테이너 이송이다. 여기에 1억 달러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 10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남북 간 긴장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Lucian Kim, “Russian Railways Plans \$100 Million Terminal in North Korea,”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0&sid=aC.BMfvebUqc>>.

¹¹⁴ *The Korea Herald* (30 September, 2008), <http://admin.koreaherald.co.kr:8080/servlet/cms.article.view?tpl=print&sname=National&img=/img/pic/ico_nat_pic.gif&id=200810010003>.

전까지는 유토피아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¹¹⁵

한국의 일부 분석적 문건은 유럽에서 독일과 유사하게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특권적인 동반자가 되려는 한국의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¹¹⁶ 그러나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해석은 러시아가 더 이상의 경제적 및 기술적 관계의 강화 없이 한국에 대한 원료와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실용적인’ 한국인들에게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목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넘어서 러시아 시장에 한국 수출품의 경쟁적인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¹¹⁷ 러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이 ‘2013년까지의 극동과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찌야(Burytia), 이르크츠크 및 치타 지역의 사회 및 경제 발전 전략과 같은 국가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에 더욱 참가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러시아는 한국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선언한 현대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 과거에 한국은 기술 발전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대시키자는 러시아의 요청에 무관심했고, 러시아 과학자들을 고용하여 러시아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실비로 수행하게 하여 러시아의 기술에 접근하는 데에만 열중했다.¹¹⁸ 한 가지 환영할 만한 징조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하여 시작된 러시아의 현대화 아젠다

¹¹⁵- <<http://www.oreanda.ru/ru/news/20100624/common/events/article482914>>.
¹¹⁶- Alexander Vorontsov, Oleg Revenko. “South Korea in Search of a Balance,” *Russia in Global Affairs*, No. 6 (December 2008) <<http://www.Globalaffairs.Ru/Numbers/35/10839.html>>.
¹¹⁷- *Ibid.*
¹¹⁸- <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aug2009/gb20090825_345428_page_2.html>.

이다.¹¹⁹ 2010년 9월 푸틴 총리와와의 회담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러시아 경제를 현대화시키는 데 파트너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¹²⁰ 러시아는 한국이 스콜코보(Skolkovo)시와 다른 하이테크 지역의 재정비 같은 프로젝트에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원한다.¹²¹

이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러시아와 한국에 필요한 무엇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 양국 간의 합의가 한반도 미래와 -핵, 대량살상무기와 과도한 군사화 문제로 이루어진- 북한의 안보관심사에 대한 해답으로써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양 정부는 합동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발전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동의 비전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둔 국제적 노력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남북한 간의 3자 대화(정상회담 포함) 제안을 새롭게 할 수 있다.
- 세계 문제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 특히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G20과 다른 국제 조직의 틀 내에서 형성하는 문제와 새로

¹¹⁹-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29 September, 2008), <<http://kremlin.ru/sdocs/themes.shtml#207001>>.

¹²⁰- <<http://www.korea.net/detail.do?guid=49768>>.

¹²¹-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가장 전망 있는 분야는 우주기술이다. 한국 우주인이 러시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 처음 진입하고 난 다음(2008.4)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Roskosmos)는 이 복잡한 과정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일부 근원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KSLV 발사시스템 같은 합동 프로젝트를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핵 영역에서의 협력은 한국의 발전소에 핵연료(한국의 전체수요의 약 1/3)를 러시아가 공급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러시아는 한국이 앙가르스크(Angarsk)에 있는 국제 우라늄 농축 센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 긍정적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는 문제는 결정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경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의 틀 내에 존재하는 특별한 협의 메커니즘이 이를 위해 창설되어야 한다.

- 양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의 구조 내에서 상호작용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은 상호 고위급 대화의 정례적인 주제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은 에너지와 인프라 구조를 포함하는 동북아 발전에 대한 공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도자들이 공표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도를 실현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유럽에서 지역 통합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북아 에너지 헌장(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 채택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역동적인 지역(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조화를 포함하는)에서의 에너지 안보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적절한 이슈가 될 수 있다.¹²²
- 양국 정부는 ‘수직적인’ 노동 분화보다는 ‘수평적인’ 것에 입각하여, 경제 협력의 상호 호혜적인 모델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TSR-TKR 연결, 석유, 가스 및 전력 공급 체계 및 북한 경제의 근대화 같은) 대규모의 다자적인 프로젝트가 양국 정부와 업계의 노력의 전면에 부각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라진-하산 수송망이 북한을 또한 포함하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 양국 정부는 개인 대 개인의 방문 접촉과 교육, 과학과 스포츠 분

¹²² 제11차 한-러 포럼에서의 한국 주재 클럽 이바센초프(Gleb Ivashentsev) 전 러시아 대사의 제안. St. Petersburg (29 May ~ 1 June, 2010).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야에서의 협력을 크게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동 교육 프로그램 -상호 학위 인정이 되는-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인들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 대중들의 인식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러시아에서의 프로젝트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반면에 러시아는 한국에서 러시아 문화를 알리고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는 데 더욱 노력과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분야들이 정부의 노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트랙 투(track two) 차원의 논의, 대중매체의 캠페인과 풀뿌리 차원의 노력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Brutenz, Karen. *On Russia's Foreign Policy Concept in Asia and the Pacific*. Moscow, 1995.

Eberstadt, Nicholas and Richard Ellings (eds.).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Kaplan, Robert. *Monsoon: The Indian Ocean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Random House, 2010.

Nikonov, Vyacheslav and Georgy Toloraya (eds.). "Korean Peninsul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ussia." Russian National Committee. 7 October, 2010.

2. 논문

Bardal, A. B. "The Trans-Korean Railroad." *Problems of the Far East*. No. 4, 2007.

Denisov, Valery. "A Partnership of Mutual Trust with Seoul?" *International Life*. No. 3~4. 2005.

Tkachenko, Vadim. "Vostochnaya Literatura." *Korean Peninsula and Russia's interests*. 2000.

Vorontsov, Alexander and Oleg Revenko. "South Korea in Search of a Balance." *Russia in Global Affairs*. No. 6, December 2008.

I

II

III

IV

V

VI

VII

VIII

3. 기타자료

유세희·강봉구. “한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The 18th Korea-Russia Joint Conference. 한양대학교, 2007.

Kang, Man Soo. “Strategy of Development of Russian-Korean Relations.” Presentation at the 11th Russia-Korea Forum(St. Petersburg). May 2010.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September 2008.

Korea Times.

Rossiyskaya Gazeta.

Seoul Herald.

The Korea Herald.

<<http://kremlin.ru>>.

<<http://moscow-info.org>>.

<<http://sr.fondedi.ru/new>>.

<<http://vestnik.kr>>.

<<http://vremya.ru>>.

<<http://world.lib.ru>>.

<<http://www.bfm.ru>>.

<<http://www.bloomberg.com>>.

<<http://www.businessweek.com>>.

<<http://www.dailynk.com>>.

<<http://www.forumsostav.ru>>.

<<http://www.Globalaffairs.Ru>>.

<<http://www.gpf-yaroslavl.ru>>.
<<http://www.gzt.ru>>.
<<http://www.istockanalyst.com>>.
<<http://www.korea.net>>.
<<http://www.nautilus.org>>.
<<http://www.oreanda.ru>>.
<<http://www.perspektivy.info>>.
<<http://www.rauk.ru>>.
<<http://www.rg.ru>>.
<<http://www.russiainvest.ru>>.
<<http://www.russian-embassy.org>>.
<<http://www.ruskiymir.ru>>.
<<http://www.votpusk.ru>>.

I

II

III

IV

V

VI

VII

VIII

제2편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략과 한반도



V. 러시아 극동 · 동시베리아와 동북아 지역협력의 주요 경향 및 전망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Alexander N. Fedorovskiy)



러시아 극동지역(Russian Far East)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몇 가지 근거와 사실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러시아에서 대단히 특별한 지역인 이곳에서의 경제적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적, 역사적, 거시경제적 및 상업적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극동과 같은 거대한 공간 내 각각의 지역에 대해 경제발전의 한 가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연해주(Primorskiy Krai), 하바로프스크주(Khabarovskiy krai)와 사할린 변강주(Sakhalin oblast; 사할린 섬+쿠릴(Kuril) 열도)과 같은 곳은 지역 내 외국 무역의 주요한 거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지역들의 대외경제 관계는 자신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발전에서 있어 몇 가지 공통적인 현상들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후에 러시아 경제의 전략적 전환은 러시아 극동의 경제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태평양지역에 대한 크렘린의 외교정책은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에서의 지역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시장개혁,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정치적 관계의 증진, 모스크바와 서울 간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정세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경향들은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 사이를 포함하여,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 간에 경제적 교류 발전의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냈다. 과거에 실질적으로 폐쇄되었던 극동지역은 태평양 국가들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APEC의 몫은 1991~2008년에 러시아 전체 무역 중 11%에서 21%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수출과 수입의 역동성은 동일하지 않았다. 러시아 수출 중 APEC의 몫은 1991년에 11%에서 1994년에 20%, 1996년에 30%로 아주 짧은 기간 증가했다가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1999년에 17%와 2008년에 12%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했다. 다시 말해, 소련 경제 붕괴 이후 20년 동안에 APEC 회원국들은 1990년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의 수출에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수입품의 중요한 출처로써 APEC의 역할이 2000년대에 중요하게 증대했다. 동시에 APEC 회원국들은 중요하지만 아직은 주요한 러시아의 수출 시장이 아니다(<표 V-1> 참조).

● 표 V-1 러시아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APEC의 비중(%)

| 구분 | 1995 | 2000 | 2005 | 2006 | 2007 |
|----|------|------|------|------|------|
| 수출 | 16.0 | 15.1 | 12.4 | 17.1 | 12.2 |
| 수입 | 16.1 | 16.1 | 25.6 | 28.6 | 31.8 |

출처: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의 APEC 지역과의 무역의 주요 부분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무역이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이며 그들의 경제는 러시아의 석유, 가스, 석탄, 다른 광물 자원들과 목재, 해산물 등 전통적인 수출품을 요구한다. 더욱이 동북아는 수출 기지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주도적인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 나라들은 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IT 기술, 전자 제품, 화학 제품, 소비재 등을 수출하는 세계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와의 경제 관계 발전은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통합에 절대적인데, 이것은 러시아가 일본, 중국과 한국처럼 태평양과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표 V-2 동북아와 러시아연방 간의 무역 수출
(CIS 국가 배제, 미국\$)

| 구분 | 1992 | 1995 | 1997 | 1998 | 2008 |
|----------------|--------|--------|------------------|-----------------|-------------------|
| 합계 | 42,040 | 81,096 | 88,252 | 72,538 | 397,935 |
| 중국 | 2,737 | 3,432 | 4,015 | 3,146 | 20,725 |
| 홍콩 | 72 | 321 | 226 | 145 | 420 |
| 북한 | 227 | 70 | 74 | 54 | 140 |
| 한국 | 204 | 919 | 945 | 524 | 2,209 |
| 몽골 | 189 | 197 | 166 | 133 | 1,061 |
| 타이완 | 128 | 464 | 289 | 142 | 2,686 |
| 일본 | 1,569 | 2,622 | 3,133 | 2,241 | 10,925 |
| 동북아 (전체의 %) | 5,126 | 8,025 | 8,848 (10.0%) | 6,385 (8.8%) | 45,177 (11.4%) |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Washington D.C., June 2009), pp. 318~320;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8* (Washington D.C., 1998), pp. 382~383; *Beijing Review*, Vol. 43, No. 14, <<http://www.Chinatoday.com/trade/a.htm>>; *Monthly Bulletin on Trade with Russia and East Europe* (Tokyo, March 2000), p. 71.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가 외국과 무역하는 수십 개의 상대국들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1990년대(첫 해를 제외하고) 러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류는 다소 느리게 진행됐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변했고, 러시아와 동북아 간의 상호무역은 2010년까지 여러 차례 증가했다. 석유, 석탄과 광물 자원의 가격 인상이 이 시기 러시아의 수출 호조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표 V-3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와의 무역, 수입

(CIS 국가들 제외, 공식적으로 등록된 수입 제외, 미국\$)

| 구분 | 1992 | 1995 | 1997 | 1998 | 2008 |
|-------|------------------|-----------------|-----------------|-----------------|-------------------|
| 합계 | 36,984 | 60,945 | 73,460 | 44,078 | 238,039 |
| 중국 | 1,669 | 886 | 1,266 | 1,154 | 35,431 |
| 홍콩 | 138 | 92 | 51 | 16 | 191 |
| 북한 | 65 | 15 | 17 | 8 | 17 |
| 한국 | 753 | 502 | 882 | 1,016 | 11,333 |
| 몽골 | 249 | 40 | 83 | 49 | 695 |
| 타이완 | 85 | 88 | 122 | 74 | 930 |
| 일본 | 1,680 | 763 | 1,002 | 818 | 17,836 |
| 동북아시아 | 4,639 (12.5%) | 2,386 (7.8%) | 3,423 (4.7%) | 3,135 (7.1%) | 66,433 (27.9%) |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Washington D.C., June 2009), pp. 318~320;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8* (Washington D.C., 1998), pp. 382~383; *Beijing Review*, Vol. 43, No. 14, <<http://www.Chinatoday.com/trade/a.htm>>; *Monthly Bulletin on Trade with Russia and East Europe* (Tokyo, March 2000), p. 71.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동북아와의 협력은 전통적인 수출품(연료, 광물 자원 등) 시장의 증대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출처, 고급 기술과 현대적 장비의 광대한 원천, 원자재, 곡물과 소비재 같은 러시아의 제조업 수출(무기, 군사 장비와 기술을 포함) 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존재는 고급 기술과 현재적 장비(무기와 기술 포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의 협력 증대의 한 요소이다.

동북아 지역 내 러시아의 인접 국가들은 산업 및 소비재, 투자와 기

술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동북아 간의 업무 교류가 2000년대에 괄목할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는 동북아 국가들 내에서의 관계보다 더 낮다. 더욱이 러시아와 서구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러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이 태평양 국가들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르바초프(M. Gorbachev)부터 메드베데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태평양을, 특히 동북아가 대단히 중요한 러시아의 무역 거래국들임을 끊임없이 선언해왔다. 예를 들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가 이익 때문에 굳게 통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¹²³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 및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아직 유럽의 파트너들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EU 혹은 미국에서만큼 활발하지 못하다.

대외 경제정책 분야의 주도적인 러시아 전문가들 중의 하나인, 아카데미 회원 이바노프(I. Ivanov)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주요한 지리적인 구조문제는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 러시아의 대외 경제정책이 유럽을 선호하는 불균형)’¹²⁴라고 한다. 극동지역의 수송과 대외무역의 인프라구조는 러시아의 유럽지역 수준과 비교할 때 저발전되어 있다.

2008~2009년의 세계 금융 및 구조적 위기는 동북아경제에 강하게

¹²³- D. A. Medvedev, “Strengthening Dynamic and Equal Partnership in the Asia Pacific Region,” <<http://www.kremlin.ru/text/appairs/200811/209480.shtml>>.

¹²⁴- I. D. Ivanov, *Vneshneekonomicheskiy complex Rossii: usglyad iz nutry (Russia's foreign trade complex: inward view)*, (Moscow: Rus-Olimp, 2009), p. 288.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통적 수출품 수요는 2008~2009년 동안 많이 줄어들었다. 2010년에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에서 전통적인 제품의 수출이 재개되었고, 러시아는 일정 규모의 무역을 증가시키고 이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복원하거나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외무역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경우에 러시아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출 산업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1. 동북아지역과의 무역 거래의 세 가지 유형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영토에는 공통적이면서 구체적인 특징들이 있다. 이 지역 모두는 권위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에서 1998년까지 러시아 극동에서의 산업 투입은 60%까지 떨어졌다. 반면에 동 기간 러시아 전체가 50% 하락했다.¹²⁵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구조는 다른 곳과 상당히 다르다. 이것이 이 지역의 대외무역 유형들이 같지 않은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주와 사할린 변경주의 동북아 국가들과의 대외 경제관계는 각각 분리해서 분석해야 한다.

사할린 변경주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출 모델(export model)’로 이를 붙일 수 있다. 연해주는 ‘수입 모델(import model)’이라고 할 수 있

¹²⁵- A. Fedorovskiy, “Conditions and Prospects in the Russian Far East,” *Russia in Asia-Asia in Russia: Energy, Economics, and Regional Relations*, Conference Proceedings (ed.), F. Joseph Dresen, Occasion Papers, No. 292 (Washington D.C.: Kennan Institute, 2005), p. 5.

고, 하바로프스크 주는 ‘균형 모델(Balanced Model)’로 보인다.

사할린 변강주는 러시아 극동의 여러 지역 가운데 경제발전의 ‘성공 스토리’의 좋은 예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할린의 GRP(지역총생산, Gross Regional Product)는 9배가 증가했고, 이것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최고의 결과이다. 심지어 위기 시기였던 2009년에도 사할린의 GRP가 7.5% 증가했다. 이것은 2009년 러시아에서 최고의 성장률이었고, 수출 쿼터(수출/GRP)도 80%였다. 2010년 사할린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약 7%이다.

사할린에서의 경제적 동향은 향후 15년간 사할린의 GRP가 4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은 이 지역 내 에너지 산업의 성공적인 발전과 지역 정부의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정책에 토대를 두고 있다.

사할린의 수출 산업은 소비에트 시대 이후에 급속하게 현대화되어 왔다. 엑손(Exxon), 더치셸(Dutch Shell), 미쯔이(Mitsui & Co.), 미쯔비시(Mitsubishi Corp), 맥더모트(McDermott) 같은 다국적 기업, 매래손(Marathon)과 유럽과 일본의 주요 은행과 협력하는 일부 다른 기업들에 의해 310억 달러 이상이 사할린 경제(90%가 에너지 산업)에 투자되었다. 일본의 투자는 사할린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의 50%를 차지한다.

현대적인 석유와 가스 생산 시설 및 여러 종류의 생산 공장들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첫 10년 동안에 건립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LNG 공장들 중의 하나가 2009년에 사할린에 건설되었다(연간 LNG 960만 톤).

그러나 외국 투자는 ‘사할린 1’과 ‘사할린 2’ 프로젝트의 실현으로 인해 2007~2009년에 3.5배가 감소했다. 이것은 사할린 정부가 지역의

I
II
III
IV
V
VI
VII
VIII

에너지 및 다른 산업발전을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¹²⁶

러시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사할린에서의 활동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그들이 러시아 국영 로스네프트(Rosneft, 석유회사)와 가스프롬(Gasprom, 가스 회사)과 합자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사할린의 전체 수출은 2008년에 1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수입은 약 11억 달러였다.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석유의 대부분은 한국(50% 이상)과 일본(44%)으로 수출된다. 다른 소비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태국(1%), 미국(0.7%), 일본(50%)과 한국(40%)은 사할린에서 수출하는 LNG의 주요 수입국이다. 중국과 일부 다른 나라들 또한 사할린에서 수출하는 LNG의 고객들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사할린 에너지의 중요한 소비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중국에는 2%의 석유만이 수출된다).¹²⁷

사할린의 수출품 중에 다른 제품들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생선과 다른 해산물들이 전체 수출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한국(31%), 중국(23%), 일본(23%), 홍콩(12%)이 수입하고 있다. 수산업은 지금 사할린에서 붐이 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수산업 공장이 16개에서 37개로 증가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민영이다. 이것은 사할린에서의 변화하는 기업 환경이 긍정적인 경향들

¹²⁶- N. V. Zubarevich, Vystuplenie na Conferentsii(Report to the conference), "Modernizatsiya kak Osnova Ustoichivogo Sotsyalno-Ekonomicheskogo Razvitiya Regiona(Modernization as a Base for Sustainable Social & Economic Development of a Region)," Conference Proceedings(In Russian), Government of Sakhalin Oblast, INSOR (Moscow: Econ-Inform, 2010), p. 43.

¹²⁷- Statistical Data of Administration of Sakhalin Oblast.

을 보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인다.

사할린 수출품 중 약 5%가 목재, 종이와 다른 물품과 서비스이다. 목재 산업이 오랫동안 정체기에 처해 있고, 현재 이 산업 내에서 비즈니스 행위가 재개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에너지 산업발전이 2000년대 초기부터 증가한 수입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2000년대 말에 파이프라인과 LNG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서, 이후에 단계적으로 느리게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몇 개의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가 중기적 전망 속에서 의제에 오르거나 실현되면서 아직 기계와 장비가 수입의 주요 품목(50%)이다.¹²⁸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하이테크 장비와 기술은 주요 산업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요소는 사할린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연해주의 수출은 2008년에 16억 달러였고, 물품과 서비스 수입은 55억 달러였다. 대외무역이 늘고 있다.¹²⁹ 이 같은 수치는 사할린과 연해주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좋은 실례이다. 연해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와 나홋카(Nakhodka)로서,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태평양 쪽 해안에서 중심 요새이다. 중국(35%), 일본(31%)과 한국(9%)이 주요한 대외무역 파트너이다. 식료품, 의복과 소비재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자동차와 자본재가 -일본에서는 전자 제품, 자동차와 선박이-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수입이 러시아의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연해주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 내의 다른 지역들에도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그것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홋카가 진정으로 러시아의 태평양 쪽 관문

¹²⁸- Statistical Data of Administration of Sakhalin Oblast.

¹²⁹- Statistical Data of Administration of Primorskiy krai.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항구와 수송 인프라구조는 열악하기에 자신들의 허브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화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APEC Summit 2012 in Vladivostok)’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맞춰 교통 인프라구조와 에너지 설비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교육, 보건 및 연구 중심지, 통신망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정부기관, 외국의 기업과 공공조직,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 연해주가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연해주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이 문제는 러시아 극동 내 다른 지역들에게도 중대함). 이 문제는 범죄 행위와 부패가 러시아 국내 비즈니스와 현대화 프로그램의 실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대외무역, 자본 수입과 외국 관광객 증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하바로프스크 주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제발전의 방식을 갖고 있다. 이 주는 목재뿐 아니라 많은 물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하바로프스크 주는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주도적인 산업 중심지이다. 예를 들어, 군대의 병기들과 민간 비행기 ‘슈퍼 제트 100(Super Jet 100)’이 국내 및 외국 수출을 위해 아무르(Amur)에 있는 콤소몰스크(Komsomolsk)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의 대외무역은 사할린이나 연해주보다 적은데, 2008년에 약 33억 달러(수출 21억 달러, 수입 12억 달러) 규모이다.¹³⁰

하바로프스크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몫(수출의 41%와 수입의 45%)은 이웃 국가로서의 중국이 동 지역의 대외무역의 발전에

¹³⁰- Statistical Data of Administration of Primorskiy krai.

있어 또 다른 중요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 다른 대외무역 파트너는 일본(수출의 14%와 수입의 15%)과 한국(수출의 17%와 수입의 9%)이다.

하바로프스크의 해양 항구 시설은 하바로프스크 주의 대외무역 확대가 연해주의 교통 인프라구조에 의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니노(Vanino) 항과 소베스카야 가반(Sovetskaya Gavan)이 건설되어야 하며, 여기서의 화물 선적이 2020년에 6,000만 톤까지 증대되어야 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러시아의 소비 비즈니스가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셔틀 무역 거래자들의 대부분이 중국과 한국에서 식료품과 소비재를 수입하는 일을 특화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비즈니스는 매우 유연하며, 국내외에서 변동하는 그때 그때의 경제적 여건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셔틀 무역 종사자들은 주로 중국에서 무늬목과 저질의 소비재들을 수입했다. 1990년대 중반에 더욱 질 좋은 상품을 선호하는 국내적 수요의 변화로 인해 일부 셔틀 종사자들은 한국에서 더 질 좋은 비싼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1998년에 러시아 화폐의 저평가 이후에 셔틀 거래자들은 중국 상품들에 대한 대규모 수입을 재개했다.

셔틀 거래자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업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거대 무역 회사들이 셔틀 거래자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하바로프스크 주에서 오는 러시아인 종사자들은 러시아 국내시장(하바로프스크 주, 러시아 극동의 다른 지역, 시베리아와 유럽 러시아)에 공급하기 위해서 곡물, 의복, 소비재, 가구 등을 중국 동북부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생산하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도로(치타(Chita)-하바로프스크 간 도로 포함)와 철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도의 현대화가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모스크바가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러시아 극동에서의 비관적인 인구 동향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방식이 실현되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0년 7월에 러시아 극동에 대한 정부 정책이 러시아 극동 발전에 대한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을 포함하는 국제적 협력, 에너지와 중국과의 협력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이슈들이다.

2.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에너지 정책과 중국

러시아의 경제발전은 에너지 산업의 상황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산업 생산의 30%와 러시아 수출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회사들은 유럽 국가들과 협력했으며, EU는 아직도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있어 주요한 수출지역이다. 에너지 가격과 몇몇 다른 문제들과 우크라이나(Ukraine)에서의 가스 수송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러시아의 수출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전통적으로 의심해왔으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회피하려 한다. 동시에 러시아는 유럽에서 경쟁이 증대하므로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동북아는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모스크바는 동북아를 선호하는 에너지 자원의 수출 시장 다양화를 추구해왔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두 가지 주요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성장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러

시아의 정치적 및 경제적 지위를 안정화 혹은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태평양지역을 하나로 묶는, 특히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을 개척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의 단기적 및 장기적 임무는 분명하다. 단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러시아 가스의 시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가스 공급국가가 되고, 주요 석유 공급자들 중의 하나가 되어 중동의 생산자들과 성공적으로 겨루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체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동북아가 30%로 증대되기를 원하고 있다.¹³¹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의 석유와 가스 분야의 탐사는 러시아의 최우선적인 경제 프로젝트에 속한다. 현재 모스크바의 주요 임무는 동북아에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송과 인프라구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르쿠츠크(Irkutsk, 동시베리아)와 스코보로지노(Skovorodino, 중국의 국경 부근) 간의 석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었고, 석유 산업의 수출 시설들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 스코보로지노와 연해주에 있는 태평양 해안 간의 파이프라인이 중국의 재정적 지원으로 2년 안에 건설될 것이다. 중국개발은행(China Bank of Development)은 러시아 회사 로즈네프트와 트랜스네프트 회사에 250억 달러의 신용을 보증했다. 결국 러시아 회사들은 20년 동안 매년 석유 1,500만 톤을 공급할 것이다.¹³²

2010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에 로즈네프트와

¹³¹- I. Tomberg, "Asian Oil and Gas Markets: prospects for Russian Export (In Russian)," in *God Planet: Economica, Politica, Bezopasnost* (Moscow: Nauka, 2007), p. 41.

¹³²- *RBK Daily* (18 February, 2009), <<http://rbcdaily.ru/print>>.

중국국영석유공사(CNPC)는 중국에 거대 석유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500개의 중국의 역에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중국 동방 석유 정제 회사를 합자하여 만드는 데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¹³³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10년 7월 하바로프스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비판했다. 그것은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에서의 국내 경제정책이 대외 경제정책과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¹³⁴ 문제는 그것이 새 대통령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드베데프가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에, 그는 동아시아에서의 국제협력에 러시아가 관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면,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의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¹³⁵ 그것은 국내정책과 대외 경제정책의 상호관계가 절대적인 문제이고,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의 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의 광물 자원 개발은 이 변경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투자를 유인하고, 통합된 인프라구조를 만들어 내고, 고용 비율을 증대시키고, 러시아의 중심지역으로 향하는 이주의 압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외에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러시아의 존재를 심화시키는 토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부 지방 간

¹³³- *Vremya Novostei* (22 September, 2010).

¹³⁴- <<http://kremlin.ru/transcripts/8234>>.

¹³⁵- President D. A. Medvedev, Excerpts from the Transcript of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the Regional Media, <http://kremlinru/eng/text/speeches/2008/11/18/2139_type829>.

의 경제협력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05개의 합자 프로젝트들이 2009~2018년에 농업과 곡물 산업, 목재 산업, 에너지, 관광 등의 분야에서 실현될 것이다. 아무르 강은 예브레이스카야(Everriskaya) 변강주에 있는 새로운 다리까지 확대될 것이다. 중국까지 1,700km를 단축하는 길을 만들 것이다.¹³⁶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17개의 합자 경제 프로젝트들이 양측에 의해 채택되었고, 여기에는 10개의 에너지 사업이 포함되었다. SUEK 회사(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가 중국에 2010년 말까지 100만 톤의 석탄을 제공할 것이다. 로즈네프트와 CNPC는 중국에 석유를 수출하는 새로운 거래를 타결했다. 가스프롬은 중국에 2015년 이후에 천연 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중국 측이 가격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다. 첫 단계에서 서시베리아에서 가스를 수출하고 나중에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에서 수출할 것이다.

일부 외국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은 일본과 양국(러시아, 중국)이 모두 관련된 영토분쟁이나 북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미사일 대항 프로그램 같은 정치적 이슈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믿고 있다.¹³⁷ 그러나 이 정치적 견해는 정확하지 않은 듯 하다. 앞에서 밝힌 대로, 러시아의 주된 목표는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지위의 개선이다. 모스크바가 이를 추진할 이유는 많이 있다. 러시아 내에서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을 우선시하는 경제 권력의 재배치, 수

¹³⁶- D. A. Medvedev, Excerpts from Transcript of Meeting on the Far East's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ith Asia Pacific Region Countries, <<http://kremlin.ru/transcripts/547>>.

¹³⁷- P. J. Brown, "Russia along for a Chinese Ride," *Asian Times*, <<http://atimes.com/atimes/ChinaLJ06Ad03.html>>.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출의 다양화를 꾀하고, 국가 대외무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북아에서의 지역 경제협력에 국가의 동쪽 부분을 합류하는 경제통합을 위한 적절한 기지를 창설하는 것은 모스크바의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 긴급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APEC 정상회담을 환영할 것이다. 러시아에게는 태평양 국가들과의 대외 경제관계, 특히 이웃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러시아의 새로운 이미지는 에너지와 환경, 기초 산업들의 혁신과 현대화, 수송과 통신, 보건과 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 러시아가 갖는 동북아 협력의 전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에 일부 인상적인 경제적 성과가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및 동북아 경제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와 러시아 간의 경제관계는 폭넓지 못하며, 러시아와 EU 간의 경제협력만큼 유연하지 못하다.

이제 러시아는 기로에 서있다.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통적인 점진적 발전과 동북아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대외 경제관계가 러시아가 국내 경제를 개선하고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러시아의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할린 변강주와 같은 곳에서 나타난 최근의 경제사는 러시아와 동북아 간의 상호관계를 확대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기 위해 분석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르쿠츠크(Irkutsk) 변강주와 사할린 변강주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연방 정부가 새로운 지역 전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이주와 법률 정책만큼 더욱

유연한 세금, 관세 및 세관, 금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역 전략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외국의 정책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어야 한다. 거대 금융자본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송, 산업과 사회적 인프라구조의 현대화에 투자되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지원 없이 오로지 국내 투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러시아의 비즈니스 기관들은 동북아 지역 내의 기관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과 경제협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도주의적이고 문화적인 교류를 포함하는 동북아 국가들과 러시아 간 협력의 비경제적 측면들을 무시하는 것은 오류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종류의 조치들은 정부, 지역, 기업 및 공공 수준 등 각기 다른 수준에서의 지역적 경제협력에 러시아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참고문헌

1. 단행본

Ivanov, I. D. *Vneshneeconomicheskiy complex Rossii: usglyad iz nutry (Russia's foreign trade complex: inward view)*. Moscow: Rus-Olimp, 2009.

Tomberg, I. *God planet: economica, politica, bezopasnost(Asian oil and gas markets: prospects for Russian export)*. Moscow: Nauka, 2007.

2. 논문

Fedorovskiy, A. "Conditions and Prospects in the Russian Far East." *Russia in Asia-Asia in Russia: Energy, Economics, and Regional Relations*. Conference Proceedings. Occasion Papers. No. 292, Washington D.C.: Kennan Institute, 2005.

Zubarevich, N. V. Vystuplenie na Conferentsii: Modernizatsiya kak osnova ustoychivogo sotsyalno-economicheskogo razvitiya regiona(Report to the conference: Modernization as a base for sustainable social & economic development of a region). Conference Proceedings. Government of Sakhalin Oblast, INSOR. Moscow: Econ-Inform, 2010.

3. 기타자료

Medvedev, D. A. Excerpts from Transcript of Meeting on the Far East's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ith Asia-Pacific Region Countries. Khabarovsk. July 2010.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1998), Washington D.C., June 2009.

Statistical Data of Administration of Khabarovskiy krai.

Statistical Data of Administration of Sakhalin Oblast.

Asian Times.

RBK daily.

Vremya Novostei.

<<http://atimes.com>>.

<<http://kremlin.ru>>.

<<http://rbcdaily.ru>>.

I

II

III

IV

V

VI

VII

VIII

Ⅵ. 러시아-한반도 철도연결 프로젝트: 현 상황과 전망

알렉산더 보론초프(Alexander Vorontsov)



러시아-한국 철도 연결 프로젝트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다. 러시아를 통해 아시아에서 서유럽을 육로로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한다는 구상은 10년 이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상당한 조치들이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이미 취해졌다.

프로젝트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계속 변해왔으며, 현재는 남북한 간의 최근의 긴장 때문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

또 다른 새로운 근본적인 현상은 북한 지역에서의 중국 철도 부설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현상이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은 한국과 연관된 유라시아 철도 개념의 전개라는 틀에서 가장 수동적인 행위자였다.¹³⁸ 2009년부터 시작해 북한에 모습을 나타낸 중국의 행동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중국-북한 국경에서 라진 항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포함된다.

과거에 관찰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낙관적 판단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는 많은 장애들과 논쟁적 부분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들이 제기되었으며, 러시아, 북한, 한국 등 이해 당사국들 간의 철도 연결 협력을 실제로 시행하는 문제는 점차 심각해져 갔다. 그러므로 ‘세기의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찬반양론을 철저히하고, 광범위하며, 편견 없고 사심 없이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¹³⁸- Alexander Vorontsov, “The Korean Peninsula Railroads. Trans-Korean Railroad, Transsib and Europe Connection,” *Asia Railroads* (Moscow, 2004), p. 116; A. B. Воронцов,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ект соединения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с Транссибом и Европой,” в книг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Азии* (Москва, 2004) с. 116.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활용을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비상하기 위한 계기로 보고 있다. 이것이 두 대륙 간에 가교가 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중요한 지역으로 존중되기를 원한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세계화의 진행 과정은 국가들 간에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켰다. 특히, 생산, 서비스, 투자와 노동력의 흐름에 따라 국가 경계가 개방되는 현상이 증가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과정의 수동적인 목격자가 되고픈 마음이 없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가의 운송 부문의 잠재력은 에너지 자원과 혁신 영역에서의 능력만큼 중요한 자산이다.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밝힌 국가발전의 개념이, ‘혁신(innovation)’과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두 주제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제운송 부문의 발전은 긴급한 임무이다. 상품을 제조해서 시장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과 값싼 수송 루트를 여는 것은 방대한 운송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지리적 요소로 인해 러시아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의 다리에 적합한 주체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재건되어야 하는) 사업이 세계의 가장 긴 수송 회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 분명한 사업상의 이익

일반적인 조건에서 대부분 이 프로젝트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출발하여 유럽으로 향하는 엄청난 양의 컨테이너들을 환적하는 데 가장 짧고, 가장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루트를 개

척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부산에서 한반도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유럽으로 수송하는 기간은 13~15일 정도 소요되며, 수에즈 운하를 통해 바다로 나가 화물을 전달하는 데 40~45일이 걸리는 것과 대조된다.¹³⁹ 러시아의 직접적인 재정상의 이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남쪽 항구에서 러시아의 우수리스크(Ussuriysk)시까지 한반도를 가로질러 직접 연결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화물수송을 하면 러시아의 수입은 연간 약 150~200억 달러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 정치인들, 비즈니스 업계와 전문가들은 거의 10여 년 동안 논의를 해왔으며, 아직까지 이에 상응하는 결과는 없는 상태이다. 유라시아 수송 흐름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계속 앞지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잠재적인 수송 능력은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데에는 몇 가지 잠재된 요소들이 있다.

첫째로, 1990년대 러시아는 전반적인 약화를 대가로 치렀고, 러시아의 수송 능력을 복원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현재 불충분하다. 철도 수송 부문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신의 옛 위치에 복귀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에, 과거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 수송비용에 주로 의존했던 국제 운송 시장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이 시장에서의 개입은 수송 서비스의 소비에 국한되었다. 자신의 고객과 이미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 놓은 영향력 있는 ‘해상 로비(marine lobby)’는 경쟁자로서 확실히 러시아의 출현을 좋게 볼 수 없을 것이다.¹⁴⁰

¹³⁹- <<http://www.transsibcouncil.com/tsm.transkorea.html>>.

¹⁴⁰- “Transsib as a Challenge for Marine Carriers of Cargo,” *Russia Railroad*-

둘째로, 재정적, 조직적, 기술적 난점들이 사업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이용을 통한 화물운송 촉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비용과 수송 조건의 끊임없는 변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복잡한 세관 절차와 수송 규제 같은 것이 포함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06년 3월에 열린 회의 ‘20세기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철도 협력을 위한 잠재력’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은 고율의 관세와 운송 지연을 야기하는 러시아 측의 형식적인 절차를 비판했으며, 철도 인프라구조의 조건인 러시아 기차 차량 부족도 무거운 컨테이너를 싣고 통과할 수 있도록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이 결여된 것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바꿀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송 비용은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2006년까지 한국에서 핀란드까지 컨테이너 운송과 바다를 통해 되돌아오는 비용은 보스토치니(Vostochny) 항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는 것과 거의 같았다. 컨테이너 당 3,000달러가 조금 넘었다. 이후에 배의 탑재 능력이 강화되면서 바다 수송비용은 줄어든 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비용은 적어도 20~40%가량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화물은 더 값싼 해상 루트로 전환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수송 잠재력의 고양은 러시아의 기존 철도망을 다른 나라들의 수송망과 연계하고, 이를 기초로 한 새로운 국제 수송 회랑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한다. 아시아의 주요 항구들 중의 하나인 부산에서 한반도 종단철도가 출발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면

Partner Magazine, No. 5 (2002); “Транссиб как вызов морским перевозчикам,” *РЖД-ПАРТНЕР*, No. 5 (2002), <<http://www.transportinform.com/rail-transportation/85-transsib-kak-vyzov-morskim-perevozchikam.html>>.

동북아에서의 교통 흐름의 전체적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

한반도 중단철도의 재건설은 남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인해 현실적인 사업이 될 것이며, 남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화해와 광범위한 협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6·25전쟁이 남겨놓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양국 간의 철도 연결을 재개하는 협정이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체결되었다.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중추적인 허브로 만든다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을 유럽과 연결하는 철도 회랑을 만드는 임무를 자신의 정부에 부여했다.

2008년 9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3가지 실크로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¹⁴¹

러시아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는 남북한과의 더 큰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상응하는 범위의 논의는 2000~2002년 사이에 열린 러·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다. 2001년 8월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창설하고 이것을 시베리아 횡단열차 노선과 연결한다는 합의가 담긴, 6개의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¹⁴² 곧 이어서 러시아 철도부와 북한 철도부가 한반도 중단철도를 재건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통합한다는 특별 조항을 언급한 협정서에 서명했다.

북한 철도망의 동북쪽 지역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고, 재건기준에 대한

¹⁴¹- "South Korea is Going to Lay Three Branch Lines on the 'Silk Road,'" *Rossiiskaya gazeta*, No. 4761 (30 September, 2008); "Три ветки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собирается проложить в Россию Южная Корея,"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No. 4761 (30 сентября, 2008г).

¹⁴²- "Russia DPRK Moscow Declaration Signed," *The People's Daily* (5 August, 2001), <http://english1.peopledaily.com.cn/english/200108/05/eng20010805_76554.html>.

계산이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수행되었다. 러시아의 국영 철도회사 RZD가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 남북한 양쪽 모두와 양자 대화를 가졌다. 3자 대담도 물론 열렸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철도 연결을 재건하는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었다. 서쪽으로는 문산(한국)과 개성(북한)을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청진과 금강산 역을 연결하는 것이 2003년 5~6월에 논의되었다. 시험 열차가 2005~2006년에 조속히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고, 곧이어 정규 열차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요소들이 철도 프로젝트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요소들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싼 비용과 재원의 출처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 통상적인 기업의 기준을 북한이 고려하지 않는 데 따르는 결과로써 북한에서 사업을 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풀리지 않는 갈등과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분쟁으로 인한 국제정치적인 긴장으로부터 제기되는 정치적 부담이다.

북한에서의 대규모 경제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유치할 기회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동년 10월의 핵실험으로 사라졌으며, UN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평양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어지고 있으며, 계속 실험을 하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심각하게 관망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프라 구조 재건을 위한 주요한 금융 투자는 한반도에서 평화, 안보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연후에만 고려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러시아, 북한, 한국 등 사업 참가국들 간에 특정한 문제들에 관한 불일치는 또한 사업 진행에 장애가 된다. 한국과의 협력을 하기 위한 북한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접근은 이 사업에 있어 문제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

의 남쪽 경계를 열면 ‘외래 이데올로기’가 유입되고 국가의 방위력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쪽으로 갈라진 25km도 안 되는 철도가 5년 전에 연결되었고, 제한된 협력이 -개성 R&D 공단의 목적으로- 2007년 12월 남북한 군이 ‘안보 보장서’를 교환한 후에야 시작되었다. 분명히 똑같은 이유로 북한은 한국이 북한의 철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으며, 특히 전략지역에서 러시아에게 과점상의 재정적, 기술적 및 조직적 측면을 위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한반도 종단철도의 적합한 루트에 대해서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 간의 잠재적인 연결 코스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서부, 중부와 동부의 세 가지 노선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http://www.transsibcouncil.com/tsm.transkorea.html>>.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첫 번째, 소위 개성 라인은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개성까지 간 다음에, 평양을 거쳐 북한 국경 부근의 신의주로, 여기서 더 가서 러시아의 치타(Chita) 지역 내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한국에서 만주, 몽골 및 러시아로 연결되는 대 실크로드로 한국 정부가 묘사한 노선이며, 처음부터 가장 선호되어 왔다. 과거에 한반도에서 이 길은 주 도로였는데, 만일 재건된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증가하는 화물 이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한국은 이 길이 개성공업단지와 한국이 북한의 남서쪽 지역에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다른 경제특구 부근을 지나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길의 또 다른 이점은 해당 철로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리나 터널이 없는 평평한 지형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철로를 수리해서 작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화될 수 있다.

동해선으로 알려진 동쪽 노선은 북한이 선호한다. 이 선은 주로 동해 해안을 따라 온정리를 거쳐 춘천 그리고 라진(구 라진-선봉)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경계가 맞닿아있는 두만강-하산(Khasan)으로 이어진다. 추측건대, 이 노선을 통해 북한은 국제적 철도 회랑에 포함될과 동시에 자신의 저발전된 변경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국내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노선은 화물의 대부분이 출발하게 될 한국의 산업지역에서 멀어지게 되어, 운용비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것은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남북 간의 철도망에 연결되지 않고 비무장지대 부근의 단절된 작은 철로들만 연결함으로써, 동쪽 노선에서 실제로 철도 건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줄 것이다. 이 사업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한국은 적어도 180km의 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사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동쪽 노선은 중요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북부 노선, 경원선은 러시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노선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지역(부산, 서울, 문산)을 지나 북(개성)으로 가서 원산을 거쳐 하산과 우수리스크(Ussuriysk)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새로운 철도를 건설할 필요도 없고 사유지를 매입할 것도 없는 이 길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요한 업무는 기존에 건설 중인 철도를 재건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노선이 한반도 종단철도로 선택된다면, 기술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또한 제기될 것이다. 북한 철도망의 북동쪽(약 1,000km)이 갖고 있는 기술적 조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해당 지역의 화물 객차, 기술 장비와 전반적인 인프라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이 루트는 북한의 산악지역을 지나간다. 결과적으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건설되어 그 때부터 수리를 한 적이 없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수많은 다리와 터널들이 있는 단선의 철로이다. 예를 들어 다리의 30%(587개)와 터널의 24%(165개)가 최악의 조건에 처해 있다.¹⁴³ 이 길을 국제 수송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비용이 추산된 적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50~7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재건에 걸리는 시간은 6~8년으로 추정된다. 그 같은 방대한 투자는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통한 한국과 유럽 간의 화물교환이 활발해지고 안정적으로 될 때만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 철도의 재건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남북한 간의 직

¹⁴³- Alexander Vorontsov, "The Korean Peninsula Railroads: Trans Korean Railroad, Transsib and Europe Connection," p. 121.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접적인 철도 환승의 재개는 어떤 특정한 국가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업무가 될 수 있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타이완,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폴란드 등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로 구성된 국제 금융 컨소시엄을 만드는 것이다.¹⁴⁴ 이와 연관된 이슈는 초대륙적 환승 회랑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연합은 러시아와 남북한, 그리고 아마도 핀란드와 폴란드 같은 ESCATO 국가와 EU 국가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덕에 아시아로 화물을 운송하는 유럽의 북부와 동부의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다.¹⁴⁵

한국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이득과 중대한 문제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이 된다. 이것은 서울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이유를 설명해준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자국의 프로젝트 참여가 환승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많은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종단철도의 활성화는 전략적 및 경제적으로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사실상의 고립을 극복하고, 육로로 대륙에 화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¹⁴⁶ 이 경우에 한국의 가장 큰 항구로 해상과 대륙 환승 루트의 기점에 해당되는 위치에

¹⁴⁴- "RZD is Looking for Partners. For Trans-Siberian and Trans-Korean Railroads Connection," *РБК Daily* (30 March, 2007); "РЖД ищут партнера в. Для соединения Транссиба и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РБК Daily* (30 March, 2007).

¹⁴⁵- Alexander Vorontsov, "Would Trains Go from Pusan to Brest?" *New Markets*, No. 1 (Moscow, 2002), p. 30; A. Воронцов, "Пойдут ли поезда из Пусана в Брест?" *НОВЫЕ РЫНКИ*, No. 1 (Москва, 2002), с. 30.

¹⁴⁶- Markku Heiskanen, "Eurasian Railway-Key to the Korean Deadlock?" (22 January, 2003), <http://nantilus.org/fora/secouwri/023A_Heiskanen.html>.

있는 부산이 추가적인 환승 흐름에 부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과 동등한, 아시아-유럽 루트의 중추적인 허브가 될 것이다.

그 외에 한국은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과 병행해서 추진되거나 혹은 그 과정에 앞서서 진행되는 식으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향하는 화석연료의 대안적인 수입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철도 사업의 중국 측면도 한국에서 무시되지 않고 있다. 서구로 향하는 지선으로서 능력을 고도로 지닌 노선의 가능성이 한국과 중국 간의 화물교환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인프라구조를 본질적으로 구축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약 1,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 화물교환이 해상 운송에 의해 점차 어려움이 가중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과 연관되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한국의 잠재적인 이익이 있을지라도, 서울의 주요한 관심은 다른 영역에 있다. 한국 내의 영향력 있는 집단은 한반도 종단철도의 루트와 관계없이 철도건설이 남북한 간의 협력을 배가할 것이고, 북한 사회가 더욱 개방되도록 자극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지역통합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은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만들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적절한 정치적·조직적 문제의 해결을 미루지 않고도 분절된 북한의 철도의 복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컨소시엄에 대한 국가의 지지가 한국이 러시아를 횡단하는 국제 환승 전략을 규정하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국 내에서 확실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더욱 실제적인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측면에 대해 다소 수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으며, 러시아 쪽으로 컨소시엄 형성이 조정되는 부담을 분명히 회피하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처음에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철도건설 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북한의 철도망 재건과 관련된 금융 의무의 대부분을 맡을 수 있으리라는 관심으로 설명되었다.

동시에,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평양과 워싱턴 간의 대결에 의한 긴장의 촉발 가능성도 있다.

사업의 진행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 국내문제들이 한국 내에 있다. 만일 남북한 간에 정규 철도 교통이 열린다면, 한국의 철도망을 거쳐가는 대규모의 화물수송을 조직하는 것이 아직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서울과 그 교외의 승객 수송을 위한 철도망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남쪽에서 북으로 화물운송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선언하는 것은 기존의 철도 능력 혹은 가능한 화물 객차의 가용성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견해는 서울 주변의 주요한 새 철도, 주요한 철도역을 통해 통과하는 수많은 추가 노선, 그리고 몇 개의 고도의 능력을 지닌 컨테이너 터미널들이 긴밀한 남북한 철도 수송에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이 계획들은 순수하게 가설적인 것이다.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고, 가까운 장래에 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완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특히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며,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방대한 사업이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질 정도로 견고한 대륙 간 연결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대단히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비무장지대에 근접한 철도 이동을 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으로의 관광을 조직하고 국경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국지적인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사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금융, 조직, 혹은 다른 역할들에 관해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 다자적인 철도사업의 전망을 논해왔다.

많은 한국의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서쪽과 동쪽 노선의 병행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접근법과 더불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함께 연결하는 경의선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이며, 또한 동쪽 노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의 잠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한·중 국경에 위치한 신의주 시와 개성 사이의 단절된 철도를 현대화하는 데 동의했다.¹⁴⁷ 한 달 뒤에 남북한의 총리가 단절된 구간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를 하는 것에 서명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 노선을 통해 한국의 관광객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건설에 돌입하기로 했다.¹⁴⁸

그러나 이 야심찬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2월 취임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 행정부는 많은 남북한 간 사업을 적어도 동결시키거나 종식시켰으며, 그것들을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한반도 종단철도의 재건이 한국의 통일부가 천명하는 남북한 간의 행동

147- "S. Korea, DPRK Sign Joint Declaration on Peace, Prosperity,"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7/10/04/content_6830163.htm>.
148- "S. Korea, DPRK Agree to Operate Inter Korean Railways during 2008 Olympics," *China View* (10 April, 2007).

계획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2010년 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서울은 평양과의 거의 모든 형태의 협력을 동결했다.

2. 프로젝트 수행 과정

2001~2003년에 한 러시아-한국 실무 그룹이 러시아 교통부와 북한 철도부 간의 합의로 러시아 국경에서 비무장지대(960km)를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동쪽 노선의 북한 쪽 단절 지역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연관된 인프라구조와 더불어 철도 재건의 한계 요소들을 밝히는 문서를 준비했고, 재건 계획서를 만들었다.¹⁴⁹

단절 부분을 재건하는 비용이 적어도 25~35억 달러에 달하며, 여기에 화물객차 부족문제와 긴급 에너지 공급을 해결할 비용이 추가되면, 이 또한 대단히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공표되었다. 자연스럽게 이 약속된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기회는 희미해졌고, 사업을 위한 어떤 국가의 자본 마련도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되었으며, 투자자들도 심각하게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에 ‘거대’ 철도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러시아는 외국 투자자들, 특히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용이 덜 들고 경제적으로 더욱 효용성 있는 지역적인 프로젝트들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북한과의 논의에 국한했던 영속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점차 한국 측을 포함하는 3자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최초의 3자회담은 2004년 4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¹⁴⁹- Vorontsov, “Would Trains Go from Pusan to Brest?” pp. 29~30.

2006년 3월에 러시아, 북한, 한국의 철도 부서 간에 회담이 열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상태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 종단철도의 재건이 하산(러시아)에서 북한의 라진 항까지의 52km 구간을 재건하는 예비 프로젝트를 논의했다.¹⁵⁰ 한반도 종단철도를 현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 ‘거대’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서 예비 프로젝트를 고려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리하여, 첫 단계에서, 계획은 상기한 철도구간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화물운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라진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라진은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소련의 수출과 수입품을 환적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며, 라진 항의 잠재력은 러시아에도 잘 알려져 있다. 라진은 적절한 장소에 필수적인 인프라구조를 지닌 부동항이며, 처음에는 알루미늄 같은 ‘더러운’ 화물을 환적할 의도에서 이용했다. 현재 라진 항은 일정한 안보 보장과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경제지대의 일부이다. 100,000개의 컨테이너를 매년 항구에 적재할 수 있는 주요한 일관수송 단지를 건설하고, 항구까지 광궤(1,520mm) 철도를 부설하는 것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화물 흐름의 방향을 조정하는 임무를 가능하게 해준다.

위의 3자회담에서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야쿠닌(V. Yakunin) 사장이 이끄는 러시아 국영 철도회사 RZD 대표단이 2006년 7월에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여 프로젝트 실행의 실제적인 측면들과 재원조달 문제를 논의했다. 남북한은 러시아가 제안한 노선과 행동계획에 대해 동의

¹⁵⁰- “Russia and the ROK Railway Men Started Talks Regarding the Cargo Attracting at the Transsib,” *RIA Novosti Agency* (19 July, 2006);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чал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грузов на Транссиб,” *PIA Новости* (19 July, 2006).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했으며, 그들은 투자 유인 임무를 러시아에 위임했으며,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컨소시엄을 형성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한국의 화물은 프로젝트의 충분한 활성화에 필요한 물동량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담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노선 그 자체에 대해 3자 모두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부산항에서 한국 중부의 화물이 제공되는 지역을 가로질러 통과해서, 도라산-비무장지대-북한의 철도망의 개성 라인과 그리고 봉산, 원산 및 라진을 통해 두만강-하산 교차점으로 뻗어나간다. 자연히 이 계획은 일련의 특정한 의무라기보다는 공통의 의도와 미래를 위한 지침을 과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대’ 프로젝트가 어떻게 혹은 언제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 3자 간의 협상은 시험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실제적인 노력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고 비싼 비용이 들지 않아도,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향해 하산-두만 교차점을 통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간의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자회사의 주요한 목적은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투자를 유인하고, 52km의 철도 구간을 재건하고, 화물을 유치하고, 미래에 인프라구조를 운영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북한 측과 연관된 조직적 노력과 라진 철도와 항구에서 행해진 기술적 연구에 덧붙여, 러시아 국영철도회사 RZD는 세관, 관세의 단순화,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 검색 시설을 포함하여, 항구와 철도 인프라구조 현대화에 대한 투자 가능성, 노선 설정 시 화물 교통의 분산, 부산, 라진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루트를 조직하는 것 같은 이슈들을 한국 측 담당자들과 논의했다.

약 2년의 다차원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RZD의 야쿠닌 회장과 북한
의 김용삼 철도상은 2008년 4월 모스크바에서 협력 협정을 협상했다.
여기서는 철도를 재건하고 라진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며, 합자
회사를 규정하는 예비 프로젝트의 주요한 매개요인으로 RZD 무역관
(RZD의 부속시설)을 건립하여 북한 항구의 운영을 담당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사업 파트너는 합자 회사의 지분을 각각 70%와 30%씩 갖기
로 했다. 원래 예정했듯이, 합자회사는 투자를 유인하고 계약자를 모색
할 것이다.¹⁵¹

추가적인 화물 교통을 늘리고 국경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파트너
들은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환승에 대해 관세인하를 보장하며, 검색
절차를 단순화하여 국경 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보장할 것이다. 자문
위원회가 전체 프로젝트의 운영을 조절할 것이다.

RZD는 필요한 투자 혹은 프로젝트의 시간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수반되는 사업 계획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임시로 RZD와
제3자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52km의 철도구간
을 재건하는 비용으로 1억~1억 2천만 달러를 추정했으며, 항구 터미
널을 건설하는 비용은 6,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그 밖에, 약 70억 루블
로 추정되는 전체 투자액은 아마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하산
바라노프스키 우수리스크 철도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RZD는 사업운영의 초기 단계에서 라진항으로부터 시베리아 횡단철
도로 흡수되는 컨테이너 교통의 총량이 20피트의 콘테이너 55,000~
80,000개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운영은 해상 운송보다 더 경제적인임을 입증할 것이며, 컨테

¹⁵¹ <<http://www.cctst.msk.ru/index.news.24042008.html>>.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이러 총량이 매년 200,000~400,000개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이 순간 중요한 문제는 이미 합의한 사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와 특히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 조달이 언제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RZD가 건설을 곧 착수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재정 부담의 대부분을 책임질 수 있고, 아마도 필요한 장비와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한 개의 한국 회사를 포함하여- 또 다른 합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3. 프로젝트의 부담과 전망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중추가 되는 독창적인 아시아-유럽 횡단 철도를 관리하는 것은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수송망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북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존재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밖에,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의 실현은 시베리아와 극동에서의 경제 회복을 자극하면서, 러시아의 수송 부분의 근대화를 가속화하고 해당 인프라구조를 현대화할 것이다.

북한 철도망의 구간과 라진 항을 재건하는데 있어, RZD는 이 거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이 행위가 대단히 훌륭하지만, 어떤 놀랄 만한 상황이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7년간 많은 조항, 선언과 협정들에 대한 서명이 있었지만, 한반도 종단철도의 건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추상적인 아

이디어로 남아 있다. 각각의 참여자들은 프로젝트의 수행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의 경제성 혹은 실현 가능성 -남북한 관계의 현상태와 한반도에서의 일반적인 군사적·정치적 상황에 기초하는- 을 확인하는 연구 혹은 상세한 계산이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이 거대한 대륙횡단 철도에 대한 7년 동안의 회담이 남긴 결과였다. 동시에 일개 회사의 사적인 제안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그것의 명백한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험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는 이와 동일하다. 이것도 포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것은 RZD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RZD는 명백하게 중요하지만 고립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러시아의 전체적인 운송 정책과 트랜스-바이칼(Trans Baikal) 지역과 극동을 개발하는 연방 프로그램과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RZD는 2009년 10월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예정된 신용을 얻는 데 실패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일이 복잡해지고,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남북한 관계가 다시 러시아-한반도 철도 연결 사업을 호전시킨다면 두 번째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전망은 실현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참고문헌

1. 논문

Markku, Heiskanen. “Eurasian Railway–Key to the Korean Deadlock?” *Nautilus*. 22 January, 2003.

Vorontsov, Alexander. “The Korean Peninsula Railroads. Trans-Korean Railroad, Transsib and Europe connection.” *Asia Railroads*. Moscow. 2004.

_____. “Would trains go from Pusan to Brest?” *New Markets*. No. 1, 2002.

2. 기타자료

“Transsib as a Challenge for Marine Carriers of Cargo.” *Russia Railroad-Partner*. No. 5, 2002.

“South Korea is Going to Lay Three Branch Lines on the ‘Silk Road’.” *Rossiiskaya gazeta*. 30 September, 2008.

“S. Korea, DPRK Agree to Operate inter-Korean Railways During 2008 Olympics.” *China View*. 10 April, 2007.

“Russia and the ROK Railway men Started Talks Regarding the Cargo Attracting at the Transsib.” *Ria Novosti Agency*. 19 July, 2006.

China View.

PEK daily.

Ria Novosti.

Rossiiskaya gazeta.

Russia-DPRK Moscow Declaration.

<<http://english1.peopledaily.com.cn>>.

<<http://nautilus.org>>.

<<http://www.cctst.msk.rul>>.

<<http://www.transsibcouncil.com>>.

I

II

III

IV

V

VI

VII

VIII

VII.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스베틀라나 수슬리나(Svetlana Suslina)



1. 프로젝트의 배경

러시아의 해양인들은 19세기 중반에 두만강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854년에 푸차친(Poutyatin)이 이끄는 러시아 탐사대가 한국 쪽 경계에서 가모프(Gamov) 곳까지 동해의 해안선을 탐사했다.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이반 곤차로프(Ivan Goncharov)의 작품 ‘전함 팔라다(Fregat Pallada)’는 아마도 두만강과 그 일대에 대한 묘사로는 러시아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1990년대에 스트렐비츠키(Strelbitsky)와 즈베긴 켄트(Zvegintsev)가 실시한 두만강 상류 지역과 백두산 천지 호수에 대한 탐사는 상당히 충실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또 러시아 남부 국경에서 아서 항(Port Arthur)에 이르는 길을 따라 육지와 해안선과의 경계지역을 조사했다.

2. 동북아 시각에서 보는 두만강 프로젝트

20세기의 말은 중국, 북한, 몽골, 한국, 러시아와 일본 등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강렬한 동북아지역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위에 열거된 국가들의 경제협력은 현재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지방 정부, 산업과 상업 분야의 기구들, 국제조직의 전문가 집단들이 포함된다.

오늘날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면서, 미래 역시 발전을 보장하는 지역들 중의 하나임을 입증해왔다. 양질이면서 비싸지 않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조성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상업적, 군사적, 인구적인

I

II

III

IV

V

VI

VII

VIII

측면 등 다른 기원에서 출발하는 수많은 모순들을 축적해왔다. 이 지역에서의 국제적 잠재력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규모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한국 같은 거대한 행위자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것의 전면에 북한이 최근에 자신의 군사적 및 정치적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창출해오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동북아가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지역이 되는 것은 힘들지만, 두만강 연안 국가들이 객관적으로 대단히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젝트는 존재한다.

북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두만강은 아시아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교역 및 에너지 교통로로서 상호교류의 자연스러운 길이다. 두만강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 자원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한국의 시장을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잠재력은 인프라구조와 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다. 두만강 지역에서의 통합과정은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 접촉과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에 시작됐다. 두만강 프로젝트는 UNDP(UN Development Program)가 초기부터 지원해왔으며, UNDP는 초국경적 투자, 에너지와 인프라구조 구축 프로그램 같은 수단을 통해 인접지역들의 사회적 발전을 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두만강 지역의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한국 등 5개국 간에 ‘자연보호에 대한 통제 원칙에 관한 상호 이해 각서(memorandum)’와 더불어 ‘협의 및 조정위원회(Consultative and Coordination Committee)’를 결성하기 위한 협정이 1995년에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국가적 협력을 위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했다.

3. 두만강 프로젝트의 시작

1995년 12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비롯된 두만강 프로젝트의 결성에 러시아, 중국, 남북한과 몽골 등 해당 5개국의 대표들이 「두만강 지역의 경제 발전에 관하여」라는 이름의 협정서에 서명했다.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협력에 대한 협정」이라는 이름의 UN 프로젝트는 두만강 유역의 함경북도(북한), 중국 지린성의 조선족 자치지역, 하산(Khasan) 호수에서 보스토치니(Vostochni) 항에 이르는 러시아 연해주의 남부 등 북한, 중국, 러시아의 두만강 영토와 인접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두만강 프로젝트는 훈춘의 중국인 마을에서부터 두만강 양쪽 편에 인접한 20km에 달하는 해안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60km의 벨트를 따라 3개 국가의 경제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중대한 경제적·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훈춘에서 지린성 북부지역까지 해상 교통로를 얻을 수 있기에 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진 항(북한), 연지(중국)의 마을 및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간의 삼각형을 차지하는 10,000평방km의 국제 자유경제지대를 창설하는 데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95년부터 20년 이상 추진되어 왔으며, 3,0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¹⁵²

△ 두만강 프로그램의 가정

- 산업 성장, 교통 인프라구조, 무역과 관광의 협력적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¹⁵² 동북아시아에서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UNDP, 1999.

- 제도적·법률적인 기초,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을 조성한다.
- 환경보호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 국가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우호적인 경제적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경제적, 금융적 정책 및 다른 정책들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원 국가들은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는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 프로젝트의 역사를 개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단계가 있다.

- 1단계(1991~1996년): UNDP가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 두만강 지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5개 회원 국가들 간의 정부 간 협정 체결. 1994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이동.
- 2단계(1997~2000년): 협정 이행의 시작. 무역, 투자 및 환경적인 프로젝트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려.
- 3단계(2001~2004년):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을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됨. 인프라구조 구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구상 및 시행.
- 4단계(2005~2010년): ‘대 두만강 이니셔티브(GTI, Greater Tuman River Initiative)’라고 재명명한 프로젝트의 지리적인 경계를 확장하고, 법률적 기초를 재축조하며, 제도적 기초를 마련함. 동 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에 집중.

4. GTI와 GTI의 활약

GTI는 동 지역의 회원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정부 간 구성체이며, 이 특징은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 중에서 일본만이 비회원 국가이지만, 채택된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옵서버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GTI⁵³ 결성 이후에 그것은 광범위한 범위의 이슈들을 통해 회원 국가들 간의 다자적인 경제통합에 대한 중요한 통로가 되어 왔으며, 안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동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GTI는 회원국 정부가 서명한 협정의 수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에 도달했으며, 특히 동 지역에서의 업무환경의 통합과 공고화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로 했다.

GTI 제8차 협의위원회 회의(2005년 9월 중국 창춘에서 개최)에서는 GTI 기본 협정의 기한을 향후 10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GTI 정상회의에서는 또 GTI의 지리적인 구조를 확대하고, 재정구조를 재구조화하며, 실제 프로젝트들에 자신들의 행동을 집중하고, 동 지역에서의 투자를 증대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합의한 소위 「창춘 합의(Changchun Agreements)」를 승인했다. 협의위원회 회의와 더불어 투자 포럼을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2006~2015년 동안의 전략적 플랜을 승인했으며, 협력을 위한 4개 우선 분야를 규정

153. GTI는 업무 협의 위원회(Business Consultative Council), 투자 포럼(2년에 한번)의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GTI는 GTI 회원 국가들의 관리들을 위해 교통위원회(Transport Council) 결성에 관한 특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GTI는 6개의 교통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했다; 교통, 에너지, 관광산업, 투자와 모든 목표를 통합하는 부문으로서 생태문제를 포함한다.¹⁵⁴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이어 2007년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GTI 협의위원회의 정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후에 제9차 협의위원회 회의,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 투자 포럼, 새로 결성된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같은 GTI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했다. UNIDO 참가자, 국제관광기구(International Travel Organization), UNDP 등을 포함하여 10개국에서 온 약 170명이 참가했다.

협의위원회 회원 국가들은 GTI 프로젝트들의 지위를 규정한 수많은 인프라구조에 대해 함께 노력하는 데 동의했으며, 에너지위원회, 여행위원회, 투자 보호와 비즈니스 협의위원회(BCC, Business Consultative Council) 같은 새로운 GTI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도 합의했다. 새로운 구조에는 동북아의 거대 기업 30개 이상이 참여하며, 다른 지역들에서는 두만강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투자를 증대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데 정부와 기업들이 일치된 관심을 표명했다. BCC의 주요 목적은 동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고, 투명한 규제 원칙을 확립하며, 정부와 기업이 주요한 이슈들과 문제들을 논의하는 영구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 데 있다. BCC는 1년에 두 번 정례회의를 연다.

협의위원회 제8차 회의 직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계 비즈니스 공동체의 거대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동북아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과 투자 포럼을 개최됐다. 이 포럼에서는 동 지역에서의 통합과정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의 조정을 요구하는 몇몇 투자 프

¹⁵⁴- <<http://www.tumenprogramme.org>>.

로젝트들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앞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결정되었으며 포럼들을 연례적으로 계속 열기로 했다.¹⁵⁵ 2009년 3월 울란바토르(Ulan-Bator)에서 GTI 회의가 개최되어 동북아로의 통합과 더불어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교통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GTI의 지위를 통합을 위한 국제조직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조직 내부에 금융기관을 만드는 데 있어 특별한 중요성을 띤 회의였다.¹⁵⁶

5. 두만강 프로젝트의 현 상태

2000년 10월,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의 10주년이 되었다. 이 내용은 요약문에 제시되어 있다. 동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론자들에게는 놀랍게도 근본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의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UNDP와 다른 후원 조직이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동 지역의 5개 국가, 중국, 몽골, 남북한과 러시아 연방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현재 이 5개 국가들은 국가들에 자신들의 국경을 이미 개방했는데, 과거에는 아주 엄격한 통제를 하였거나 폐쇄했었다.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는 1998년 베이징에 외국과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회 사무실을 개설한 일이다. 이 협회는 회원 국가들이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¹⁵⁵- Natalia Yacheistova, (dir.), GTI Secretariat, "Tumangan: In the Epicentre of Northeast Asia," (*The Business World, Russia-China*, NI, 2008에 공표된 논문의 인터넷 판).

¹⁵⁶- <<http://www.dniimf.ru>>.

GII 프로젝트가 수행된 첫 10년 동안 지역 내 통신 하부구조의 발전에서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발전은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과 NEA&T 간의 협력인데,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중국의 지안반(Jianban) 간에 섬유 광케이블을 깔았다.

두만강 지역에서 진행된 투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상기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붕괴와 ‘경제협력위원회(Council of Economic Cooperation)’의 붕괴가 미친 중대한 타격을 들 수 있다. 둘째, 1997년과 1998년 일어난 아시아와 러시아의 위기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프로젝트의 시간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1999년 말까지 외부 투자의 총량은 13억 5천만 달러였으며, 투자의 대부분이 중국의 지안반과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이루어졌으며, 양 지역에서 투자 총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에 몽골은 2억 8,400만 달러, 라진-선봉이 8천 8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목적의 기여는 러시아 연해주-1,232, 몽골-1,016, 지안반-680, 라진-선봉-113 정도이다.¹⁵⁷ 이 밖에, 지안반에 대한 투자 할당은 원료 생산, 경공업과 관광산업에 대부분 집중되었고, 몽골에는 광산업, 라진-선봉에는 여행, 통신과 교통 산업, 러시아에는 원료 가공, 여행과 무역이다.

두만강 프로젝트 회원 국가들 간의 대외 무역관계에 있어 확실한 진전이 있었다. 1999년 수출이 22억 3천만 달러, 수입은 19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 교통 인프라구조의 현대화는 지역 내 무역과 경제협력에

¹⁵⁷- “Tumangan: A long-term Political and Economic Project for Northeast Asia,”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Moscow: Russian Academy of Science, 2002), p. 41.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 부문에 있어 확실한 진전이 있었다. 중국은 훈춘에서 한춘(Hanchun)을 거쳐 러시아와 북한 국경지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2000년 4월에 속초(한국)-훈춘(중국)과 자루비노(러시아) 간에 새로운 교통 노선이 생겼다. 러시아는 관광객의 유입 증대와 포세트와 자루비노에 대양으로 나가는 항구 건설을 가속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0년 6월에 일본의 니가타(Niigata)에서 제2차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위한 조직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 교통분과의 하위위원회가 무역을 적정화하고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 바니노(Vanino)- 타이세트(Taishet), 헤이룽장(Heilongjiang)성-연해주의 항구, 지린성-두만강의 항구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교통로를 따라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인프라구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결성됐다.

두만강의 교통 회랑은 동북아지역의 먼 지역과 외부 국가들을 연결하려는 꿈으로서 오랫동안 치부되어 왔었으나 이제 그 실현이 머지않았다. 중국은 이 회랑에 표준 4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의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화물의 흐름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직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에 접근하려는 도전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국경무역과 중계무역의 주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으며,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열렸다. 2000~2007년 동안 남북한 간의 역사적인 대화 성사 이후에 남북 간에 철로와 고속도로를 하나로 잇는 데 있어 일부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나, 뒤이은 남북한 간의 냉각이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의 성사를 방해했다.

10년 전에 두만강 경제지역에서의 투자가 상당한 정도로 상승했다. 현재 한국, 일본, 태국, 미국 등 국가의 직접 투자가 13억 달러에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달한다.¹⁵⁸ 전문가들은 첫 10년 동안의 투자 계획이 4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UN의 전문가들은 GTI가 아시아-태평양 경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영향이라는 견지에서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 프로젝트들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¹⁵⁹

더 나아가 10년 전에 작은 수준의 프로젝트였던 두만강 프로젝트가 오늘날 동북아에서 경제협력을 위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촉진시키려는 견고한 제도적 배경에 입각하여, 동 지역에서의 더 나은 지정학적·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전체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훌륭한 전망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는 환경문제에 대해 더 나은 이해와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관광객의 유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환경 재단(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에 5백만 달러가 책정된 바 있다. 프로젝트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2000~2007년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 북한의 세계를 향한 점진적인 개방, 특히 서구 유럽 국가들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립
-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1999년 북한 방문,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한반도 안보에 자극을 줌.
- 북한, 아세안(ASEAN)지역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
- 유럽 기업들의 북한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의향

¹⁵⁸- “Financing Closer Economic ties in Northeast Asia: The Case for a New Financing Facility,” UNDP, 1999.

¹⁵⁹- *Kommersant* (12 December, 1992).

- 일본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평화협정과 양자 간 및 국제적 문제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에 대한 미·북 간 대화를 지속시키려 한다.
- 일본과 한국 간의 협력 증대
-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 증대

반면에, 21세기의 첫 10년의 후반부에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은 세계경제의 부정적 경향과 회원 국가들의 정책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쯤 하여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는 대부분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자본을 옥죄고 있다.

더 나가서, 다른 다자적 프로젝트와 같이 GTI는 북한의 핵실험, 한반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6자회담의 종료, 남북한관계의 악화와 같은 새로운 사태의 전개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프로젝트의 개념 또한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는데, ‘대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에서 ‘소 두만강 경제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더욱이 ‘동북아 지역적 발전지역(North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으로까지 변했다. 이후에 이 개념은 러시아와 북한이 인프라구조 구축을 위해 300억 달러를 출연하여 야심 찬 ‘소 홍콩(local Hong Kong)’을 추진하려던 계획에서 축소되었다.

프로젝트의 지난 20년을 요약하는 데 있어, 이처럼 일단 약속됐던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동결되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수행은 아직까지도 실제로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방의 국지적인 발전을 위한 개별적인 프로젝트들만이 있었을 뿐이고, 통합된 프로젝트의 국제적 운영을 위한 합작 계획과 더불어 통합적인 지역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하게 언급해야 한다. 이것은 개입된 국가들의 경제적 ‘비중’이 다르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프로젝트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나라의 작고 먼 지역에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작은 주변부의 프로젝트만 -몽골,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초국경적 교통, 동해에 1억 톤의 연간 능력을 지닌 항구를 건설하려는 계획- 실제로 진행되었다. 몽골, 중국, 러시아 3국 간 교통로는 몽골의 고비사막 동쪽 마을에서 시작되어 중국의 내몽골 자치지역과 지린성을 가로질러 두만강 골짜기에 있는 러시아 연해주의 남쪽 끝 동해 연안에서 끝난다.

사실, 러시아 철도합자회사는 북한이 라진에 연간 200,000TEU를 거래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해상 터미널 건설을 시작하자는 합의가 있었을 때인 2008년 4월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고자 했다. 합의와 더불어 2008년에 러시아는 두만강-라진을 연결하는 철도의 55km에 달하는 가장 긴 구간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 가능성 연구를 진행했다. 이 지역에서의 탐사적인 작업은 2001~2003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북한 전체 철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시베리아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통합의 잠재성은 서울,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약속 중인 또 다른 프로젝트는 러시아 국경에 있는 하산(Khasan)역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 4월에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당국과 양 국가의 수뇌부가 서명한 협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하산과 라진 터미널을 연결하는 54km 구간의 철로를 재건설하기로 했으며, 이 구간은 더 연장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라손 콘트란스(Rasonkontrans)’라는 이름의 합자회사가 2008년 여름에 설

립됐다. 이 프로젝트의 러시아 쪽 파트는 RZhD 무역합자회사(RZhD Trading House Joint Stock Company)가, 북한 쪽은 북한의 라선 자유 경제지역의 일부로 등록된 ‘라진항 터미널(Rajin Sea Terminal)’이 대표하고 있다. 현재 모든 공식 절차를 마치고 북쪽으로 철도의 북쪽 지역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와 장비가 이송 중이다. 프로젝트의 이 영역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¹⁶⁰

한반도 종단철도는 러시아, 남북한, 중국 간에 화물 흐름을 개선할 것이며, 또한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향하는 화물의 환승로로 사용될 수 있다. 부산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일부는 이 철도 노선으로 향할 것이다.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지역들과 훈춘-하산-두만-라진 노선을 잇기로 한 제안은 대안적인 수송화물 노선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합자 벤처가 북한의 라선 경제특구 안에 만들어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토지와 인프라구조의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 모든 중요한 사업을 GTI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GTI가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간 기구로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6. 러시아와 다른 GTI 회원 국가들

두만강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자신의 국가이익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며, 러시아와 다른 회원 국가들과의 협력은 균형적이고 실용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처음에 러시아 정부는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이후에 러시아의 관심이 감소했다. 1990년대에 개념

¹⁶⁰- “Some Problems of Russian-Chinese Border Demarkation, 1991~1997,” *Articles and Documents* (Vladivostok, 1997).

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많은 러시아의 경제학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해상의 항구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바이칼-아무르 철도에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중국의 동북부의 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¹⁶¹ 두만강 프로젝트가 ‘거대한 블라디보스토크(Greater Vladivostok)’와 같은 다른 프로젝트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¹⁶²

7. 중국과 GTI

중국은 두만자유경제지역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데 많은 조건을 제시해왔다. 1995~1998년에 중국 공산당은 두만강에서 훈춘으로 건설이 예정된 내부의 항구를 통해 자유 항행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두만강의 유속과 깊이로 인해 기술적인 적용을 할 수 없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하산-투먼(Tumen)-울라(Ula) 지점을 잇고 자유항행한다는 구상도 어렵다고 판명됐다. 그래서 훈춘에 내부 항구를 만든다는 계획은 1998년에 거부됐다.¹⁶³

그 다음 중국의 제안은 광폭이 1,435mm의 훈춘-자루비노 철도를 건설하는 데 러시아를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는데, 이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자루비노 항구를 임대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러시아는 인접 국가들과의 소극적인 통합을 주창하면서, 두만강 프로젝트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는 자신의 영토적 통합성 혹은 주권에

¹⁶¹- “Problems of Demarcating the Russian-Chinese Border: 1991~1997.”

¹⁶²- *Kommersant* (16 December, 1992).

¹⁶³- <<http://www.imb.dvo.ru>>.

위협을 미치게 되거나 러시아 영토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통제하게 될 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안도 거부했다. 이것이 왜 중국에 유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요소인 러시아의 철도는 실제로 교통 회랑 내에서만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해상 터미널이 프로젝트에 참여할지의 문제는 격렬한 논의의 대상이다. 러시아(포세트와 자루비노), 혹은 북한(라진)이 될지의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철로는 라진-동 지역 내 가장 큰 북한의 항구로서 러시아의 지방 터미널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고, 2,510m 길이의 접안 정박과 30,00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음 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화물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는데, 이것의 대부분은 조만간 두만-라진선을 통하거나, 철도로 이송하거나, 훈춘 국경선을 넘거나, 러시아의 지방당국이 관장하는 Land Corridor Primorie-2를 통해서 이송이 가능하다.

아마도 라진항의 환적 기능의 성공적인 발전은 두만강 프로젝트의 다른 부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¹⁶⁴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철도를 이을 수 있는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인데, 두만자유경제지역에 관한 협정도 2015년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라진의 실패가 분명해지면, 전망이 불투명해지므로 기존 협정을 연장하거나 재서명할 가능성이 없다.

¹⁶⁴ “D.P.R. Korea’s Rajin-Sonbong Economic & Trade Zone: Investment & Business Guide: Golden Triangle: Rajin-Sonbong,”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of the DPRK, *Collection of laws & regulations* (Juche 88, 1999).

8. 두만강 프로젝트와 한국

한국에 따르면, 효율적인 운영에 관심을 갖는 모든 참가국들 간의 협력의 정도와 지역 협력을 위해 적합한 방향성을 찾는 데 두만강 프로젝트의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일관된 지지자들 중 하나였다. UNDP 통제 하에서 특별신탁기금으로 2백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이 기금의 중요성은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의 지원에 대해 보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참가국들이 국경을 개방하고 무역 연계성을 확대하면서 여행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인 1990년대에 대단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은 프로젝트의 다른 참가국들처럼 두만 지역에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북한은 라진-선봉, 몽골 동부, 러시아의 연해주 해안), 더욱 공개적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헌을 했다.

한국은 2010년 6월 23~25일에 부산에서 전문가 세미나, GTI 교통 이슈들에 관한 특별 위원회, 부산 항만터미널에 대한 조사여행 등 GTI 회의를 주재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GTI 교통 프로젝트가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문제의 실제적인 상태, 프로젝트의 전망, 회원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 교통 회랑 개발, 합작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조정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다. 특별 우선 교통 프로그램이 채택되었고, 여기에는 2010~2012년 동안 추진할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다.

- ‘프리모예1’과 ‘프리모예2’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동북아 내에서 무역과 교통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

- 교통 회랑을 이동하는 점검계획
- 초국가적 조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실무 관료 회의

일본이 합류하기 위한 특별 GTI 회의가 비정부업무 형식으로 승인되었다.

9. 두만강 프로젝트와 북한

2009년 12월, 북한은 2008년 11월에 참여를 단념했던 이후에 처음으로 두만강 프로젝트에 예기치 못하게 다시 참여했다.¹⁶⁵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0년 3월 설립한 북한국가개발은행(North Korean State Bank for Development)이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공인된 100억 달러의 자본금 중 70%를 국가가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되었다. 나머지 30%는 대풍그룹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할당될 것이다. 이 소식은 경제원조로 중국이 북한에 100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는 루머를 대부분 일소해버렸다. 외국의 분석가들은 북한의 프로젝트 복귀를 다루면서 협상 과정을 재개하려는 목적에서 돌아와 중국의 경제적 원조를 얻어내는 하나의 가능한 형태로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UNDP와 고위 국제적 인사들이 후원하는 두만강 프로젝트가 2009년 5월에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주도로 북한을 제재하려는 목적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 이후부터 참여해 온 두만강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 한다.

¹⁶⁵- <www.tumangan.ru>.

이에 대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으로 나온 최근의 UN 결의안 같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분노로서 북한의 행동을 설명하는 외교가의 추측이 나돌았다.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프로젝트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라진 터미널을 개발하는 데 드는 투자 액수가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북한의 철회에 대한 한 가지 더 가능한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스스로 고립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10. 몇 가지 결론

가장 회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두만강 프로젝트는 모든 회원 국가들에게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발전 이외에 다른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범세계적인 통합과정은 이러한 짝짓기를 객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 두만 이니셔티브는 동북아에서 지역화와 제도화를 위한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실행의 급박성을 더하고 있다. 두만강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의 비용 효율성 보다는 일부 회원 국가들의 모순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연유하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두만강 실험은 회원 국가들이 생존하고, 시장과 국가계획 경제의 다른 규모와 모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잠재성을 검증하는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누가 회원 그룹들 중에서 ‘리더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

반면에 동북아는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세계 엑스포, 일본에서의 G8 정상회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다가올 APEC 정상회의 같은 글로벌 이벤트의 개최지로서 위상을 누리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두만강 프로젝트에의 러시아의 참여는 외국투자자와 혁신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유도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력 확대는 전력, 석유와 가스 공급을 더욱 요구 한다. 반면에 중국, 한국과 북한의 수입 요구는 다르다. 현재 러시아는 가스와 석유 수출을 위해 거대한 인프라구조를 건설 중이다. 그것의 가장 고도로 설계된 프로젝트인,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은 최근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러시아의 터미널 지점인 스코보로지노(Skovorodino)를 연결했다.

외국과의 무역과 산업적 통합 부문만큼 수송영역에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이 지역 내의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인 수송과 하부구조를 건설하려는 회원 국가들의 동기를 자극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 통합과정이 느린 속도로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 내 상호이익은 불분명하다. 아직 거대한 잠재성이 남아있다. 몇몇 주도적인 역내 국가들의 산업발전과 그들 국가의 지역 내에서 상대적인 경제력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명백한 수직적 노동 분화가 산업의 구조를 규제하고 기회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이익을 줄 수 있다. 상호 보완적인 경제의 속성은 기술, 자본, 에너지와 광물 자원, 인적 자원, 중공업, 농업, 경공업 등에서 모든 국가들 간의 협력의 배경을 생성한다. 두만 지역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의 중심지로서 무역과 제조업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거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동아시아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러시아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하고자 하는 배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통 회랑을 건설하고 자원(석유, 가스, 목재,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러시아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파트너들을 찾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두만강 프로젝트는 다른 이웃국가들의 이익과 외부적 협력을 하는 데 러시아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기존 프로젝트의 양자주의적인 기본 구조를 진정으로 통합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상생관계로 바꿈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대한 태도를 재고할 적기가 지금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Torkunov, A. V. (ed.). *Energetic Dimen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in East Asia*. Moscow: MGIMO, 2007.

2. 논문

Yacheistova, Natalia. “Tumangan: In the Epicentre of Northeast Asia.” online version of article published in *The Business World*, Russia-China, N1, 2008.

3. 기타자료

Luzyanin, S. G. East Policy of Vladimir Putin. Russian’s Return to ‘The Great East’(2004~2008). Moscow, 2007.

Zabrovskaya, L. V. “DPRK in the Era of Globalization.” Vladivostok, 2006.

“D.P.R. Korea’s Rajin-Sonbong Economic & Trade Zone: Investment & Business Guide: Golden Triangle: Rajin-Sonbong.”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of the DPRK. Collection of Laws & Regulations. 1999.

“Financing Closer Economic Ties in Northeast Asia: The Case for a New Financing Facility.” UNDP, 1999.

“Some Problems of Russian-Chinese Border Demarcation, 1991~1997.” Articles and Documents, 1997.

I

II

III

IV

V

VI

VII

VIII

“The Korean Peninsula: Time of New Challenges.” Papers presented at the 13th Academic Conference of Russia and CIS’ Koreanists. Moscow, 30~31 March, 2009.

“Tumangan: A Long-Term Political and Economic Project for North East Asia.”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Moscow: Russian Academy of Science, 2002.

Kommersant.

Tumen Update.

<<http://www.dniimf.ru>>.

<<http://www.tumenprogramme.org>>.

<<http://www.imb.dvo.ru>>.

VIII. 러시아의 북극 전략

김석환(Kim, Seok Hwan)



1. 북극 및 북극해 지역이 러시아에 의미하는 것

러시아는 최근 들어 북극 및 북극해 지역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전략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바다, 육지, 공중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적, 군사적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북극 및 북극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기득권을 확고히 하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극 및 북극해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극을 활용하는 경제·상업적 가능성이 지구 온난화 및 심해 탐사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극권에 매장된 막대한 천연가스 및 석유 그리고 기타 광물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상업적 채굴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역시 기후 변화와 함께 북극지역의 북동항로(러시아 관할 항로) 및 북서항로(캐나다 관할 항로)의 결빙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 세계 경제 및 군사전략에 큰 변화를 초래할 새로운 물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북극 주변국, 이른바 북극 위원회(Arctic Council) 소속 8개국¹⁶⁶ 및 북극에 전략적 이해를 표명하고 있는 중국, 유럽연합,

¹⁶⁶ 북극위원회 소속 8개 회원국은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캐나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이다. 이들은 북극을 주변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본인들끼리 영토 획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북극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국가가 참여하는 개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다. 2008년 5월 그린란드 일몰리사트에서 개최된 북극해 연안 5개국 회의는 이러한 이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시 회의엔 8개 회원국 중 일명 Arctic 5에 속하지 못하는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초대받지 못했다. 또 일몰리사트 선언문은 “우리는 북극해를 위해 새롭고 포괄적인 국제법 체계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모두에 새로운 전략적 고려를 요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북극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활용했던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특히 더 심각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의 1/3 이상이 북극권에 연접해 있는 러시아는 지리·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왕성한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 및 타국의 대응전략 등에 연동해 자국의 기존 이익 및 미래 이익을 보호할 안보·외교적 필요성 모두를 고려해 종합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 실제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8년 9월 러시아 안보위원회(Security Council)에서 밝힌 것처럼 북극지역은 이미 러시아 정부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지역에서 GDP(국내총생산)의 20% 정도와 해외수출의 22% 정도를 산출해내고 있다.¹⁶⁷ 이 때문에 러시아 지도부가 생각하는 북극지역에서의 국익은 경제, 정치, 군사, 심리적인 요소가 모두 개재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적 개념에서의 북극에 대한 생각은 이미 제정 러시아 시절 때부터 비롯된 것이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다.¹⁶⁸

최근 러시아의 북극전략에 대한 가장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담은 문건은 지난 2008년 9월에 채택된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의 기초(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

¹⁶⁷- <http://archive.kremlin.ru/eng/text/speeches/2008/09/17/1945_type82912_type82913_206564.shtml>.

¹⁶⁸- 제정 때부터 러시아 지도부는 북극지역을 단순히 과학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영국 등 서방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무역로를 확보한다는 군사·물류적 측면과 불세비키 혁명 이후에도 역시 소련에 대한 반혁명 세력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는 내해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존 전략적 측면, 냉전기에는 북극 항로를 활용해 미국 및 NATO 주력군에 대한 기습 노선으로서의 최적·최단 루트 개발 등의 필요성 때문에 북극은 항상 러시아 지도부의 관심 지역이었다.

ней шую перспективу)’이다. 또한 ‘국방전략 2020’에도 역시 북극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 이러한 문건을 통해 피력된 러시아 지도부의 북극 전략은 우선 이 지역에 위치한 막대한 미개발자원에 대한 더 원활한 이용 및 소유, 러시아 국부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북극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북극항로(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주로 북동항로)¹⁶⁹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 및 상업적 활용도의 증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러시아 국의 수호를 위한 군사 전략적 안전 조치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들어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령 북극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상의 배려 및 슈토크만 해저 유전 개발 등과 같은 북극해 연안 해상 유전 개발을 위해 외국 투자의 유치와 기술 제휴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군사·외교적으로는 노르웨이 등 주변국들과 영토선 획정 협정을 조속히 타결 지으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유엔해양법(UNCLOS) 비준과 이 법에 기초한 추가 영유권 인정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북극 및 북극지역에서의 군사 안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대의 창설 및 훈련 등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지난 2007년 8월 2일 북극 해저 로도

169. 북극항로는 크게 북동, 북서항로로 나눈다. 북서항로는 베링해에서 캐나다령 북극 섬들을 따라 태평양 지역으로 연결되는 항로로 캐나다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북극해 연안을 따라 연결되는 항로로 베링해에서 무르만스크 지역까지 연결된다. 일명 북극해 항로라고도 하며 러시아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는 북극해 항로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러시아의 북극해를 이용해 수많은 북극지역 소해를 활용한 루트로 국제법적 지위하에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를 북동항로로 칭한다. “The Northern Mariner/Le Marin du nord,” *The Canadian Nautical Research Society*, Vol. 3, No. 2 (April 1993), pp. 1~17, <http://www.cnrs-scm.org/northern_mariner/vol03/tnm_3_2_1-17.pdfemd> 등 참고.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노소프 해령(Lomonosov Ridge)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러시아 국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선전 활동 및 과학자들을 동원한 과학적 탐사 활동도 적극화 하고 있다.

2.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역사적 관심

러시아의 북극 및 북극권 지역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러시아가 북극 및 북극권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역사는 제정 러시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25년에는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 개설에 대한 아이디어가 황실 통역관이자 외교관이었던 게라시모프(Dmitry Gerasimov)로 부터 나왔고, 이미 12세기 이전부터 북극지역 원주민인 포모르(Pomors)들과 코사크(러시아 어로는 까자크)들에 의해 북극해 노선을 활용한 수렵과 무역 등이 이루어진다. 황실이 개입한 본격적인 탐험 중 대표적인 것이 포트르 대제가 덴마크 출신의 베링을 탐험대장으로 삼아 캄차트카 지역 탐험을 실시해 오늘날의 베링해협 등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에도 러시아 제국 지도부의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900년대에 들어서서 황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북극해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타이무르(Taymur)호 등 두 척의 쇄빙선을 만들어 베링해와 예니세이 주변을 탐험하고 과학적 탐사를 완료해 1930년대 소련의 탐험가들이 완벽한 항로를 개설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¹⁷⁰

¹⁷⁰- William Barr, "A Tsarist Attempt at Opening the Northern Sea Route: The Arctic Ocean Hydrographie Expedition, 1910~1915," *EPIC* (1975), <epic.awi.de/Publications/Polarforsch1975_1_6.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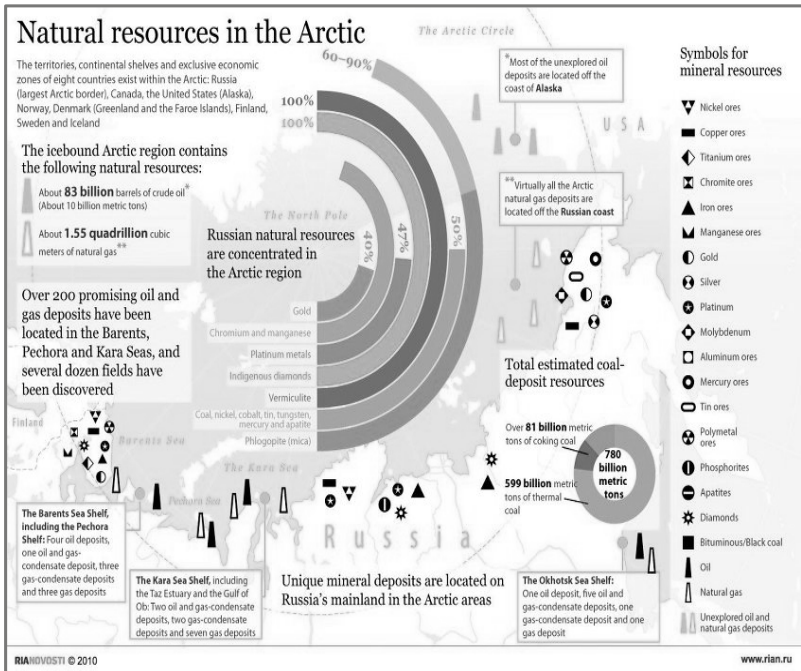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 지도부도 북극지역 및 북극해 항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 당시 소련 지도부의 관심은 소련의 생존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 당시 소련은 최초의 공산혁명을 이룩해 반혁명 세력 및 외국과의 대립에서 안전한 통행로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때문에 외국의 침입과 영국 등 해양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물자를 수송하고 이동할 수 있는 항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이 북극해였다. 소련 당국은 북극해지역 및 북극지역을 소련의 내해처럼 활용하고자 했다. 소련 지도부는 이 때문에 북극 탐험대의 파견에 막대한 예산과 관심을 쏟아 부었고 이러한 노력은 곧 결실을 보았다. 1932년 소련의 전설적인 탐험가 오토 슈미트(Otto Yulievich Schmidt) 교수가 이끄는 팀은 세계 최초로 쇠빙선의 도움 없이 아르한겔스크에서 베링해까지 북극해 항로를 완주하는데 성공한다. 이후 몇 차례의 시험 운항 후 소련은 1935년부터 공식적으로 북극 항로 개설(오늘날의 북동항로)을 선언했고 발트함대의 일부가 역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1936년부터 이 항로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소련은 제2차대전 말 대 일본전쟁 참전 루트 중 하나로 이 북극지역 항로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극지역은 제정 러시아 때는 물론이고 소련 시절을 비롯해 현재까지도 항상 최고 통치자의 관심 지역이었다. 제정 때는 황제가, 소련 시절에는 레닌, 스탈린, 불가린, 고르바초프 등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관심을 표명했다. 소련 해체 후 한때 우선 관심 순위에서 밀린 적이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등장 이후 다시 국가 최고 지도부의 관심 아젠다로 재부상해 러시아의 ‘국방전략 2020’과 국가안보위원회의 전략문건에 “북극지역은 러시아 국익 수호의 주요한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¹⁷¹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러시아가 북극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무엇보다 러시아 영토의 1/3 이상이 북극권의 북쪽을 따라 펼쳐져 있고 막대한 자원과 부의 원천이 아래의 <그림 VIII-1>에서 알 수 있듯 역시 북극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림 VIII-1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 지역 매장 천연자원 현황



출처: RIA Novosti.

¹⁷¹ “2020년까지의 러시아 국가안보전략(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http://www.scrf.gov.ru/documents/1/99.html>>;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의 기초(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http://www.scrf.gov.ru/documents/98.html>>에서 러시아는 북극과 연관된 전략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8년 9월 러시아 안보위원회(Security Council)에서 밝힌 것처럼 북극지역은 이미 러시아 국부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 러시아 국내총생산의 20% 정도와 해외수출의 22% 정도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⁷² 또한 이러한 비중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와 함께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북극지역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 20%의 천연가스 액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⁷³ 또한 북극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유전 10개 중 9개, 가스전 50개 중 44개가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보다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을 국가적으로 가장 먼저 쏟아 부었고 현재에도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밀어붙이고 있다.

러시아는 1910년 북극해(northern sea route, 오늘날의 북동항로) 지역탐사와 지도 제작을 위해 함대를 파견했고 1916년엔 북극 해안지역 해양지역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1926년 4월에는 북극점을 경계로 하여 베링해협을 포함한 지역이 러시아 영토임을 다시 선언했으며 슈미트(Otto Schmidt), 파파닌(Ivan Papanin) 등 영웅적인 탐험가를 앞세운 탐험대도 수시로 파견했다. 슈미트는 1929년 프란츠 요제프 제도를 정복했고 1934년 겨울엔 첼유스킨 호가 북극해의 브란겔라 섬 동쪽에 간헐지만 2개월을 버텨내 소련인들을 열광시켰다. 1937~1938년 사이엔 파파닌이 3명의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이제는 북극탐사의 전설

¹⁷² <http://archive.kremlin.ru/eng/text/speeches/2008/09/17/1945_type82912_type82913_206564.shtml>.

¹⁷³ Jackie Grom, "Arctic May Boost Oil and Gas Reserves," *Science NOW* (28 May, 2009), <<http://news.sciencemag.org/sciencenow/2009/05/28-02.html>>.

이 된 ‘북극-1(North Pole-1)’ 기지에서 234일 동안 머물며 북극에 대한 정밀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북극-1’ 기지는 움직이는 얼음 위에 가설된 것으로 소련은 이러한 이동기지를 이후에도 수십 개 이상 건설하면서 과학적 탐사를 더욱 강화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이자 북극문제 특사인 칠링가로프(Chilingarov)가 과학자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북극해의 심해 바닥인 로모노소프 해령(Lomonosov Ridge)에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 국기를 게양했다. 러시아 지도부의 이러한 활동은 국가적 자존심과 과학적 진보의 상징이자 국력의 과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지도부는 북극을 더욱 자주 자신들의 외교안보 및 과학 진보의 상징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학적 탐사와 함께 소련은 북극 및 북극해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제어할 목적으로 수많은 평화공세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1958년 당시 소련 총리이던 니콜라이 불가린(Nikolai Bulgarin)이 내놓은 북유럽 지역에 대한 ‘원자 및 수소무기 자유지대(Free of Atomic and Hydrogen Weapons)선언’과 1987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내놓은 ‘무르만스크 선언(Murmansk Initiative)’이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무르만스크 선언에서 북극을 평화지대로 하자는 주장 등 6개항의 선언을 내놓았고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주장은 핀란드의 지지를 얻어내 이후 ‘북극환경보호전략(AEPS,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AEPS는 1996년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로 발전한다.

북극해 항로는 소련의 내해처럼 냉전 시절 소련에 의해 독보·독자적으로 운용됐다. 1987년 이 항로를 통해 운반된 화물량은 660만 톤이었다. 이 해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제안인

무르만스크 선언을 내놓았다. 소련의 북극해 항로(북동항로) 운항을 서방 선사에도 개방하겠으며 소련의 쇄빙선을 이용해 운항 편의를 제공할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함은 국제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매우 조심스럽게 첨가해 놓는 것을 망각하지는 않았다.

북극지역에 대한 소련의 이러한 관심은 소련 해체기의 혼란과 러시아 지도부의 국가안보 및 국가발전에 대한 종합전략의 수립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한때 소강상태에 있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통령 선출 이후 다시 살아나 오늘날의 러시아 지도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9월 12일엔 러시아 국가안보관련 최고위급 회의체인 안보위원회 특별회의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kolai Patrushev) 서기를 비롯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Anatoly Serdyukov)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안보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극에 위치한 프란츠 요세프 제도의 나구르스카야 기지에서 열리기도 했다.¹⁷⁴ 냉전 때엔 핵무기를 탑재한 군용기 등이 드나들며 활발히 기능했던 나구르스카야 기지는 소련 해체 후 2009년까지는 군인 30명과 16명의 과학자, 그리고 6명의 기상학자가 근무하면서 KGB의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보고를 하는 사실상 격리된 기지였다. 그런데 이곳에 러시아의 최고 안보관련 인사들 수십 명이 모여 특별안보회의를 하고 북극의 자원과 관련한 러시아의 국익 수호를 선언한 것이다.

러시아 지도부의 북극전략이 이렇게 적극화하는 과정은 주변 국가들의 북극 관련 활동이 가속화하는 것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주변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을 입안하는 한편 군사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¹⁷⁴- *ITAR-TASS* (12 September, 2008).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2009년엔 북극 담당 특수 부대를 발족시켰으며, 이를 더욱 확대시켜 2020년까지는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산하에 북극 전담의 특별군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도부의 관심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북극지역에 대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수시로 진행했다. 여기다 노르웨이 등 주변 국가들과 북극해 주변 영유권문제를 타결 짓기 위한 협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0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푸틴 총리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과학자들과 함께 야쿠티야(사하) 공화국에 속한 북극해 연안 사모일로프스크 섬의 북극연구기지 와 캄차카 반도의 크로노츠키 자연보호지역 내에 있는 올가 만(灣)에서 야생 고래 수색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2010년 7월엔 지난 수십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탐사활동을 선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러시아 탐사단이 2010년 7월 이후 3개월 동안 과학 탐사선 ‘아카데미크 표도로프’ 호를 타고 북극해에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이 탐사선에는 과학자들 외에도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도 승선하며 원자력 추진 쇄빙선 야말 호도 탐사활동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약 65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탐사활동을 통해 북극해 해저가 러시아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임을 입증할 계획이며 2011년 유엔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탐사단을 이끄는 과학자인 블라디미르 소콜로프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탐사활동으로 수집된 자료는 러시아의 북극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엔 청원서 작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¹⁷⁵ 이처럼 러시아는 최근 들어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¹⁷⁵ “Ископаемая потребность ‘Академик Федоров’ отправляется расширять границы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итязаний России,” *Bremya*, <<http://www.vremya.ru/2010/132/12/258999.html>>.

있으며 이는 2011년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북극해 지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추가 확장 요청과 연관되어 있다.

3. 러시아의 북극 및 북극해 전략

가. 경제적 요인에서 시작해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전

위에서도 언급했듯 러시아는 제정 시절부터 북극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이 자신들의 영역이자 이익권(sphere of interes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이미 제정시절부터 시도했고 이는 오늘날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북극지역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관심을 북돋아 북극지역 개발 및 북극항로 개설에 대한 의지를 갖게 만든 주요한 동인은 처음엔 경제적 인 것이었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 금광 등을 소유한 기업인들의 상업적 이익이 이를 자극했다. 20세기 초기엔 1904~1905년의 러·일전쟁과 같은 전쟁 기간 동안에 발생한 막대한 추가 물자 수송의 필요성에 의해, 1930년대 이후엔 스탈린의 강력한 경제개발전략에 따른 자원개발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시베리아 지역의 거주 주민 증대 필요성 등이 작용한 때문이었다. 이후 냉전기엔 이러한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히 미국 및 NATO 국가들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군사 전략적 필요성이 첨가됐고 석유, 천연가스, 니켈, 다이아몬드 등 전략자원의 채굴지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요인들은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의 결과 점점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는 국가발전전략의 기초이자 글로벌 경쟁력 증진의 한 축으로

I

II

III

IV

V

VI

VII

VIII

서의 중요성을 갖게 돼 단순한 항만이나 항로 건설의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국가전략으로 입안되기에 이른 것이다.

러시아의 북극지역 및 북극항로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 관심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의 로렌스 스미스(Laurence C. Smith) 교수가 ‘새로운 북부(New North)’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저서에서 북위 45도 이상 지역의 북극권의 미래를 결정지을 요인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인구증가와 이민 △세계화 △기후변화 등 4가지 요소를 들고, 이를 토대로 2050년을 전망¹⁷⁶한 것과 비슷한 결정 패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시베리아 지역에 금광을 소유한 기업인들은 1860년대에 이미 북극권의 예니세이 강 근처에 금광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들과 관계를 맺은 영국의 해운회사들이 금과 식량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영국에서 시베리아의 북극지역에 위치한 예니세이 강과 오비강 입구까지 실험적인 항해를 시도한다. 이후 영국 및 유럽 지역에서 시베리아 지역으로 기계류, 차(茶) 등을 실어냈고 그 반대로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금과 식량 등이 수송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북극해 항로(오늘날의 북동항로)의 전 구간이 가동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부분적으로만 가동을 했다. 이러한 북극해 항로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계기는 러·일전쟁(1904~1905년)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일본에 대항하는 뤼순 기지 등에 막대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해야 했다. 그 결과 막 완성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군수물자 수송에 의해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르자 시베리아 및 북극 지방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수송로가 절박해졌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정부는 국가차원으로

¹⁷⁶- Laurence C. Smith, *The World in 2050: Four Forces Shaping Civilization's Northern Future* (Dutton Adult, 2010).

는 처음으로 카라해를 활용해 선박으로 시베리아 지역에 식량을 수송했다. 전쟁이 끝나고 한동안 국가적 관심이 떨어진 반면 북극해 항로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상업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1911~1916년 북극해 지역의 상업적인 활용의 전기가 마련된다. 이 기간 동안에 정력적으로 북극해 항로를 개발한 인물은 노르웨이인 요나스 리에트(Jonas Lied)였다. 그는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물동량 수송에 정력적으로 임했고 그 결과 시베리아 지역 목재 채취 및 가공권을 얻었다. 그는 예니세이 강 근처에 제재소와 함께 펄프 공장을 건설했으며 자신의 물건을 유럽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북극해 연안과 예니세이 강 입구를 따라 무선 송신소를 설치하는 등 북극해 항로 지역의 상업화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예니세이, 오비, 콜리마 강 등을 활용·연계한 오늘날의 북극해 항로 대부분이 비록 원시적이지만 가동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탈린이 정열적으로 추진한 자력갱생의 5개년 계획은 북극해 항로 개발에 대해서도 적용돼 외국 상업회사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대신 국가가 나서서 이를 개발 전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북극해 항로 및 북극지역 개발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구인 글라브세브모르푸티(Glavsevmorputi)가 1932년 설립됐고 오토 슈미트 등의 정열적인 헌신에 의해 유럽 러시아 지역에서 레나 강까지 그리고 1935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콜리마 강 어귀까지 화물이 운송되는 등 오늘날의 북극해 항로(북동항로)의 대부분의 기초가 완성됐다.¹⁷⁷

이처럼 현재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전략의 상당부분은 소련시절에 그 기초가 닦였다. 소련은 북극에 위치한 지하자원 및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탐험과 함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1930년대에 이미 보르쿠타와 노릴스크에 대규모

¹⁷⁷- “The Northern Mariner/Le Marin du nord,” (April 1993).

광산채굴 시설이 완료됐다. 스탈린은 공업화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오늘날 소련의 주요 전략 산업인 석유 채굴 및 광업의 기초를 북극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착촌 건설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2백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북시베리아 북극권 지역의 정착촌과 광물자원 채굴을 위한 기지에 이주했다. 스탈린은 특히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이 강해 강제수용소 등을 활용해 이 지역에 노동력을 투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표 VIII-1>에서 볼 수 있듯 북극지역에 주민 5천 명 이상이 사는 46개 이상의 도시가 건설됐고¹⁷⁸ 세계 최대 규모의 야금공장, 탄광, 핵실험 시설 등 각종 중공업 시설들도 건설됐다.

● 표 VIII-1 북극권 주변 도시들과 주민 수

(단위: 1,000명, 2007년 1월 기준)

| 주민수 | 도시 |
|-------------------|--|
| 10만 명 이상~40만 명 미만 | 무르만스크(317), 노릴스크(209), 노브이우렌고이(177), 노야브르스크(110) |
| 4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 | 보르쿠타(77), 아파티투(62), 세베로모르스크(54), 몬체고르스크(49), 나딤(48), 살레카르드(40) |
| 2만 명 이상~4만 명 미만 | 칸다락샤(38), 무라블렌코(37), 키로프스크(31), 라비트난기(27), 두딘카(23), 올레네고르스크(23), 구브킨스키우(22), 타르코살레(20) |
| 5천 명 이상~2만 명 미만 | 28개 마을 |

¹⁷⁸ “Climate change impact on public health in Russia,” UN (May 2008). <www.unrussia.ru/doc/Arctic-eng.pdf>.

동시에 과학적 탐사와 선전을 위한 탐사작업에도 열심이어서 첼유슈 킨 호나 시브라코프 호 등을 활용한 북극권 탐사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시브라코프 호는 1932년 세계 최초로 북극해 항로(북동항로) 전 구간을 쇠빙선의 도움 없이 완주해 무르만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북극해 항로가 여름에 통행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러한 탐사의 결과를 반영해 스탈린과 소련 정부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하는 북극해 항로 중앙 행정관리국(글라브세브모르푸치, Glavsevmorputi)을 설치했다.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행정관청을 유지한 나라는 소련이 처음이었다. 이들은 북극해 항로를 따라 과학기지, 무전기상관측소, 선원과 선장들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을 설치했다. 또한 1950년부터는 상업적 어로도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 VIII-2>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에 들어서는 북극해 항로는 사실상 일 년 내내 가동이 가능한 실질적 항로가 되었다.¹⁷⁹ 소련은 이러한 항로를 활용해 자신들의 물동량을 냉전기 동안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수송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를 국제항로로 개방해 러시아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찾으려 하고 있다.

●표 VIII-2 북극해 항로를 활용한 화물수송량의 변화와 운항 일수의 변화(1935~1987년)

| 연도 | 물동량(1,000톤) | 운항 일수 |
|------|-------------|----------|
| 1935 | 246 | 93일 |
| 1940 | 289 | 93일 |
| 1950 | 503 | 122일 |
| 1960 | 1,013 | 128일 |
| 1970 | 2,400 | 140~150일 |

¹⁷⁹- Jan Drent, "Commercial Shipping on the Northern Sea Route," p. 5; "The Northern Mariner/Le Marin du nord," (April 1993).

| 연도 | 물동량(1,000톤) | 운항일수 |
|------|-------------|-------------|
| 1980 | 4,951 | 연중 내내/서쪽 지역 |
| 1987 | 6,579 | 연중 내내/서쪽 지역 |

스콧 극지 연구소(Scott Polar Institute)의 테렌스 암스트롱(Terence Armstrong)에 따르면 북극해 항로를 활용한 물동량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특징적인 물류로 구분할 수 있다.¹⁸⁰

- 첫째, 카라해의 항구들과 무르만스크 항구를 왕복하는 왕복 물류
- 둘째, 블라디보스토크와 무르만스크를 잇는 북동연안 물류
- 셋째, 무르만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레나 강 입구까지의 물류
- 넷째, 북극지역의 군사 및 과학 그리고 상업 기지들에 대한 보급 물류
- 다섯째,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물류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았던 물류는 카라해 물류였다. 카라해를 이용해 무르만스크를 연결하는 물동량은 대부분 예니세이 강 어귀의 이가르카(Igarka)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서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물동량과 두딘카(Dudinka)항과 무르만스크 항을 통해 서시베리아지역의 석유 및 가스 산업 관련 물품들이 운반되는 두 가지 물동량으로 구분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예니세이는 시베리아지역의 주요한 광물산지인 노릴스크지역에 연결되는 유일한 기차역이 있어 시베리아 및 러시아 북극지역 물류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두딘카와 무르만스크를

¹⁸⁰- Jan Drent, "Commercial Shipping on the Northern Sea Route," p. 5; "The Northern Mariner/Le Marin du nord," (April 1993).

연결하는 카라해의 얼음의 두께는 항상 관심거리였다. 하지만 지난 수십여 년 이상의 관찰과 운용 결과 <표 VIII-2>에서 알 수 있듯 이제 이 항로는 1년 내내 물류가 가능한 항로임이 입증됐고 오늘날 러시아 북극해 물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항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니켈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릴스크 니켈의 주요한 운반 루트이기 때문이다. 노릴스크에서 생산되는 니켈 괴(塊)는 기차로 예니세이로 옮겨져 거기서 다시 두딘카항으로 간 다음 무르만스크 근처의 제련소로 운반된다. 또한 이가르카에서 선적되는 목재는 대부분 여름철에 수송된다. 이가르카는 예니세이에서 다시 북쪽으로 650km나 올라가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서 생산되어 서유럽으로 수송되는 목재의 양은 러시아 목재 수출량의 14%나 되기 때문에 역시 러시아의 상업적 이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항로라고 할 수 있다. 예니세이를 활용해 목재를 수송하는 항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초창기에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 외국 기업가 및 외국 선사들의 노력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외국 선사들의 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계속되었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1962년에 그리스의 선박이 이가르카에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고용된 마지막 외국 선사였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북동연안을 따라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를 활용한 수송은 증대하기 시작했다. 1984년 핀란드에서 제조한 SA-15형 쇄빙화물선이 일본에서 생산된 파이프를 오비 강을 거쳐 북동연안 항로 즉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를 따라 선적했으며 역시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를 따라 무르만스크에서 밴쿠버까지 운항한 기록들도 1979년 이후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아래의 <표 VIII-3>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 상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업항로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가고 있는 북극해 항로(북동항로) 및 북서항로는 향후 10여년 후에는 국제 물류 및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환경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 확실시된다.¹⁸¹

●표 VIII-3 북극해 항로와 극동-유럽 항로 간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거리·비용 분석

| 구분 | 북극해 항로 A | 극동-유럽 항로 B | 비교(A-B) |
|-----------|----------------------|------------------|----------|
| 운항구간 |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암스테르담 | 부산-싱가포르 -로테르담 | |
| 해상거리(NM) | 7,548 | 10,824 | -3,276.0 |
| 해상시간(day) | 20.0 | 22.5 | -2.5 |
| 운항선박 | Ice Class | 일반선박 | |
| 선박건조가 | 기준시가+30% | 기준시가 | |
| 선원비 | 일반항로와 동일 | 일반항로 선비 적용 | |
| 보험료 | 표준 보험료 +25~30% | 표준 보험료 | |
| 연료 소모율 | 표준 연료 소모율+20% | 표준 연료 소모율 | |
| 운임 | 일반항로와 동일 | 일반 운임적용 | |

나. 냉전기 및 그 이후 강조된 군사전략적 요인들

러시아 인들이 북극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듯 처음에는 경제적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의 보장은 곧바로 이를 위한 군사전략적 고려를 수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냉전시절 소련은

¹⁸¹ 황진희, “북극해 항로의 가능성과 과제,” (배재대 사회과학연구소 발표자료, 2010.9.17).

그린란드 서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부대가 소련의 중공업 중심지까지 갈 수 있는 최단 루트는 북극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방어해 내기 위한 전략을 입안하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련은 공군기지를 건설할 만큼의 큰 규모를 가진 섬들을 자신의 영해 내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1952년 소련은 카라해, 랍테프해, 동시베리아해, 축치해, 베링해협 서부가 소련의 영해라고 선포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많은 과학기지와 함께 군사전략적 요충에 대한 검토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소련 지도부의 북극지역에 대한 군사 전략적 고려는 냉전이 고조되면서 점점 강화되어 갔다. 소련은 미국 및 NATO의 군사적 개입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부동항을 확보해야 했던 소련 해군과 군부는 북극해의 무르만스크 기지에서 NATO군의 방해를 받지 않고 1년 내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항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콜라반도의 해군기지에서 바렌츠 해 및 노르웨이 해를 거쳐 나가는 항로는 매우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르만스크 기지도 노르웨이 및 NATO군의 탐지를 피해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항공 과학기술 및 심해 잠수함 개발 기술의 발전은 소련군부에 무르만스크 항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략적 고려를 가능케 했다. 소련 군부는 미국 및 NATO에 대항하는 가장 유용한 전력은 잠수함 및 순항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폭기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러한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소련의 잠수함대는 냉전기 북극 항로를 이용해 수시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접근하는 훈련을 벌여 이 항로가 미국 및 서방 진영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에 타격을 가할 최단·최적 항로임을 입증했다. 특히 북극연안의 두꺼운 얼음 층은 잠수함 탐지를 극도로 어렵게 해 활동이 더욱 활발했다. 항속 거리가 대폭 늘어난 전략 폭격기의 활동도 매우 활발했다. 주로 러시아 중부 불가강변의 앵겔스 기지에서 발진한 러시아 전폭기들은 대부분 순항 미사일 6기를 싣고 비행할 수 있는 기종들이었다.¹⁸² 소련은 이러한 비행을 냉전기간 동안 계속했으나 소련 해체 후 한 동안 예산 지원의 한계와 러시아 지도층의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 저하, 보리스 옐친 행정부 초기의 친서방정책 등의 이유로 러시아군은 한때 이러한 훈련을 중단했다. 러시아 지도부는 1992년 일방적으로 북극상공에 대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정찰 비행 중단을 선언했다. 군부와 러시아 민족주의 세력들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2007년 8월 17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 의해 재개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정책 변경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푸틴은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외치면서 군부가 간절히 원하던 여러 조치들을 재개시켰는데 그 중 하나가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해 북극지역에서 정찰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푸틴은 “러시아의 행동을 다른 나라들이 뒤따르지 않았으며 이는 러시아의 안보에 문제를 야기한다”며 북극지역에 대한 훈련 재개를 선언했다. 이는 북극지역에서 다른 나라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군부의 요구에 대한 푸틴의 화답이었다. 당시 푸틴의 선언은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군인 5천 명, 비행기 120대, 전함 등을 동원해 12일 동안 실시한 훈련 후 나온 것이었다. 이로써 15년 만에 다시 폭격기들의 훈련 및 정찰이 북극지역에서 이루어졌다.¹⁸³ 이러한 훈련에는 12시간 이상씩 제공하면서 훈련하

¹⁸²- 크리스토프 자이들러, 박미화 옮김, 『북극해 쟁탈전』 (서울: 더 숲, 2009).

¹⁸³- “President Putin scrambles bombers,” *Telegraph* (18 August, 2007),

는 폭격기들을 지원하는 공중급유기도 동원됐다. 러시아 군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푸틴의 선언 후 이루어진 훈련의 횟수만도 80번 이상이나 됐으며 2008년 이후에는 한 달에 최소 20~30회 정도의 훈련 비행 및 정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ATO는 당연히 러시아 비행기의 정찰과 훈련이 있을 때 마다 항공기를 발진시켜 대응했다. 또 노르웨이와 캐나다도 역시 북극지역에 대한 군사 훈련 및 정찰활동을 강화했다. 2008년 여름 러시아 군 대변인 코치닌은 러시아는 이러한 정찰 및 훈련 시 전폭기에 단 한 번도 미사일을 싣고 훈련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전폭기를 감시하기 위해 발진하는 NATO의 전투기들도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군 전투 사령관 안드로소프는 러시아 공군의 임무는 날아간 거리만큼 무기를 멀리 수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서방에 대해 북극지역 방어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¹⁸⁴

이러한 선언들은 러시아 지도부의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의 표명과 연동해 이루어진 것이며 지구 온난화의 속도에 따라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다. 2008년 8월 8일, 러시아는 1984년 이후 처음으로 북극지역 정찰활동을 펼치는 러시아 전투기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실험했다. 이 모의 훈련에선 실제로 북극점을 넘어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 진출 훈련이 이루어졌고 훈련과정에서 10기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이 실제로 모의 타격지점을 향해 발사됐다. 러시아 공군 대변인 알렉산더 드로부셰프스키(Alexander Drobyshesky)는 훈련에는 4대의 Tu-160 블랙잭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1560661/President-Putin-scrambles-bombers.html>>.

¹⁸⁴- 크리스토프 자이들러, 『북극해 쟁탈전』.

(Blackjack), 12대의 Tu-95 베어(Bear)-H 전략 폭격기와 14대의 Tu-22 백파이어(Backfire)-C 전역 폭격기들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¹⁸⁵

또한 2008년 8월 러시아 해군도 북극지역 정찰활동을 공식 발표하고 스피츠베르겐 부근 지역도 러시아 해군의 정찰활동 지역임을 선언하고 러시아의 세베로모르스크 호를 이 지역에 파견했다. 또한 얼마 후 미사일 순양함 마샬 유스티노프 호를 북극으로 보냈다. 유스티노프 호는 슬라바 급 미사일 순양함으로 핵폭탄 장착이 가능한 대함 미사일 뿐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 100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다. 이로써 러시아 해군도 1991년 이후 중단되었던 북극지역 정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재개했다. 이 해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라잔 호가 30일 동안 북극점 아래에서 잠수작전을 진행한 것이다.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이 북극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펼친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러시아 해군 및 전략가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극동과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 해협, 캐나다령 배핀 섬과 그린란드 사이의 데이비드 해협,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사이의 덴마크 해협으로 러시아 해군은 유사시 이들 해협을 봉쇄해 미군의 이동과 배치를 차단할 능력을 배양하려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2008년은 러시아의 북극정책이 큰 획을 긋는 상징적인 해였다. 이 해에 들어 러시아군은 육·해·공 모든 군들이 북극지역 방어 및 주변 위협요소를 가정한 종합 훈련계획을 수립해 운용했고 한동안 중단됐던 훈련들을 재개시켰다. 또한 2008년 9월 17일엔 메드베데프

¹⁸⁵ "Russia's strategic aviation holds tactical exercises in Arctic," *Ria Novosti* (8 August, 2008), <<http://en.rian.ru/russia/20070808/70616742.html>>.

대통령이 안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북극은 러시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이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 및 가스 등과 함께 “유럽과 극동 아시아 등 대륙을 연결하는 북극 항로(북동항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극을 러시아의 21세기 발전을 위한 주요한 자원기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목표이며 러시아의 국익 수호를 위해 러시아의 북극지역의 남쪽 국경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를 마무리 지을 것”과 “러시아 대륙붕의 연결 및 확장과 관련한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이슈”라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는 “무엇보다 먼저 러시아의 국익 수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호책을 확실히 하고 두 번째로 이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¹⁸⁶

다. 러시아의 북극전략 문건: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의 기초

메드베데프의 이와 같은 연설 후 러시아는 2008년 9월 18일 안보위원회를 통해 북극관련 전략문건인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의 기초(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를 채택했고 이를 안보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당시 공개된 문건의 주요 내용은 매우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문

¹⁸⁶ <http://archive.kremlin.ru/eng/text/speeches/2008/09/17/1945_type82912_type82913_206564.shtml>.

건 마지막 부분엔 북극지역에서의 러시아 연방 정책의 집행은 3단계의 기간에 나누어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제1단계는 2008~2010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는 지질·지리적 탐색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학술적 탐사 및 기타 조사를 철저히 해 러시아의 북극지역 영토의 영역확정을 확정짓기 위한 자료수집 및 국제적 인증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북극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예산 및 특별예산의 배정 및 외국과의 국제적 협력의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고 에너지 및 하이테크 생산기지 외에 특별경제구역 및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등의 건설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relationship)’을 통해 유망한 투자정책 프로그램의 현실화 등을 기 채택된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북극지역 개발전략의 기초’ 계획 등을 고려해 집행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2단계는 2011~2015년까지로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토적 경제 설정, 즉 로모노소프 해령과 멘델레예프 해령이 러시아의 대륙붕과 연결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법률적 작업을 마무리 짓고 그 기초 하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다 천연자원 및 수산 생물자원에 기초한 북극지역의 경제구조를 재편성(restructuring)하고 물류 역동성에 있어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북극 항로(북동항로)의 안정성, 경쟁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건설 및 운영능력 향상을 이룩하며 북극지역에서의 러시아의 단일 정보망을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단계는 2016~2020년까지로 북극지역이 러시아의 주요한 전략적 자원기지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략적 단계적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달성함으

로써 러시아는 북극지역에서 러시아가 선도적 우월적 세력임을 입증하고자 한다.¹⁸⁷

이러한 이론화 및 명문화 작업과 동시에 2008년 9월 12일에는 러시아 국가안보관련 최고위급 회의체인 안보위원회 특별회의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kolai Patrushev) 서기를 비롯해 아나톨리 세르듀코프(Anatoly Serdyukov)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안보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극에 위치한 프란츠 요세프 제도의 나구르스카야 기지에서 열리기도 했다.¹⁸⁸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해 새롭게 입안된 러시아의 철도전략에 따르면 북극권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프라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장 후 국가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하나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극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계획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신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방향을 4I정책으로 설명하면서,¹⁸⁹ 4I내에 인프라를 포함시키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메드베데프의 4I는 제도화(Institutions), 인프라 건설(Infrastructure), 혁신(Innovation), 투자(Investment)이다. 메드베데프의 이러한 발언은 2008년 2월 13일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 포럼에서 나온 것이며 2020년 까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의 구체적 계획들과 연관되어 있다.¹⁹⁰

¹⁸⁷-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의 기초,” <<http://www.scrf.gov.ru/documents/98.html>> 참고.

¹⁸⁸- *ITAR-TASS* (12 September, 2008).

¹⁸⁹-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2008년 2월 13일 및 14일자 로이터 통신, 이즈베스티야, 모스크바 타임즈 등 참고.

¹⁹⁰- 김석환,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체제의 신국가발전전략과 한-러협력,” 『산업경제정보(e-kiet)』 (2008) 참고.

이 때문에 2008년은 러시아 지도부의 북극 수호 의지 및 대외적 역량 과시 의욕을 과시하는 전환기적 시점이고 이후 러시아는 2009년 3월 27일 북극지역 방어를 위한 특수군을 만들 것이라는 선언을 내놓는 등 지속적으로 군사 정찰 활동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안보위원회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서기는 2009년 3월 30일 ‘로시이스카야 가제타’ 지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북극이 인류공동의 자원으로 다국적 에너지 회사들의 자유로운 탐사가 허용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파트루세프는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캐나다는 합심해 러시아를 북극지역 대륙붕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의견들의 상당수는 러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그리고 군사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고 썼다.¹⁹¹

소련 비밀경찰(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 책임자를 역임한 파트루세프의 이 같은 기고는 2008년 9월 18일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가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의 기초(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라는 전략 문건을 통해 러시아 국익수호를 위해 북극지역의 국경수비를 강화할 것이며 경제적 군사적 이익 수호를 위해 군대를 창설할 것 등을 선언한 후에 나온 러시아 지도부의 북극지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 가운데 하나로, 다른 지도부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¹⁹¹ “Canada, Russia Build Arctic Forces, As Ice Recedes, Nations Maneuver for Control,” *Defence news* (6 April, 2009);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30 March, 2009) 참고.

라.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의지

러시아의 북극관련 정책은 국가의 투자 우선순위 및 지역 정책과도 연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지역에 인접한 야쿠츠크 공화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0년 봄 이 지역의 야쿠츠크 대학을 러시아 연방 내 7개 특별 연방대학에 선정하고 막대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극지역의 거주 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포석의 하나로 대학을 통한 인센티브 및 북극 관련 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아래의 <표 VIII-4>에서 볼 수 있듯 메드베데프의 4I정책은 모두 북극지역에 대한 2020년 이후 전략과 일맥상통하고 있다.¹⁹²

●표 VIII-4 메드베데프의 4I정책과 그 내용

| 4I | 내용 |
|----------------|--|
| Investment | 기존 에너지 섹터의 경쟁력 유지 및 신규 유정 발굴 등을 위한 FDI의 유치 및 국부 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 하이테크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등 |
| Infrastructure |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 2030 및 2020 프로그램. 각 지역별 중장기 프로젝트의 달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 등 |
| Innovation | 러시아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원료 중심 경제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 중간 계층의 양성, 소득 불평등 정도 완화 등 |
| Institution | 관료제도 개혁, 행정 및 법률 제도의 개혁, 개인 소유권 제도의 명확화, WTO 등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 |

¹⁹²- 김석환,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체제의 신국가발전전략과 한·러협력.”

북극지역에 대한 신규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이전인 2007년 4월 10일 모스크바 근교 ‘노보 오가레보’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 ‘러시아 철도수송발전전략회의’에서도 논의됐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2001년부터 시작된 철도개혁의 마지막 단계로서, 철도관련 생산·기술기반의 근대화 및 철도망의 확충, 설비 노후화의 극복, 고속철도의 건설, 미개발 상태인 천연자원 광구 및 광산 개발의 지원 및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물류망 건설을 결정했다. 푸틴은 이러한 방침을 2007년 4월 26일 발표한 연두교서를 통해 보다 더 분명히 하면서 경제 분야의 가장 우선적 과제로, 하이테크 생산의 발전, 천연자원 이용 효율의 향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인프라(특히 수송 및 전력)향상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다. 아래의 <표 VIII-5>에서 알 수 있듯 러시아의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소련 해체가 이후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북극해 지역이 개발과 연동될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환경은 서유럽 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하다 할 수 있다.¹⁹³

이 때문에 2007년 10월 24~25일 양일 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일명 ‘철도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 및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상황 개선과 새로운 자원 및 전략 지역인 북극지역의 배후 및 접근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발전 전략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은 경제발전통산성이 작성한 ‘2020까지의 러시아 경제사회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하위 전략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¹⁹⁴

이에 따라 한때 러시아의 대선후보로도 거론되던 블라디미르 야쿠

193. 이와 관련해서는 안병민·김석환, “러시아 메드베데프체제의 극동러시아 교통 인프라 개발전략과 한반도,” 『교통연구원』, 2008 참고.

194. 위의 글.

년 ‘러시아 철도’사 사장은 2007년 10월 말 자원매장지대를 포함해 신개발지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의 철도노선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러시아연방교통전략 2020’의 주요 내용들 가운데 시베리아 및 북극권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들은 모두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2020’의 우선순위 및 연료·에너지 자원의 예견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 졌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를 새롭게 수정 보완해 마련한 ‘철도발전전략 2030’에 따르면 북극 및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제2단계인 2016~2030년까지로 투자 계획에 잡혀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기간에 철도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북부 시베리아 및 철도망 공백지역에 대한 철도망 신설 및 연계망 확충을 본격화해 러시아 경제의 신성장 거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광산 및 광구에 연계된 개발을 지원하며 세계시장과 러시아와의 통합을 강조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러시아는 북극에 대한 관심을 2007년 이후 특히 2008년 이후 국가의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설정해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에 이를 충실히 반영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VIII-5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교통 접근성

| 지역 | 교통접근성(%) | | 인구 (1,000명) | 인구밀도 (명/km ²) | 철도밀도 (km / 10,000 km ²) | 도로밀도 (km / 10,000 km ²) |
|---------|----------|------|----------------|------------------------------|---|---|
| | 도로 | 철도 | | | | |
| 연해주 | 67.4 | 64.4 | 2,019 | 12.3 | 94 | 43 |
| 유태인 자치주 | 83.9 | 97.7 | 187 | 5.1 | 143 | 43 |
| 사하공화국 | 4.9 | 3.4 | 950 | 0.3 | 0.5 | 2.4 |
| 마가단 주 | 15.5 | 0 | 172 | 0.4 | 0 | 4.8 |
| 캅차카 주 | 20 | 0 | 326 | 0.8 | 0 | 2.6 |

| 지역 | 교통접근성(%) | | 인구 (1,000명) | 인구밀도 (명/km) | 철도밀도 (km / 10,000 km) | 도로밀도 (km / 10,000 km) |
|---------------|---|------|----------------|----------------|-----------------------------|-----------------------------|
| | 도로 | 철도 | | | | |
| 아무르 주 | 35.5 | 88.5 | 881 | 2.4 | 81 | 20 |
| 하바롭스크 지역 | 9.4 | 34.4 | 1,412 | 1.8 | 27 | 6.1 |
| 추코트 자치구 | 0.8 | 0 | 51 | 0.1 | 0 | 0.8 |
| 코랴크 자치구 | 0.7 | 0 | 23 | 0.1 | 0 | 0.4 |
| 사할린 주 | 67.4 | 85.2 | 526 | 6 | 92 | 8.7 |
| 부랴티야 공화국 | 42.7 | 53.4 | 964 | 2.7 | 65 | 71 |
| 치타 주 | 67.4 | 67.4 | 1,054 | 2.6 | 59 | 64 |
| 아긴스키 부랴스키 자치구 | 69 | 90.6 | | 3.8 | 62 | 57 |
| 교통접근성 계산 | 도로: $\frac{30\text{km 이내 도로 분포 면적}}{\text{연방 주체 면적}} \times 100\%$ 철도: $\frac{100\text{km 이내 철도 분포 면적}}{\text{연방 주체 면적}} \times 100\%$ | | | | | |

4.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국제법적 권리 주장 및 국제사회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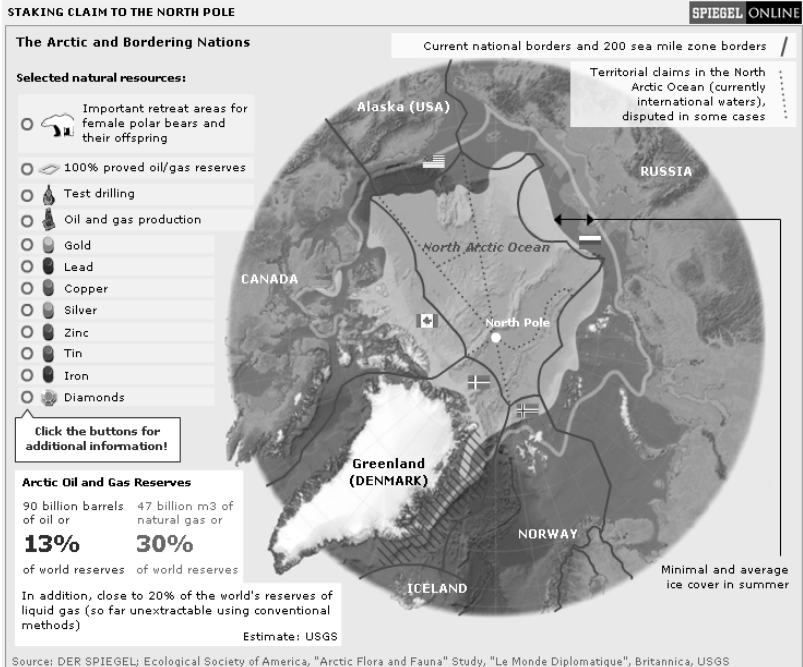
북극지역과 관련해 소련 해체 후 출범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추적해 보면 러시아가 현재 북극에서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두드러진 러시아의 북극정책의 변화 중 하나는 1997년 러시아가 유엔의 국제해양법협약(UNCLOS)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앞으로 유엔을 활용해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한 범위 내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1년 12월 유엔에 사절단을 파견, 세계 최초로 유엔에 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추가 영유권 신청, 즉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장문제를 제기한다. 당시 러

시아 천연자원부 차관 글로우모프는 120만km²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 시기는 러시아의 힘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부상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푸틴 정부가 새천년을 맞아 내놓은 공세적인 외교정책의 하나였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의 이러한 공세적 정책변화는 국제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테러와의 전쟁에 온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유도 상당했다. 하지만 향후 이것이 심대한 의미를 갖는 국가정책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게 점점 입증되어갔다. 당시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정책’에 따라 옐친 때의 친서방정책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으며 북극전략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의미 있는 행동들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 중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엔을 활용한 적극 공세였다. 러시아는 2001년 유엔에 로모노소프 해령(Lomonosov Ridge)과 멘델레예프 해령(Mendeleev Ridge)에서 북극점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인정 신청을 제기한다. 이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 중 처음으로 북극지역의 영유권 변경확장을 요청한 사례다. 당시 러시아가 요청한 120만km²에 달하는 영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국을 합한 정도의 규모이며 북극의 45%에 달하는 면적으로 만약 러시아가 이를 인정받게 된다면 북극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의 영향력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등의 반발이 즉각 나왔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그림 VIII-2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륙붕 연결지역 및 각국의 영토 주장 지역 1



출처: <<http://www.spiegel.de>>.

물론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유엔해양법협약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북극해역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접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는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지질학적 근거가 충족되어 러시아가 주장하는 로모노소프 해령과 멘델레예프 해령이 시베리아 대륙에 연결된 해령임이 입증된다면 러시아는 여기에 연접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게 된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멘델레예프 해령과 로모노소프 해령은 동시베리아에서 연결된 것이며 이러한 대륙붕

에 부속된 200해리 지역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며 러시아의 영해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VIII-2.1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륙붕 연결지역 및 각국의 영토 주장 지역 2



출처: <<http://www.spiegel.de>>.

러시아의 주장 지역은 <그림 VIII-2.1>에 보이는 것처럼 북극지역 외에도 한반도와 인접한 오호츠크 해 및 알래스카와 가까운 베링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미국,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던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2002년 4월 과학적 추가 자료 필요를 이유로 러시아의 영유권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의 러시아의 반응은 예측대로였다.

푸틴의 선언은 러시아가 북극지역 전략을 나름의 판단에 따라 정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러시아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일련의 행동을 개시했다. 처음엔 과학적 대응과 선전에 주력했으나 점점 군사·안보적 대응도 강해지기 시작했다. 2007년 여름 러시아는 4천 5백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해 ‘아카데미 표도로프’ 호와 심해 잠수정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미르’ 호를 투입해 새로운 탐사를 실행했다. 이러한 탐사의 대장으로는 러시아 국가두마 소속의 아르투르 칠링가로프가 맡았고 그는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킨 티타늄 국기 부착을 단행한다. 당시 러시아 탐사단의 이러한 행동은 러시아 내부에서는 열렬한 환영의 반응을 일으켰으며 북극탐사에 대한 오랜 향수를 다시 일깨웠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매우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였고 캐나다 외무장관 피터 맥케이(Peter MacKay)는 “지금은 15세기가 아니다. 마음대로 세계를 돌아다니다 국기를 꽂은 후 이곳은 우리 영토라고 선언하는 그런 세기가 아니다”라는 등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제사회의 이러한 반응은 그 해 2월 독일 뮌헨 유럽 안보포럼에서 발언한 푸틴의 발언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었다. 당시 푸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MD) 동유럽 배치계획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이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법률을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는 등의 격렬한 대미 비난 연설을 한 바 있다.¹⁹⁵ 러시아 민족주의적 의원의 북극 해저에 대한 국기 부착 행동은 러시아의 정책 변화가 실제로 매우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냉전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캐나다의 이러한 반발은 러시아 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캐나다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반발을 즉각 일으켰다. 실제로 캐나다는 2005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빌 그레함(Bill Graham)이 덴마크와 캐나다 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한스 섬을 방문해 그곳에 캐나다 국기를 부착한 사건이 있었다.¹⁹⁶

¹⁹⁵ 푸틴의 뮌헨 연설에 관해서는 <<http://www.securityconference.de/Conference-2007.268.0.html?&L=1>> 참고.

¹⁹⁶ “Hans Island the tip of iceberg in Arctic claims,” *CTV News* (31 July, 2005), <http://www.ctv.ca/CTVNews/QPeriod/20050731/hans_island_QP_050731>.

러시아는 자신들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국제사회의 반응에 아무런 위축도 받지 않고 오히려 과학 활동에서부터 외교안보 공세 및 대응에 이르기까지 북극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과학 탐사활동 또한 더욱 강화돼 2007년에는 이동과학기지 NP-35가 설치됐다. NP-35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 까지 1년 동안 새로운 탐사활동을 펼쳤다. 2008년과 2009년 겨울 사이에는 이외에도 NP-36 이동기지를 발족해 과학자 18명과 각종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탐사를 벌였고 브란겔라 섬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했다. 2007년 8월 17일 푸틴은 북극지역에 대한 군사훈련 재개를 선언했으며 2008년엔 북극지역에 관한 종합 전략인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의 기초’가 발표됐다.

또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영유권을 인정받고 있는 북극지역에 대한 개발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 가스전의 개발이다. 북극해 지역은 슈토크만 야말 가스전과 같은 대형 가스전이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의 발견 천연가스전의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극한지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극한지 개발 기술 분야는 러시아가 서방, 특히 노르웨이 등과 비교해 한참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국영천연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은 영하 50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을 습득할 별도의 회사인 ‘세브모르네프테가즈(Sevmorneftegaz)’를 자회사로 설립했다. 러시아는 또한 ‘셀’ 등과 협력해 극한지에서도 가스를 개발해 LNG로 선적할 수 있는 설비를 가동시키는 기술 등을 습득하려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Statoil)이나 프랑스의 토탈(Total) 등과도 역시 기술습득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질탐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49개에 달하던 국영 지질탐사회사들을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 ‘로스게올로기야(Rosgeologiya)’를 설립하기도 했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석유 가스전 외에도 러시아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특수 금속 등의 개발이며 역시 수자원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도 러시아 극동 및 오토츠크 해에서 북극해 지역으로 이어진 지역은 러시아 수산물의 25% 정도를 생산해내고 있어 향후 이 지역이 러시아 수산업 및 주변국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본 러시아의 행동은 분명하다. 기존의 러시아 북극지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실히 하는 한편, 새로운 영역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유엔해양법에 기초한 국제법의 규범 하에서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국제법적 규범에 장애가 될 만한 조약이나 규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련해체의 와중인 1990년 6월 15일에 미국과 소련 간에 맺어진 일명 ‘세바르드나제-베이커 라인’에 대한 것으로 러시아 의회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세바르드나제-베이커 라인’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북극해 지역의 경계선 획정과 관련한 합의로 당시 세바르드나제는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던 지역의 일부(약 5만km²)를 미국에게 양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상원은 1991년 9월 16일 이를 비준했지만 러시아 상원은 이를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거부했다. 이로써 미국과 러시아 간 베링해 경계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9월 12일엔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이견을 보여 온 바렌츠 해 부근의 영토경계에 합의하는 성과가 나왔다. 이는 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평화적으로 국경선 획정에 합의한 것으로 앞으로 북극지역 경계선 협정의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북극 지역의 영역 설정은 한편으로는 평화적 합의에 의한 사례가 쌓여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영토 획득을 위한 과학 및

학술 탐사가,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안보적 대응이 이어지는 모습이 중첩되어 보이고 있다.

5. 결론

환경의 변화는 전혀 새로운 전략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요즘 북극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초래하는 전략적 상황은 이 말을 옹변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북극해 주변국은 현재 5개국이다. 이들은 역사적, 지리적 연원을 들어 북극 및 북극해 주변 지역에 대한 역외 다른 세력들의 개입을 극도로 꺼린다. 2008년 5월 27~29일까지 덴마크 주최로 그린란드 일룰리사트(Ilulissat)에서 열린 북극해 연안국 정상회담에는 북극위원회 소속 8개국 가운데 직접 영해로 연결되지 않는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초대를 받지 못했다. 단지 북극해 연안 5개국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만이 참석을 했다. 또한 회담에서 채택된 일룰리사트 선언문은 “선언문에 서명한 5개국만이 북극해에 대한 주권적, 사법적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극해를 위한 새로운 포괄적인 국제법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¹⁹⁷고 밝히고 있다.

이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말하듯 북극해 연안국들이 해양법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북극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광대한 자원을 자기들끼리 우선적이고 배타적으로 활용하고 나누겠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은 다른 나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러시아도 이들 나라들과 함께 북극해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개입에는 반

¹⁹⁷ 일룰리사트 선언문과 관련해서는 <http://www.oceanlaw.org/downloads/arctic/Ilulissat_Declaration.pdf> 참고.

대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 나라들과의 개별적인 경쟁에 있어서도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2008년 칠린가로프를 대장으로 한 탐험대가 로모노소프 해령에 티타늄 국기를 설치한 사건이 보여주듯 러시아는 북극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기득권을 철저히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대테러전쟁과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북극지역 이슈화에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전략적 이익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앞으로 몇 년 내에 북동노선 및 북서 노선에 대한 상업적 이용은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큰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쇄빙선 등의 도움을 받는 극히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무리 없이 연중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이들 지역에 대한 항구 및 항로 측정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배후 기지로서 항만의 수심이 깊고 대형선박의 접근이 가능한 무르만스크, 마가단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여기서 북극해 항로가 상업적으로 완전 개방돼 가동될 경우 당장 현실적으로 제기될 문제 중 하나는 러시아 항로 이용료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즉 시베리아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러시아가 영공 통과료를 요구하고 있듯 러시아의 북동항로를 이용하는 외국 선사들에 대해 러시아가 영해 통과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시베리아를 경유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영공통과료 수입을 유럽 국가들로부터만 연 3억 달러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⁸

¹⁹⁸ "Russia agrees to scrap over-flight charges for EU carriers by 2014," *Ria Novosti* (24 November, 2006), <<http://en.rian.ru/russia/20061124/55956999.html>>.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러시아의 북극해 및 북극에 대한 전략은 역사적 연원이 매우 깊고 함의가 심대하다. 러시아는 제정 시기 이후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을 국가적으로 증대시켜왔고 국민들이 느끼는 영토의 개념으로서도 북극 및 시베리아에 대한 친밀감이 강하다. 러시아의 과학적 탐사와 축적된 경험은 또한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 증대에도 큰 몫을 했다. 특히 오늘날 러시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의 조항을 인용해 자신들의 추가 영유권 인정 노력을 전개하는 데에는 소련 해체 후 막대한 영토를 상실한 데 대한 보상적 심리도 깔려있다.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의 새로운 부상을 위한 현실적 목표로 북극지역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 지배와 이들 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2020년 및 그 이후까지의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의 기초’에도 이러한 개념들이 반영되어 있고 러시아는 이를 통해 쇠락한 소련의 계승자가 아닌 부상하는 강대국이라는 식으로 러시아의 이미지 개선을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 서라도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위원회 서기인 파트루세프의 발언에서 나타나듯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제될 수도 있다”¹⁹⁹는 생각을 지도부가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때문에 러시아는 자신들의 북극전략에 정치·군사·경제·과학적 요구를 종합한 종합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관심은 매우 복합적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 그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인들의 자존심이 된 지 오래며 영토적 측면에서도 매우 친밀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지도부의

¹⁹⁹- “Russia Unveils Aggressive Arctic Plans,” *Spiegel* (29 January, 2009),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world/0,1518,604338,00.html>>.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매우 신중하기도 하지만 매우 민감하기도 하다. 국가의 자존심과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북극지역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과 전략을 이해할 때에는 단순히 북극해의 북동항로를 둘러싼 물류적 관심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군사전략적 관점이 러시아 지도부에 항상 이 지역 전략을 입안할 때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멀지않은 북극과 북동·북서 루트가 지구 온난화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새롭게 열리고 있다. 중국은 이미 쇄빙선을 이 지역에 파견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일본과 다른 국제사회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이 더욱 강화되기 이전에 유엔에 의한 추가 영유권 이전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과 북극해로 향하는 항로를 개척해야 하는 중국은 북한의 동해 쪽 항구들 특히 라진항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북극해의 북동항로의 적극적인 상업화 과정에서 이를 보호·활용할 필요가 있는 러시아 또한 배후 항만 및 핵심 항만으로서 한반도 북부의 라진항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동항로의 배후 중간기지로써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항만들이 수심이 낮은 측면에서 환적과 기타 안보적 측면에서도 이들 지역은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크리스토프 자이들러, 박미화 옮김. 『북극해 쟁탈전』. 서울: 더 숲, 2009.
- Brubaker, R. Douglas and Douglas Brubaker. *The Russian Arctic Straits(International Straits of the World)*. Brill, 2005.
- Byers, Michael. *Who Owns the Arctic?: Understanding Sovereignty Disputes in the North*. Douglas&McIntrye, 2010.
- Pier, Horensma. *The Soviet Arctic*. Routledge, 1991.
- Smith, Laurence C. *The World in 2050: Four Forces Shaping Civilization's Northern Future*. Dutton Adult, 2010.
- Thompson, Niobe. *Settlers on the Edge: Identity and Modernization on Russia's Arctic Frontier*. UBC Press, 2009.

2. 논문

- 김석환.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체제의 신국가발전전략과 한러협력.” 『산업경제정보(e-kiet)』, 2008.
- 안병민·김석환. “러시아 메드베데프 체제의 극동러시아 교통인프라 개발 전략과 한반도.” 『교통연구원』, 2008.
- Barr, William. “A Tsarist Attempt at Opening the Northern Sea Route: The Arctic Ocean Hydrographie Expedition, 1910~1915.” *EPIC*. 6 January, 1975.
- Smith, Mark A. and Keir Giles. “Russia and the Arctic: The Last Dash North.” Defenc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5 September, 2007.

I

II

III

IV

V

VI

VII

VIII

Stokke, Olav Schram and Ola Tunander. "The Barents Region: Regional Cooperation in Arctic Europe."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4.

3. 기타자료

황진희. "북극해 항로의 가능성과 과제." 배재대 사회과학연구소 발표자료, 2010.9.17.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Scientific Report,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The Northern Mariner/Le Marin du Nord," *The Canadian Nautical Research Society* Vol. 3, No. 2, April 1993.

Defence news.

Itar-Tass.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Ria Novosti.

Spiegel.

<<http://archive.kremlin.ru>>.

<<http://en.rian.ru>>.

<<http://www.cnrs-scrn.org>>.

<<http://www.oceanlaw.org>>.

<<http://www.scrf.gov.ru>>.

<<http://www.spiegel.de>>.

결론: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방안

여인곤(Yeo, In-Kon)



1990년 9월 수교 이후 한·러관계는 1992년 11월 ‘우호협력관계’, 1994년 6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 2004년 9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이후 우리 정부는 대러정책 목표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의체제 강화, 에너지·자원 및 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사업 확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및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참여, 첨단 우주산업 협력 등에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2008년 5월 집권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러 양국관계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확립·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과 동북아 차원 및 한반도 차원에서 러시아의 21세기 외교·안보·경제 전략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론에서는 8편의 논문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러시아의 외교·안보전략 목표는 첫째, 구소련 붕괴 이후 약화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과 소프트 파워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 경제를 세계경제로 긴밀히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는 현재 현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및 서방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면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이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새로운 안보구조를 형성하려 하고 있고,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영향력 잠식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대서방 관계에 실망하여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도, 중국, 일본, 한국, ASEAN 국가

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안보면에서,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미국의 대이라크전과 NATO 확대, 2008년 8월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등으로 악화되었다.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마·러 관계는 2010년 4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체결되는 등 다시 재조정(reset)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마·러관계가 양국 국가목표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및 구조련공화국 문제 등 중대한 사안들에서의 국익 차이로 상호협력과 불신의 교차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양국의 잠재력과 현시대의 필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미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핵문제, 영토분쟁, 중·일 및 한·일 간 역사문제, 대만문제, 동북아 에너지 안보, 테러, 저작권, 환경과 자연재앙, 전염병 등을 중요한 안보 위협과 도전들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6자회담, 에너지 문제에 대한 다자간 지역적 협력 모색, 새롭고 비전통적인 위협대처에서의 협력, 동아시아에서의 다자간 경제협약체 등을 안정요인들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안정적 경향이 불안정적 경향보다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핵 위기의 주요 원인을 북한정권의 안보 논리에서 찾고 있으며 핵실험 이후 협상지위 강화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있는 한·러 양국이 공동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3자 정상회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계금융체제 형성과 동아시아 역내 다자안보체에서 협력 증진, 양자 간

전략고위대화의 정례화, '동북아에너지 현장' 채택, 좀 더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모델의 창출, 대규모 다자 간 프로젝트 추진. 한국-라진-하산 수송망 연결, 인적 교류 확대, 교육·과학·문화·체육 분야에서 협력 증진, 상대국 이해증진을 위한 정보 확대와 문화 확산 등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김정일 이후 체제에서 북한정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

경제면에서, 러시아는 1990년대 초 이래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역동적으로 발전 중인 아·태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과는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천연자원 수출 중심의 대외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산업을 현대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면에서 중동 생산국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러시아는 수송과 물류 인프라를 건설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에너지 분야 이외에 러시아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외국투자, 환경, 기간산업 현대화, 운송과 교류, 건강관리와 교육, 인도적·문화적 교류 등이다.

TSR-TKR 연결 관련, 러시아는 두만강 국경지대에서 DMZ까지 960km에 달하는 철도재건에 25~3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 철도연결 사업이 실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5년 시작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은 남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5개국 간 프로젝트로서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UNDP가 약속한 300억 달러 지원의 미집행, 민간자본 유치 저조, 관련국들의 상이한 이해 등으로 역동성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두만강이 아시아 횡단 운송과 무역 및 에너지 소통로로서 관련국들이 좀 더 통합적인 다자관계로 변화된다면 21세기에 새로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심해 탐사기술 발전 등으로 북극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토의 1/3 이상이 북극권에 연접해 있고 북동항로를 관할하고 있어 이 항로의 완전 개방 시 상업적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극위원회 소속 8개국 이외에 한국, 중국, 일본, EU 등이 이해를 표명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타국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확립·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러시아의 21세기 외교·안보·경제 전략과 정책을 고려하면서 공동의 이해사안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상이한 이해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위인사와 전문가 등의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양국의 공동 이해사안은 국제테러·자연재앙·전염병 등 범세계적 문제 대응, 새로운 세계금융체제 형성,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 및 경제협력체에서의 협력, 상호 협력적 미·러관계 등이다. 한·러 양자차원에서 공동 이해사안은 러시아의 현대화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협력,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정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의 전환, 좀 더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모델의 창출, 인적 교류 확대, 교육·과학·문화·체육 분야의 협력 증진, 상대국 이해증진을 위한 정보 확대와 문화 확산 등이다. 남북관계 발전의 경우, TSR-TKR 연결, 한국-라진-하산 수송망 연결, 두만강개발계획의 재추진 등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동 행동계획 마련, 남·북·러 3자 정상회담 개최, 동북아 에너지 현장 채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러 양국의 상이한 이해사안은 러시아의 다극체제 선호와 우

리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타국 배제정책과 북동항로에 대한 한국의 이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대규모 대남도발이 한·미동맹에 의해 억제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는 훨씬 더 강경한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북극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북극해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자 이력

배정호(Bae, Jung-Ho)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으로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의 국내정치와 외교안보정책,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정책,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주요저서로는 『북한 체제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Seoul: KINU, 2009);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07);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서울: 나남, 2006);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00); 『21세기를 위한 한국의 비전과 대북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02); 『냉전 후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서울: 통일연구원, 1999);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 (Seoul: Korea Foundation, 1999) 등 다수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동경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세르게이 추그로프(Sergei Chugrov)

러시아 외교정책과 국제관계, 전통사회의 근대화 및 러일관계의 전문가이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를 1973년에 졸업했으며 같은 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2~2007년에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의 국제저널리즘학과의 학과장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러시아정치학회의 학술지인 Polis지의 편집위원장을 지

내고 있으며, 1992년 이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연구소(IMEMO)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지의 부편집위원장을 지냈고,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일간 Izvestia(이즈베스치야)지의 특파원과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수권의 저서와 20권의 공동저서 및 300편의 논문과 기사를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독일과 기타 국가들에서 출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일본: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러시아어)』. Moscow: Oriental Literature, 2010; 『근대 일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외교정책(러시아어)』. Moscow: IMEMO, 2007; 『러시아와 서구: 상호 인식의 변형(러시아어)』. Moscow: Nauka Publishing House, 1993; *Der 'Westen' im russischen Bewußtsein (The 'West' in Russian Consciousness)*.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ß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Köln, 2000. (러시아 사회학자 달리겐스키(G. Diligenskiy)와 공저); “Domestic Sources of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s Japan in the 1990s(in English).” *Occasional Pap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1994 등 다수 있다.

또 추그로프는 일본(호세이대, 시즈오카 현립대학), 미국(하버드대), 프랑스(Ecole des Sciences de l'Homme), 영국(런던 정경대)에서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 일본국제교류재단, SIPRI, 캘거리 대학교(캐나다)와 고르바초프 재단이 발주하는 연구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시조프(Vladimir Siz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미국·캐나다 연구소의 군사안보연구 센터장이자 그는 2000~2003년에 러시아군총참모대학 전략학과의 교수를 역임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위정책을 전공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연구소 e-저널 *Russia and America in the XXI Century* (www.rusus.ru)에 게재된 최근의 글은 “Russian Defens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RF Military Security.” (2010, No. 2); “Russia-U.S. Security Relations: Is 2009 a Failure or a Success?” (2010, No. 1);

“Globalization and U.S. Strategy.” (2009, No. 3); “Russian Defense Policy after the 2008 Crisis in the Caucasus.” (2009, No. 2);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2008: Outcomes and Expectations.” (2009, No. 1) 등 다수 있다.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부소장 및 IMEMO의 아시아-태평양 연구 센터장이다. 그는 동북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로 널리 알려진 전문가이다. 러시아, 미국, EU, 스위스, 중국, 일본, 남북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타이완, 카자흐스탄 등에서 6권의 저서, 40권의 공동저서를 출간했고 약 300편의 논문 및 신문기사를 발표했다.

미헤예프는 1976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정교수가 되었다. 외교 실무 경험도 두루 갖고 있는데,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리투아니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정치담당관으로 재직했다. 1999~2005년에는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부소장을 지냈다. 또 2003~2005년에는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의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다.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의 한국연구 책임자이다. 그는 한국 문제를 수십 년 동안 다룬 외교관(장관급)으로 북한에서 두 번(1977~1980, 1984~1987) 근무했으며, 한국 대사관의 부영사로 근무하기도 했다(1993~1998). 이후에 한국담당 과장으로 러시아 외무부에서 근무한 후(1998~2003), 오스트레일리아 주재 러시아 총영사로 근무했다(2003~2007).

1978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MGIMO)를 졸업하고 학문적인 경력도 쌓았다. 1984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에 동방학연구소 정교수가 되었다. 그는 동아시아에 대한 많은 논문과 책을 출간했으며, IMEMO를 포함하는 러시아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몰두했고, MGIMO에서 교수생활을 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서 객원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루스키 미르(러시아의 세계)’ 대통령 재단의 아시아 담당 부서장이며 러시아 CSCAP의 정부 담당관이다.

알렉산더 페도로프스키(Alexander N. Fedorovskiy)

태평양 지역 경제, 동북아 문제, 한국경제와 한-러관계의 전문가이다. 그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IMEMO)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IMEMO의 태평양연구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3~2007년에는 현대한국연구센터 집행이사과 코리아포럼(모스크바)지의 편집위원으로 봉직했다. 2002~2004년에는 러시아 연방 외무부의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교수로 일했다. 2008년 이후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지(서울)의 편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페도로프스키 교수는 3권의 단독 집필 저서와 20권의 공저서를 냈으며, 러시아,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약 200편의 논문과 신문기고 기사를 썼다. 저서로는 *Chaebol Phenomena: The State and Big Business Re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In Russian)*. Moscow, 2008; *Twenty Years of Russia-ROK Diplomatic Relations: Main Results and Prospects for Bilateral Cooperation*(Editor in Chief, In Russian). IMEMO, Moscow, 2010; “President Medvedev’s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FANS Review*. Vol. 16, No. 2, Seoul: February, 2009;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in *East Asia*

between Regionalism and Globalism (ed.). Gennady Chufirin. Singapore: ISEAS, IMEMO, 2006 등 다수 있다.

페도로프스키 교수는 한국, 일본과 미국에 연구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통일연구원(한국), SIPRI, 국립발전연구소(일본 NIRA), 고르바초프 재단, 랜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알렉산더 보론초프(Alexander Vorontsov)

현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연구분과 과장이자 그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러시아연방 군사학 아카데미, 일본 오사카 경제 및 법과 대학 아세아연구소에서 교수 및 연구 직위를 갖고 있다. 그는 또한 무역, 경제와 과학·기술 협력을 다루는 러시아-북한 정부 간 위원회의 러시아 측 대표이기도 하다. 1998~2000년에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방문 교수였고, 2009년에는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연구했다. 2005~2006년에는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정책 연구 센터의 방문 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5년 호놀룰루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센터에서 실무 역할을 담당했다. 보론초프 박사는 2000~2002년에는 평양의 러시아 연방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는 소련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스베틀라나 수슬리나(Svetlana Suslina)

현재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의 세계경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이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한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다. 그녀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한 전문가이며, 주로 한반도를 연구하고 있다.

1972년에 러시아연방 외교부 산하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에서 1978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에 극동연구소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2005년에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센터의 전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남북한과 동북아 문제에 대한 100편 이상의 논문, 북채터와 기사를 한국과 러시아에서 출간했다. 대표 저서는 *Industry of South Korea*. Moscow, 1988. (in Korean in 1989); *Republic of Korea: Economy and Globalization*. IFES RAS, 2002; “Foreign Capital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ROK Economy.” (Ph. D. dissertation, 1978 in Russian); “Republic of Korea: Post-Industrial Stage of Development (late 1980s~early 1990s.” *Vostochnaya Lieratura*. RAS Publishing House, 1997 등 다수 있다.

김석환(Kim, Seok Hwan)

러시아 정치 및 안보, 동북아 협력 및 국제정치 전문가다. 한국외대 러시아어과와 한국외대 대학원 동구지역학과(Russia and East European Studies)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역임했으며 국제부장, 논설위원 및 칼럼니스트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Member of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 (Senior Press Secretary) 등을 지냈다. 이후 산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Research Fellow of KIET)을 지냈으며 현재는 주성대학(Juseong Univ). 부총장 겸 국제개발전략연구소장(Institut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Strategy)을 맡고 있다.

그는 수많은 컬럼과 분석을 주요 매체에 기고하고 있으며 10여권의 저서와 역서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선진국의 ODA 공여 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공저, 산업연구원, 2009); 『신흥전략시장 자

원개발과 산업협력 확대 방안』(공저, 산업연구원, 2008); 『중·러관계 진전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공저, 동북아시아대위원회, 2005); 『푸틴과 현대 러시아: 올리가르흐(재벌), 가신 그리고 대통령』(SM미디어, 2002); 『한국의 자원에너지 안보 확보 전략과 한·러협력 촉진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현대 러시아 정치, 경제의 이해』(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4) 등 다수 있다.

여인곤 (Yeo, In-Kon)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의 정치·외교, 동북아 안보, 독일통일문제 등이다. 주요저서로는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9);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9); 『동북아 4국에 대한 실용외교와 북핵문제』(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8);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7);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6);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3);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3);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2) 등 다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총서

| | | | |
|---------|--|-----------------|---------|
| 2008-01 |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 최진욱 외 | 9,000원 |
| 2008-02 |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 임강택 외 | 10,000원 |
| 2008-03 |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 김영운 | 8,000원 |
| 2008-04 |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 배정호 외 | 10,000원 |
| 2008-05 |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 전병근, 구기보 | 7,500원 |
| 2008-06 |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 박영호 외 | 9,000원 |
| 2008-07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조정아 외 | 10,000원 |
| 2008-08 |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 전현준 외 | 10,000원 |
| 2008-09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 박형중 외 | 6,500원 |
| 2008-10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 이금순, 김수암 | 9,000원 |
| 2008-11 |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 김규륜 편 | 9,000원 |
| 2009-01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 전성훈 | 7,500원 |
| 2009-02 |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 황병덕, 신상진 | 9,000원 |
| 2009-03 |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 전현준 외 | 10,000원 |
| 2009-04 |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 임강택 | 9,000원 |
| 2009-05 |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 여인근 외 | 10,000원 |
| 2009-06 |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 배정호 외 | 10,000원 |
| 2009-07 |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 박형중 외 | 10,000원 |
| 2009-08 |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 최진욱 외 | 10,000원 |
| 2009-09 |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 홍우택 외 | 6,500원 |
| 2009-10 |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 허문영 외 | 9,000원 |
| 2009-11 |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 이금순, 김수암 | 7,500원 |
| 2009-12 | 통일대계 탐색연구 | 조민 외 | 8,000원 |
| 2009-13 |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 김규륜 외 | 7,500원 |
| 2009-15 |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 Gabriel Jonsson | 20,000원 |
| 2010-01 |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 박형중 외 | 9,500원 |
| 2010-02 |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 최진욱, 김진하 | 8,000원 |
| 2010-03 |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 7,000원 |
| 2010-04 |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 7,500원 |

| | | | |
|---------------|---|---------------|---------|
| 2010-05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 배정호 외 | 12,500원 |
| 2010-06 |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 이금순, 전현준 | 8,500원 |
| 2010-07 |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 8,000원 |
| 2010-08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 박종철 외 | 11,500원 |
| 2010-09 |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 허문영 | 6,000원 |
| 2010-10 |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 홍우택 | 5,000원 |
| 2010-11 |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 정영태 외 | 11,000원 |
| 2010-12 |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 조정아 외 | 17,000원 |
| 2010-13 |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 최수영 | 7,500원 |
| 2010-14 |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 김규륜 외 | 10,000원 |
| 2010-15(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김규륜 외 | 13,000원 |
| 2010-15(I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김규륜 외 | 13,000원 |

학술회의총서

| | | | |
|---------|---|--|---------|
| 2008-01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 | 10,000원 |
| 2008-02 |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 | 9,500원 |
| 2009-01 |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 | 6,500원 |
| 2009-02 |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 | 5,500원 |
| 2010-01 |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 8,000원 |
| 2010-02 |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 | 6,000원 |
| 2010-03 |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 | 5,500원 |
| 2010-04 |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 | 7,000원 |

협동연구총서

| | | | |
|------------|---|----------|---------|
| 2008-07-01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 6,500원 |
| 2008-07-02 |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 양현모, 이준호 | 6,000원 |
| 2008-07-03 |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 최진욱 외 | 7,000원 |
| 2008-07-04 |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 박종철 외 | 8,000원 |
| 2008-08-01 |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 박형중 외 | 10,000원 |
| 2008-08-02 | 국제 개발이론 현황 | 이금순 외 | 8,000원 |
| 2008-08-03 |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 임강택 외 | 10,000원 |

| | | | |
|------------|--|-------|---------|
| 2008-08-04 |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 최춘흠 외 | 6,500원 |
| 2008-08-05 |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 권 율 외 | 10,000원 |
| 2008-08-06 |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 장형수 외 | 10,000원 |
| 2008-08-07 |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 이종무 외 | 8,000원 |
| 2009-15-01 |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 임강택 외 | 8,500원 |
| 2009-15-02 |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 박형중 외 | 10,000원 |
| 2009-15-03 |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 김정수 외 | 10,000원 |
| 2009-15-04 |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장형수 외 | 10,000원 |
| 2009-15-05 |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 이종무 외 | 9,000원 |
| 2009-15-06 |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 양현모 외 | 10,000원 |
| 2009-16-01 |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 6,000원 |
| 2009-16-02 |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 이교덕 외 | 8,000원 |
| 2009-16-03 |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 이 석 외 | 9,000원 |
| 2009-16-04 |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 민병원 외 | 8,000원 |
| 2009-17-01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총괄보고서) | 여인곤 외 | 7,500원 |
| 2009-17-02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 박종철 외 | 8,000원 |
| 2009-17-03 |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 조 민 외 | 9,000원 |
| 2009-17-04 |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 함택영 외 | 7,500원 |
| 2009-17-05 |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 조명철 외 | 7,000원 |
| 2009-17-06 |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 이금순 외 | 7,500원 |
| 2010-14-01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 황병덕 외 | 12,000원 |
| 2010-14-02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 황병덕 외 | 14,000원 |
| 2010-14-03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 황병덕 외 | 13,000원 |
| 2010-15-01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 여인곤 외 | 9,000원 |
| 2010-15-02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 박영호 외 | 9,500원 |
| 2010-15-03 |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 허문영 외 | 7,000원 |
| 2010-15-04 |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 남궁영 외 | 7,500원 |
| 2010-15-05 |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 전재성 외 | 9,500원 |
| 2010-15-06 |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 이수훈 외 | 7,500원 |
| 2010-16-01 |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 이교덕 외 | 7,000원 |
| 2010-16-02 |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전현준 외 | 7,500원 |
| 2010-16-03 |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 조정아 외 | 14,000원 |
| 2010-16-04 |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 민병원 외 | 7,500원 |

논문

| | |
|--|---------|
|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 2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 2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 2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 2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 2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 20,000원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08 | 이금순 외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 이금순 외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9 | 이금순 외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 이금순 외 | 2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0 | 박영호 외 | 2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 박영호 외 | 20,000원 |

기타

| | | | |
|------|--|-------------------------------|---------|
| 2008 | 2006 독일통일백서 | | 8,000원 |
| 2009 |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 Suh, Jae-Jean | 5,500원 |
| 2009 |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 | 15,000원 |
| 2009 |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 Bae, Jung-Ho, Abraham Denmark | 10,000원 |
| 2009 |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 배정호 | 10,000원 |
| 2009 |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 배정호 | 10,000원 |
| 2010 |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 | 15,000원 |
| 2010 | 2010 독일통일백서 | | 13,000원 |
| 2010 |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 | 10,500원 |
| 2010 |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 | 13,500원 |
| 2010 | NPT 체제와 핵안보 | | 13,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08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 6,000원 |
| 2009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 7,000원 |
| 2010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 7,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 | | |
|---------|---|-----------------------------------|
| 2008-01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
| 2008-02 |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 전병곤 |
| 2008-03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 전현준 |
| 2008-04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8-05 |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 배정호 |
| 2008-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 최수영 |
| 2008-07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 이금삼, 김수암 |
| 2008-08 |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 최진욱, 박형중 |
| 2008-09 |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 임순희 |
| 2008-10 |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
| 2008-11 |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 2008-12 |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
| 2009-01 |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
| 2009-02 |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
| 2009-03 |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
| 2009-04 |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 전현준 |
| 2009-05 |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 임강택, 박형중 |
| 2009-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 최수영, 정영태 |
| 2009-07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
| 2010-01 |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 임강택 외 |
| 2010-02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 최수영 |
| 2010-03 |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
| 2010-04 |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
| 2010-05 |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 황병덕 |
| 2010-06 |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 여인곤 |

| | | |
|---------|-----------------------------------|-------|
| 2010-07 |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 김진하 |
| 2011-01 |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최진욱 외 |
| 2011-02 |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 배정호 외 |
| 2011-03 |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 황병덕 외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 | | |
|--------------|---|--------------------|
| 2008-01 |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 서재진 |
| 2008-02 |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
| 2008-03 |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 최은석, 황재준 |
| 2009-01 |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김규륜 외 |
| 2009-02(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 손기웅 외 |
| 2009-02(I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 손기웅 외 |
| 2009-03 |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 조한범 외 |
| 2009-04 | 통일 예측 시계 구축 | 박영호, 김지희 |
| 2009-05 | 북핵일지 1955-2009 | 조 민, 김진하 |
| 2009-06 |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 이원웅 |
| 2010-01 |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 이규창 |
| 2010-02 | 2010년 통일예측시계 | 박영호 외 |
| 2010-03 |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 임강택 외 |
| 2010-04(II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 손기웅 외 |
| 2010-04(IV)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 손기웅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 | | |
|------|-------------------------------|-------------------------|
| 2008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
| 2008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 이금순, 김수암 |
| 2009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
| 2009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
| 2010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 | | |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 북한연구실 |

| | | |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 북한연구실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 북한연구센터 |
| 2010 |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 북한연구센터 |
| 2010 |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 북한연구센터 |
| 2010 |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 북한연구센터 |
| 2010 |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 북한연구센터 |
| 2010 |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 북한연구센터 |

Studies Series

비매품

| | | |
|---------|---|--|
| 2008-01 |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Kim Soo-Am |
| 2008-02 |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 Jeung Young-Tai |
| 2008-03 | PSI and the Korean Position | Cheon Seong-Whun |
| 2008-04 |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 2008-05 |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 2008-06 |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 Suh Jae-Jean |
| 2009-01 |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 2009-02 |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 2009-03 |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 2009-04 |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 2010-01 |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 2010-02 |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 Park Young Ho |

| | | |
|------|---|---------------|
| 2010 |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 Park Young Ho |
| 2010 |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Kim Kyu-Fyoon |

■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KINU KOREA-RUSSIA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